

박 사 학 위 논 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2018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서 정 원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 천 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 Focusing on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Adaptation -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서 정 원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 천 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 Focusing on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Adaptation -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서 정 원

서정원의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윤경준 (인) 

심 사 위 원 김대진 (인) 

심 사 위 원 박시진 (인) 

심 사 위 원 신주상 (인) 

심 사 위 원 최권근 (인) 

국 문 초 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서 정 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동안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고, 또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소외,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습부진,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과 불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외국인이며, 여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로서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려는 목적으로 왔으며, 현재의 생활환경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행정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인적관계와 사회활동 등을 통해 정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을 말하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사회활동 및 자조집단의 참여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응의 핵심적 개념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하위체계로 사회 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 정치, 사회, 정책, 가정적으로 적응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에 이주한 이주민들 중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기간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사회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이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선진국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교육이나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해야한다고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경제, 문화, 사회, 정치등 사회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회화 교육과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하고 책

임질 교육 전문인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형성 프로그램의 홍보와 적극적 참여의 중용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미교실, 운동 및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참여부문은 모국인 친구 모임에 비해 지역주민모임이나 민간단체모임 등은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도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었으며, 거주기간도 오래된 순으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기간이 짧고, 젊은층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적거나 이주기간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지역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장려하여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모색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적응부문은 먼저 경제적으로 6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별거, 미혼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우자가 없는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한 가족 증가나 체류기간 증가 및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취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을 고려했을 때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자 또는 모녀가정의 경제적 생활과 자립을 위해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정치적으로는 2%대의 매우 저조한 참여도가 나왔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도가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여성결혼이민자 60%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외국인 이민자로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부문에서는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초 이주시 법무부에서의 교육을 통한 홍보 효과와 거주지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여 진다. 반면 사회적 부문은 5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선진국과, 고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적 부문에서도 67%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앞선 결론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이민자 모국간의 사회적 발달의 차이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확대 및 접근성과 수용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정구역상 ‘동’단위의 작은 마을에도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및 문화교육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빠른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꾀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그들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공존의 모색 및 정책변화의 노력을 통해 다문화모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적응을 넘어서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로, 사회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사회,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사회적 적응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2.1 여성결혼이민자의 제도적 고찰	6
2.1.1 여성결혼이민자	6
2.1.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7
2.1.3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	13
2.1.4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	20
2.1.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23
2.2 사회적 네트워크	28
2.2.1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28
2.2.2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32
2.2.3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	34
2.2.4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37
2.2.5 선행연구	38
2.3 사회 참여	48
2.3.1 사회참여의 개념	48
2.3.2 사회참여의 중요성	49
2.3.3 사회참여의 유형	51
2.3.4 사회참여의 효과	53
2.3.5 선행연구	55

2.4 사회 적응	61
2.4.1 사회적응의 개념	61
2.4.2 사회적응의 중요성	63
2.4.3 사회적응의 유형	66
2.4.4 사회적응의 효과	71
2.4.5 선행연구	73
 Ⅲ. 분석방법	 81
3.1 분석틀	81
3.2 변수의 측정	83
3.2.1 인구통계학적 특성	83
3.2.2 사회적 네트워크	83
3.2.3 사회적 참여	84
3.2.4 사회적 적응	85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7
 Ⅳ. 분석결과	 90
4.1 응답자 특성	90
4.2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	92
4.2.1 일상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92
4.2.2 경제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94
4.2.3 여가활동 상대 존재유무	96
4.2.4 사회적 도움 제공자 존재유무	98
4.2.5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100
4.3 사회적 참여 실태	103
4.3.1 모국인 친구 활동	103
4.3.2 지역 주민 활동	105
4.3.3 종교 활동	107

4.3.4 민간단체 활동	109
4.3.5 사회적 참여 분석	111
4.4 사회적 적응 실태	113
4.4.1 경제적 적응	113
4.4.2 정치적 적응	115
4.4.3 사회적 적응	117
4.4.4 정책적 적응	123
4.4.5 가정적 적응	139
4.5 주요 변수간의 관계 분석	144
4.5.1 경제적 적응	144
4.5.2 정치적 적응	145
4.5.3 사회적 적응	146
4.5.4 정책적 적응	147
4.5.5 가정적 적응	147
 V. 결론	 149
5.1 요약	149
5.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7
5.3 연구의 한계	161
 참고문헌	 162
〈부록〉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189
 ABSTRACT	 209

표 목 차

〈표Ⅱ-1〉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별 현황	10
〈표Ⅱ-2〉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1
〈표Ⅱ-3〉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12
〈표Ⅱ-4〉 다문화정책 모형의 특징 비교	14
〈표Ⅱ-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연인원 이용 현황	16
〈표Ⅱ-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17
〈표Ⅱ-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지원보조금 현황	19
〈표Ⅱ-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현황	20
〈표Ⅱ-9〉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27
〈표Ⅱ-10〉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	47
〈표Ⅱ-11〉 사회적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60
〈표Ⅱ-12〉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79
〈표Ⅲ-1〉 구성변수 및 측정지표	86
〈표Ⅲ-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가구	89
〈표Ⅳ-1〉 응답자의 개인적(인구학적) 특성	91
〈표Ⅳ-2〉 어려움을 의논하는 사람	93
〈표Ⅳ-3〉 일자리 관련 의논하는 사람	95
〈표Ⅳ-4〉 여가나 취미를 같이할 사람	97
〈표Ⅳ-5〉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99
〈표Ⅳ-6〉 사회적 네트워크 일반적 특성	100
〈표Ⅳ-7〉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101
〈표Ⅳ-8〉 모국인 친구 모임	104
〈표Ⅳ-9〉 지역 주민 모임	106
〈표Ⅳ-10〉 종교 활동	108
〈표Ⅳ-11〉 민간단체 활동	110

〈표Ⅳ-12〉 사회적 참여와 일반적 특성	111
〈표Ⅳ-1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참여	112
〈표Ⅳ-14〉 경제 활동 참여	114
〈표Ⅳ-15〉 정당, 노동조합 참여	116
〈표Ⅳ-16〉 삶의 만족도	118
〈표Ⅳ-17〉 사회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120
〈표Ⅳ-18〉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적응	121
〈표Ⅳ-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124
〈표Ⅳ-20〉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126
〈표Ⅳ-21〉 다누리 콜센터 이용	128
〈표Ⅳ-22〉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용	130
〈표Ⅳ-23〉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용	132
〈표Ⅳ-24〉 고용센터 이용	134
〈표Ⅳ-25〉 사회복지관 이용	136
〈표Ⅳ-26〉 정책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137
〈표Ⅳ-27〉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정책적 적응	138
〈표Ⅳ-28〉 배우자와의 만족도	140
〈표Ⅳ-29〉 가정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142
〈표Ⅳ-30〉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가정적 적응	143
〈표Ⅳ-31〉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분석	144
〈표Ⅳ-32〉 경제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	145
〈표Ⅳ-33〉 정치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분석	145
〈표Ⅳ-34〉 정치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	146
〈표Ⅳ-35〉 사회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146
〈표Ⅳ-36〉 정책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147
〈표Ⅳ-37〉 가정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148

그림 목 차

[그림Ⅱ-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8
[그림Ⅱ-2]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9
[그림Ⅱ-3]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별 분포도	13
[그림Ⅲ-1] 분석틀	82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세계화와 국가 간 경제의 불균형 등으로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재의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수교(1992년)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족 동포의 활발해진 모국방문으로 인하여 취업과 결혼을 통한 국내로의 거주 및 이주하게 되는 조선족 동포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또한 3D 업종의 국내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이 늘어나는 현상과 마주하여 아시아인의 국내 이주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일본과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종교단체에 의해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으며, 한중수교(1992년) 이후 농촌의 총각과 중국여성 및 조선족 교포 여성 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저학력이나 저소득층의 한국인 남성이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 저조했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1995년 약 10,000건을 넘긴 이후 대한민국을 찾아온 IMF사태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9년 5,775건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남성의 외국인여성 국제결혼은 2013년 18,307건, 2014년 16,152건, 2015년 14,677건으로 2015년 전체 결혼의 약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1.7%), 중국(31.0%) 일본(7.0%)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주민들은 주로 생계나 빈곤탈출을 위해 모국보다는 경제상황이 나은 타국에서 경제활동 또는 국제결혼을 선택하여 이주한다(김민정, 2014).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동안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고, 또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으로 정부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 또는 교육 및 서비스 등에 참여하여 가정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만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소외,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습부진, 사회적 편견, 가정폭력과 불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을 한국사회 내 복지의 수혜자 또는 동화의 대상자로 고정화하여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으로 더욱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구차순, 2007; 유정숙, 2012; 최금해, 2006).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은 더욱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기에는 국제결혼이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들어 도시지역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하여 2005년도 국제결혼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임혁·남일재, 2014). 2007년도 국제결혼 29,149건 중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국제결혼은 13,947건으로 전체의 47.86%를 차지한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지역과 타자화로 대변되는 도시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재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집합체이며, 또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울타리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또한 사회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Raider & Burt, 1996). 그리고 물질자본이 기술과 능력의 변화를 초래했듯이 사회자본도 사람들 간의 연결

된 관계를 통해 개인과 조직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용이하게 할 때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한다(Coleman, 1990). 결국 사람들 간의 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조직에 이익이나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참여 활동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또한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참여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주의 시대에서 전혀 다른 국가에 이주한 외국인들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이며, 이주한 사회에 법률과 정책 등의 적응 및 사회적 관습, 종교 등 문화적인 방면에서도 배제와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로 이주한 여성은 같은 조건을 가진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황미혜, 2014).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자아존중감과 자아인식의 변화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한 소속감 강화로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이들은 외국인이며, 여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로서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려는 목적으로 왔으며, 현재의 생활환경도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행정·복지·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의 발전·안정의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증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 구조로써 융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즉,

새로운 구성원들의 사회 적응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써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즉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인적관계와 사회활동 등을 통해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을 말하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사회활동 및 자조집단의 참여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응의 핵심적 개념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하위체계로 사회 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 정치, 사회, 정책, 가정적으로 적응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및 사회적응 등으로 분류하여 이민정책과 실태에 관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에 이주한 이주민들 중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여성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해외 국적의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대한민국 영토 내로 삶의 기반을 옮겨 이주해 들어 온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기간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사회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¹⁾의 자료를 분석하

1) 조 사 명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고자 한다.

조사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일반특성과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본추출의 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등록자료를 보완하여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3,487개의 읍면동에서 278,294가구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른 표본추출방법은 이중추출법이며 1단계 집락계통추출, 2단계 층화계통추출을 하였다. 층화는 28개 층으로 동읍면부, 14개 국적층이다.

추출의 단위는 읍면동을 1단계로 하고 다문화 대상 가구를 2단계로 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1,045개 읍면동에서 27,120가구이다. 1차 추출 규모는 전국 3,487개 행정동의 약 30%인 1,045개 읍면동이며, 2차 추출 규모는 응답완료 약 16,000 가구를 목표로 2012년 조사 결과의 응답률을 고려한 27,120 가구 내외 오버샘플링, 표본 대체없이 최소 59%의 응답률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 유효 표본수는 약 16,000가구로 설정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가구수는 27,120가구 중 65.8%인 17,849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사표는 표본 가구 수 27,120가구 중 63.1%인 17,109명의 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관한 실태 전반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참여 활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넷째, 사회적 적응에 대해서 경제적 적응, 정치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책적 적응, 가정적 적응 등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한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및 사회적응 등으로 분류하여 이민정책과 실태에 관한 관계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 맞도록 적합한 변수들을 추출한 후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도출 하고자 한다.

조사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Ⅱ. 이론적 배경

2.1 여성결혼이민자의 제도적 고찰

2.1.1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회주의 퇴보와 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해 찾아온 급격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는 한중수교(1992년)이후 한국인과 국제결혼의 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한족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 하였으며, 필리핀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측의 국제중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영어권이므로 2세의 영어교육에 유리하고, 모계사회에서 자란 필리핀여성들은 농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리핀 여성을 선호하게 하였다(안현정, 2003).

최근 급증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의 원인과 배경은 국제결혼대상으로 대만 남성의 한국 남성으로의 대체,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지역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 베트남 내 한류현상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과 호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혈연공동체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 사회는 다민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

도희 외, 2007).

이는 많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음을 말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 관한 조사를 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정보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활동의 참여 부족,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기선·한지은, 2009).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정책 모형 중에서 ‘차별배제모형’이라는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여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융화 및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서로 우열을 가려, 다른 문화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이 없다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의 사회와 한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기반은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한 행정 당국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펼쳐 주어야 할 것이다.

2.1.2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대한민국사회에 체류중인 외국인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한국사회의 기피업종인 3D 업종에 종사해 오고 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에 발간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7년 10월호)’에 따르면 2017년 10월 31일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주민은 2,135,049명으로 2007년 1,066,273명 대비 10년 사이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외국인의 증감추이는 [그림Ⅱ-1]과 같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2007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1,066,273명) 대비 2012년(1,445,103명)으로 35.5%증가하였고, 2012년(1,445,103명) 대비 2017년 10월(2,135,049명)으로 47.7%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8.5%씩 증가하였다.

통계청 추계로 2021년에는 약 300만명이 넘어 설 것으로 예측했고, 2021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156만명으로 늘어 날 것을 예측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체류 비중이 5.8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5.7%를 넘어 설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림Ⅱ-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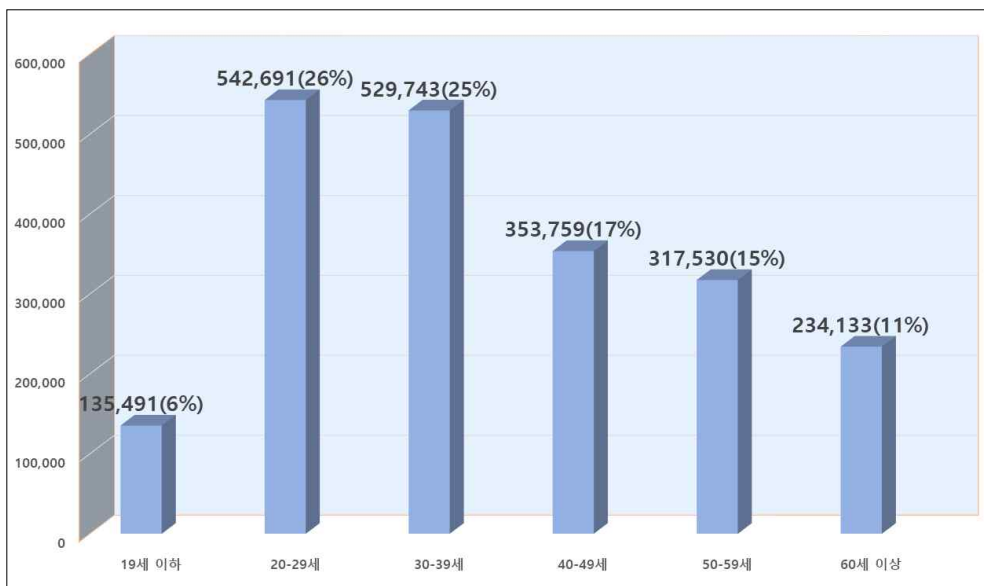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7.10)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 비중은 [그림Ⅱ-2]와 같이 ‘20-29세’가 542,691명 (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39세’가 529,743명(25%)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0-49세’는 353,759명(17%), ‘50-59세’는 317,530명(15%), ‘60세 이상’은 234,133명(11%), ‘19세 이하’는 135,491명(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20세부터 39세’ 사이가 국내 체류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Ⅱ-2]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단위 : 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7.10)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17년 10월 현재 중국이 47.4%(1,011,237명)로 절반가까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78,113명 대비 약3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Ⅱ-1>과 같이 베트남(778,113명)은 2013년 대비 166,956명으로 39%증가 하였으며, 필리핀(47,514명)은 2013년 대비 51,208명으로 28.8% 증가하였다.

〈표Ⅱ-1〉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년10월
중국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1,011,237
베트남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6,956
필리핀	47,514	53,538	54,977	56,980	61,208
일본	56,081	49,152	47,909	51,297	41,977
캄보디아	31,986	38,395	43,209	45,832	47,269
태국	55,110	94,314	93,348	100,860	124,657
미국	134,711	136,663	138,660	140,222	152,343
기타	352,450	396,929	428,787	488,259	529,402
합계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35,049

자료: 통계청, 2017년 10월 인구동태통계연보.

전체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Ⅱ-2〉와 같다. 2016년 총 결혼건수 281,635건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14,822건으로써 전체 결혼건수 중 5.26%(통계청, 2016 국제결혼현황)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결혼(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의 총 건수는 186,439건 으로 총 결혼 건수의 6.58%에 달한다. 2008년 그 비율이 8.59%로 가장 높았고, 2008년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다시 소폭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한국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누적 인원 증가로, 기존에 부각되지 않고 있었던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 통합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

의 이주는 같은 세대들의 동시대적 통합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통합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통합은 더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표Ⅱ-2〉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여성결혼이민자)	
		결혼건수	구성비율
2008년	327,715	28,163	8.59%
2009년	309,759	25,142	8.12%
2010년	326,104	26,274	8.06%
2011년	329,087	22,265	6.77%
2012년	327,073	20,637	6.31%
2013년	322,807	18,307	5.67%
2014년	305,507	16,152	5.29%
2015년	302,828	14,677	4.85%
2016년	281,635	14,822	5.26%
합계	2,832,515	186,439	6.58%

자료: 통계청, 2016 인구동태통계연보.

여성결혼 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표Ⅱ-3〉과 같이 2008년에는 중국 13,203명, 베트남 8,282명, 필리핀 1,857명 일본 1,162명, 캄보디아 659명, 태국 633명, 미국 34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2.8%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출신 국적의 비율은 2009년, 80.5%, 2010년, 80.5%, 2011년, 77.5%, 2012년, 76.7%, 2013년, 73.8%, 2014년, 70.3%, 2015년, 69.5%, 2016년, 70.4%로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70%~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의 한국인 남성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 다시 말해 경제력이 미약한 아시아권 국가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Ⅱ-3〉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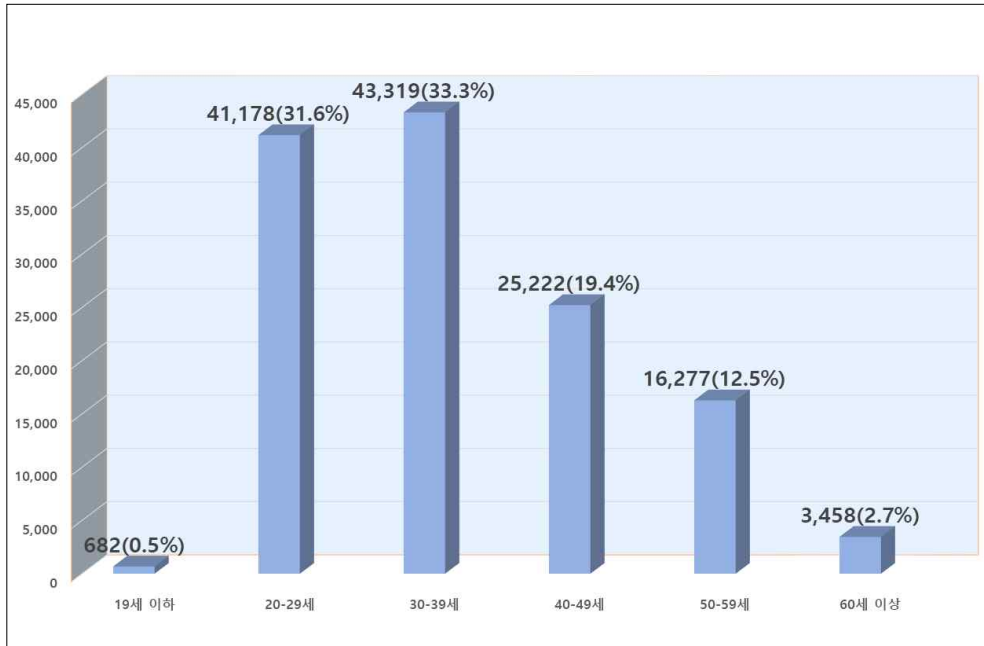
국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	13,203	11,364	9,623	7,549	7,036	6,058	5,485	4,545	4,198
베트남	8,282	7,249	9,623	7,636	6,586	5,770	4,743	4,651	5,377
필리핀	1,857	1,643	1,906	2,072	2,216	1,692	1,130	1,006	864
일본	1,162	1,140	1,193	1,124	1,309	1,218	1,345	1,030	838
캄보디아	659	841	1,205	961	525	735	564	524	466
태국	633	496	438	354	323	291	439	543	720
미국	344	416	428	507	526	637	636	577	570
기타	2,023	1,993	1,858	2,062	2,116	1,906	1,810	1,801	1,789
합계	28,163	25,142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자료: 통계청, 2016 인구동태통계연보.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별 비중은 [그림Ⅱ-3]과 같이 ‘30-39세’가 43,319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29세’가 41,178명(3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0-49세’는 25,222명(19.4%), ‘50-59세’는 16,277명(12.5%), ‘60세 이상’은 3,458명(2.7%), ‘19세 이하’는 682명(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20세부터 39세’ 사이가 국내 체류외국인의 절반 이상인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별 분포도

(단위 : 명)



자료: 통계청, 2016 인구총조사.

2.1.3 다문화 지원정책의 변화

다문화 정책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세계화 시대의 적응속에 상호존중과 관용의 개방적 태도의 견지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시민 사회 정립을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정의 할 수 있다(김행열, 2013).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다문화정책 모형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II-4>와 같다.

〈표Ⅱ-4〉 다문화정책 모형의 특징 비교

구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
경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 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함.	자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 내국인과 평등하게 처우하려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 적극적 조치등 우대 조치를 마련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의 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존중과 관용
법적수단	단속 및 추방	비차별의 제도화	제반권리의 허용
국적부여원칙	숙민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사례국가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비판	현대사회에 부적합	이주민 동화 곤란 및 현실적 사회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초래 가능성

자료: 정복동(2016)에서 재구성.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다문화가 기존의 국내문화에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가져왔고 외국인은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국내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기대하였다.

문민정부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한국 사회와 문화로 통합하고자 하는 수용정책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배제정책의 성격이 강했으며 결과적

으로 외국인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정책은 전문적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한 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였고, 이들의 정착화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모형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였다(김행열, 2013).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한 혼인의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관련 법안의 취지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또한 이주여성을 배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방적인 교화와 동화의 대상으로 적응시키려는 편협적인 성향을 보였다(박상원, 2016).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시행된 다문화정책의 프로그램들은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언어 및 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을 설계하여 동화주의적인 정책의 성격을 보인다. 즉, 이 시기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외국인들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유지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 놓은 기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정책변화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최무현, 2011).

보통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출발점은 2006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와 여성가족부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소가 시·군·구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정복동, 2016).

이후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0년 5월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기본 방향을 마련, 2011년 3월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박상원, 2016).

이후 2011년 4월4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4월~11월 까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를 하였고, 이듬해인 2012년 1월~6월까지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마련 및 전문가등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나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정책실무위원회등을 거쳐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년~2017년)이 마련되었으며, 2016년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이 2013년 구성되어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진행하여 개선방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시범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2014년 10개소가 운영 되었으며, 2016년 현재 76개소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다(주 정,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2016).

〈표 II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연인원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센터수	38	80	100	159	200	200	211	211	211	211

연인원	277,926	615,802	734,131	1,234,670	1,621,243	1,656,333	1,678,886	1,667,293	1,693,931	1,729,738
센터평균 연인원	7,313	7,697	7,341	7,765	8,106	8,282	7,957	7,582	7,700	8,198

자료: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성과.

〈표Ⅱ-5〉의 내용을 보면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총 이용 연인원은 1,729,738명으로 나타나 10년 전인 2007년보다 약 522%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은 큰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Ⅱ-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수)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7	24	9	7	9	4	5	5	1	30	18	12	14	14	21	23	19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형)	가형	38	8	1	1	2	0	0	0	0	10	0	1	3	5	1	1	4	1
	나형	99	10	6	1	0	0	3	4	0	14	10	9	4	6	10	13	8	1
통합서비스운영기관 (확대형)	가형	19	3	0	0	3	2	0	0	0	3	2	0	1	3	0	2	0	0
	나형	55	3	2	5	4	2	2	1	1	3	2	2	6	0	9	7	6	0
지방비(통합센터2개소 포함)		6	0	0	0	0	0	0	0	0	0	4	0	0	0	1	0	1	0

자료: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2006년 전국에 21개소로 시작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7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는 217개소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정책 실행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표Ⅱ-6>와 같이 급속하게 전국 시·군·구에 개설되었다.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6)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2006년 4월 26일 법무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방안’마련,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7년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 추진 29개소, 한국어 방문교육은 농림부 농특기금 예산으로 시범사업 추진(30개소)하였고, 2008년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전국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였다.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9월시행)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2009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실시되었다. 2009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었다.

2011년 1월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범위를 확대(10월시행)하였고,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시켰다.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생활 서비스가 추진되었고, 2012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8월시행)되었다.

2013년 8월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어 2014년 3월 1일 한국어교육운영 지원체계 개편,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편방행방안’마련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행 되었고, 2014년 7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14년 10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및 자녀생활 서비

스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적용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영역 개편(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체계)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2015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이 전국으로 확대(센터 기본사업 포함)되었고, 2015년 12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으로 방문교육 비용 차등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표Ⅱ-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지원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독립형	가형	50,000	70,000	70,000	105,000	167,000	169,860	148,456	152,770	158,144
	나형				80,000	138,930	140,730	118,455	121,770	126,054
병합형				50,000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예산은 13,507백만원(국비)이며 지원방법은 지자체 경상보조, 국비(서울 30%, 지방 50%)지원이며 센터별 기본운영비(국비+지방비)는 가형 158,144천원, 나형 126,054천원이다. 센터 별도사업비, 거점센터 운영비는 국비 서울 50%, 지방 70% 지원이며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 사업비는 국비 100%이다.

위의 〈표Ⅱ-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보조금은 연도별로 가장 높은 2013년도 지원보조금 보다 적다. 2013년 이후 삭감되었으나 소폭으로 오르는 추세이다.

2.1.4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현황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²⁾을 2008년 제정·시행 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과 교육 및 학습, 학교 프로그램 등의 지원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Ⅱ-8>과 같다.

<표Ⅱ-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현황

구분		정책 현황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가족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 1366센터 설치·운영 등
	교육인적자원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개설 지원,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및 포레집단과 1대1 결연, 교원연수 강화 등
	정보통신부	정보화교육 실시, 온라인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공동추진
	보건복지부	국적 취득 전 우리국적 자녀 양육시 자활사업과 긴급지원 실시, 생활안내 책자 배부, 자녀 학습지원
	행정자치부	기본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의 전담기구·인력확보 지원
	법무부	해피스타트,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문화관광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고용노동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WIND)
지방자치단체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요리교육, 컴퓨터교육, 자녀교육, 부부교육, 상담교육, 취업교육, 취미교실 등 실시

자료: 이훈병(2015)에서 재구성.

2) 법률 제8937호,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8년 9월 22일 시행.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가족상담 및 교육으로써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이 있다. 둘째, 방문교육서비스로써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등이 있으며, 셋째, 한국어교육으로써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1~4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자녀 지원으로써 언어(한국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자녀성장지원사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통번역서비스, 멘토링, 자조모임, 나눔 봉사단 운영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보육시설)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상담을 통해 이들 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운영시간은 지역아동센터는 주5일, 1일 8시간 이상이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평일 : 15:00~22:00, 토요일 : 12:00~19:00, 수업 없는 토요일 : 09:00 ~14: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마다 상이함)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 : 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밤 10시 까지 운영이 되며, 학교 여건 및 돌봄 참여 학생 가정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된다.

법무부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수대상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프로그램 신청은 국제결혼으로 국내 최초 입국 후 3개월 이전에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출입국사무소와 출장소에 전화 또는 FAX로 신청가능하며 국내입국 후, 전화로 교육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

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련 업무의 교육과 기초생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며,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 일시는 매월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 14:00~(2시간)이며, 교육 장소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회의실 등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이 주어지며 그 내용은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부여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WIND - 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은 취업조건과 취업자본(학력, 경력)등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자와 시기가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결혼이민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성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자녀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음성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교육, 상담, 문화, 홍보, 특성화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실, 홈패션 교실, 바리스타 교실, 세계요리 교실, 천연비누 교실, 컴퓨터 교육, 운전 교육, 언어발달 교실, 나라별 공동체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조석주, 2014).

김포시청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지원사업으로는 생활요리, 부부상담,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또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http://www.gimpo.go.kr>).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언어차이·문화차이·인식차이 개선, 가족 상호간의 이해증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실, 다문화가족 상담, 문화 이해, 정보화사업(컴퓨터 수업), 자녀관련 사업(임신 육아부터 부모 상담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사업(인권의식개선, 다문화 이해, 인식개선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http://www.jinjuywca.or.kr>).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구에서는 기초교육분야와 특별교육분야로 구분하고 기초교육분야는 한국어교육, 자녀 및 가족통합교육, 특별교육 분야는 문화정서지원사업, 역량강화(정보화, 취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자녀지원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다(홍성화·김성숙, 2009).

2.1.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 2006년 전국에 21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 2017년 예산은 10,140,428,000원이며 각 자치구의 종사인원과 프로그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25개구의 평균은 405,563,000원이다.

2016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17개소이며 프로그램 총 이용 연인원은 1,729,738명으로 센터 평균 7,97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 및 교육으로써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이 있다. 둘째, 방문교육서비스로써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등이 있으며, 셋째, 한국어교육으로써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1~4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자녀 지원으로써 언어(한국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자녀성장지원사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통번역서비스, 멘토링,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운영 등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언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4년 시

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예산 지원액(국비+지방비)은 독립형 센터는 179,694,000원이며 다기능화 센터는 92,000,000원으로써 국비지원 비율은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지방: 국비 50%, 지방비 50% 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51개소이며 프로그램 총 이용 연인원은 2,303,318명으로 센터 평균 15,25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가족은 물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일탈청소년가족, 군인가족, 수용자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보미 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의 돌봄지원사업, 취약가족과 위기가족을 위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가족지원사업, 기타 타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으로서 2006년 이주여성 긴급전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다누리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와 통합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 생활정보부터 부부 상담, 폭력피해 등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전국에 6개소가 있으며, 상담 및 긴급피난처는 월~금, 주간(9:00~18:00)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시간 상담전화는 서울로 착신되며 가까운 이주여성보호시설로 연계조치 된다. 2016년 총 상담건수는 124,401건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누리콜센터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종합생활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변호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및 온라인, 방문과 면접 상담을 제공한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센터는 종래의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2000년 이후 새로이 설치한 지역주민 서비스 기관이다. 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출생신고·사망신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일자리아산·장애인지원 등)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마다 상이하 며, 기본적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관장하지 않는다.

정부지원여성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의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를 총칭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으로서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며, 2017년 현재 전국에 1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지역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회관은 전국의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 및 교육시설로서 부녀복지관·부녀사업관 등으로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은 이미 6·25전쟁 중에 싹트기 시작하여, 1952년 2월에 한국사회복지협 의회가 설립, 인가되었다. 또 1955년 11월에는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 이후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3년 11월이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발달의 한 형태로 여성들 중 특히 불우하거나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지와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 여성회관이었다.

여성회관은 전국 각 시·도 부녀복지사업의 중요한 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대부분 정부나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부녀자에 대한 각종 상담, 여가선용 지도, 저소득 부녀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가정의례준칙 및 의식주 생활개선에 관한 계몽, 소비자보호운동 전개, 예

식장·식당·숙박시설 등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불우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발전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청년, 중고령자, 취업취약계층에게 전문직업 훈련, 취·창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창업지원 전문기관이다.

고용센터는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구인·구직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동행면접,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 복지를 말한다.

1921년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2016년 현재는 430개소가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규모나 사업내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으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이 있다.

〈표Ⅱ-9〉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학 자	내 용
안현정 2003	2세 교육에 대한 영어권의 필리핀 여성의 선호.
김도희 2009	혈연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는 다민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한계의 문제.
정기선·한지은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정보로부터 소외 등의 문제.
홍성희·김성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지원을위한 교육분야는 기초교육분야와 특별교육분야로 나뉜다.
최무현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문화 정책이 마련됨.
김행열 2013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시민사회 정립을 위한 일련의 정책 필요.
박상원 2016	이주여성을 교화와 동화의 대상으로 적응시키려는 편협적인 성향의 문제.
정복동 2016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2 사회적 네트워크

2.2.1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사회(social)’즉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와 ‘네트워크(network)’즉 망이란 의미를 조합하여 ‘사람들이 연결되어있는 관계망’으로 표현할 수 있다(손동원, 2005).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의 흐름’으로(Jones et al., 1997), 네트워크를 개인 간의 관계로 보고, ‘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패턴’으로 정의하였다(Seibert, 200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노드(node)들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의 부족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결’로 정의하였다(Brass et al., 2004). ‘관리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력, 사회적 지원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직무관련 접촉(contact)’으로 네트워크를 정의하기도 하였다(Ibarra, 1995).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개념은 ‘상호간 제휴’, ‘조정’, ‘협동’, ‘연대’, ‘협력’, ‘관계’, ‘연계’, ‘동맹’, ‘서비스 통합’등을 포함한다(손광훈, 1998). 즉, 네트워크란 일정수의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유태균·김자옥, 2001).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을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목적 및 대상범위, 그리고 교환방법과 내용의 측면으로 나뉘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목적으로 정의를 한 경우, 네트워크는 ‘두개 이상의 조직들의 공동의 이익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통상의 관심사의 달성’(Kotaoka, 1995)과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공동의 조직목표달성’으로 정의한다(Van de Ven & Ferry, 1992; Lipnack, 1998; Kwait, 1998). 이 외에도 네트워크의 목적은 ‘자원획득, 특정사업 및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자체의 이익’(Kwait, 1998; Miles & Snow, 1978)과 ‘변화’(Khagram et al., 2002;

Higgott, 2000)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네트워크의 대상범위로 개념을 정의 한 경우에는 ‘여러 관계의 연결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Aldrich, 1977; Barnes, 1979; Mitchell, 1969; Kotaoka, 1995; Kwait, 1998).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의 개인들 간의 연결(Barnes, 1979)’과 ‘조직과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Mitchell, 1969)’으로 확산 시킨 개념으로도 정의된다.

셋째, 네트워크의 교환방법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달성방법을 공유하고 수용하거나’, ‘조정, 협동, 연계, 연대를 통하여 이전, 교환, 개발’하는 것으로 본다(Mitchell, 1969; Kotaoka, 1995).

넷째 네트워크의 내용으로는 ‘이슈들에 대한 가치공유, 일상적 토론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의 친밀한 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재환, 2004).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가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연계장치와 정보채널의 기능. 둘째, 참여지지체계와 자원공유기능. 셋째, 조정, 협력, 협의, 프로그램 실현화, 능력건설, 훈련을 위한 수단의 기능. 넷째, 집합적 행동을 위한 수단의 기능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Dosher, 1977).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된 사회체계로서의 각각 공동의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익 또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품, 자원, 정보와 서비스의 친밀한 교환·연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주민과 관련된 네트워크로는 모국과 이주국을 연결해 주는 이민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이민 사업’이 점차 발달함과 동시에 이주민들 스스로가 조직한 민족적이고 자국적 네트워크인 이주민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제 이주형태를 가져왔으며, 이는 행위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역할, 다시 말해 이주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 차원에서 볼 때, 가족 및 친척에 기반을 둔 경제적 거래는 강하고 밀접하게 통합된 이주민과 연계하면서 더욱 안정되며 신용을 기반으로 둔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가족, 친족 혹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인종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본과 신용의 흐름을 더욱 자유롭게 해준다(이소영, 2013).

화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이주민이 갖는 이

동과 귀속의 복합성으로 인해 근원보다는 경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들은 점차 공동성이나 공적 공간을 더 의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형성한다(임채완·전형권, 2006).

Manuel Castells은 21세기를 네트워크 사회로 정의하면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따라 누구나 이러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생존하고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 구성부분은 관계체계로부터 자율적인 동시에 종속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은 오늘날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기술은 새로운 사회형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확실히 존재하던 것들을 강화시키고, 광범위한 공간에 걸쳐있는 밀집되고 고도로 활동적인 네트워크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변형시키고 있다(김묵한 외, 2003).

이주민들이 어느 곳에 정착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이주민 네트워크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는 이주민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취업에서의 조력으로, 선행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민 집단들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더라도 결국 합쳐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분산되어 있던 난민집단이 민족 집단이나 커뮤니티 연합이 있는 대도시로 모이는 것과 유사하다(김보영, 2004). 이주민은 개인 또는 집단이라도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은 시작된다.

어느 국가든 이주민들이 일정한 수를 넘어서면 이주민 네트워크, 즉 이주민, 선행 이주민, 그리고 본국 및 이민국의 비이주민을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 간의 대인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이주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것은 이주비용과 이주위험을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이들 간 이주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로써 처음에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졌던 이주가 점차 ‘연쇄이주’현상을 낳고, 애당초 이주를 감행한 개인들이 집단 전체의 후속이주를 구성하는 새로운 구조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전형권, 2008). 특정 지역출신 이주민들의 네트워크가 잘 확립되어 있을수록, 이는 인구이동을 증가시키는 현저한 동력의 하

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와 가족들로서, 이들을 직업의 기회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도착 후 이주민들에 대한 피난처와 고용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이소영 2013).

특히 같은 나라 출신국 사람들로 형성된 이주민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데, 숙식 제공, 피난처 제공, 구직과 취업, 지리적 군집, 특정 고용시장 배치 등을 돕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친구나 친척, 동포가 자신을 돕고 환영해주는 곳을 이주대상국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행 이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틈새 커뮤니티나 다국적 연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형권, 2008).

Taylor는 이주민의 가족네트워크가 이주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에서 직업을 찾고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주민에게 가족, 친족 네트워크는 거주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Charles Taylor, 1992).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노동자로서 일하는 직장, 결혼한 주부로서 가정 등 공적인 공간에서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 즉 이주한 사회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등 그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이소영 2013).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연대를 통한커뮤니티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목소리를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거주국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것이다(쓰지모토 도시코, 2006).

이상의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된 사회체계로서의 각각 공동의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익 또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품, 자원, 정보와 서비스의 친밀한 교환·연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가치와, 정보, 서비스의 친밀한 교환 등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2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간은 조직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생활과 조직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네트워크는 1930년대 사회학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또는 연결 등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사회과학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박용관, 1997). 더욱이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론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로 개인들의 행태를 분석하거나, 소집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시각은 행정학자나 조직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간 관계, 조직간 관계, 정책 네트워크, 조직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개념적 정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집합체이며, 또한 기업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핵심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직 내·외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김은실, 2012).

또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조직도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Raider & Burt, 1996). 또한 물질자본이 기술과 능력의 변화를 초래했듯이 사회자본도 사람들 간의 연결된 관계를 통해 개인과 조직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용이하게 할 때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한다(Coleman, 1990).

이러한 개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는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호간에 발생하는 작용의 패턴 및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각각의 개인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관계로서 정의 내릴 수 있다.

사회학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한 인간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즉, 인간관계의 구조와 행위의 상호역동

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보다 복잡해 보이는 또 다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패턴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사람들 상호간의 특정한 연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연계에 포함되어있는 상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에 대한 방법은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국의 디아스포라³⁾로, 이민국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모국과 이민국 사회의 사이에서 정체성, 사회적 연결망 등의 관계성을 개발 및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시킬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들의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가족 및 모국의 친구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국의 특성을 반영한 일종의 민족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네트워크와 민족문화네트워크는 한국사회에 다문화사회의 특징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이용균, 2007).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등을 친정가족, 친구들과 같은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또한 동향인, 동료,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을 통해 민족문화를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이소영, 2014).

3) [Diaspora]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자료 : 두산백과).

2.2.3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론은 크게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이론’과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론’ 그리고 ‘조직간 네트워크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김준기, 2006). 첫째,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은 조직간 거래의 조정방식과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Gerlach & Lincoln, 1992; Jones, 1996). 조직 간의 조정이나 협력의 형태와 거래관계 등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관료제 및 시장방식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제3의 형태이다(박석희 외, 2004).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교환이나 관계의 상호작용 유형”과 “독립된 조직들 간의 자원 흐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상호작용의 유형을 강조하는 경우, 교환의 수평적 유형(Powell, 1990)과 상호의존성을 야기하는 장기적 교환(Larson, 1992), 조직간 비공식적 협력(Kreiner & Schultz, 1993)등이 부각 된다. 또한, 개인·그룹간 유형화된 관계(Dubini & Aldrich, 1991), 시장간 전략적·장기적 관계(Gerlach, & Lincoln 1992), 중개수준의 구속력이 있는 기업집합(Granovetter, 1973)등이 강조된다. 반면 두 번째 자원의 흐름을 강조하는 경우 법적으로 독립된 단위조직들로 구성된 비계층적 조직집합들간 자원의 흐름에 주목하게 된다(박석희 외, 2004).

둘째,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유형을 탐색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조직 또는 그룹을 형성하는 최소 단위인 구성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신뢰할 만한 행동규범에 따라 유지되는 개인들 간 교환관계의 집합체”로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된 사회적 네트워크이론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상정하고 있는 조직 간 관계이론에서의 네트워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김준기, 2006).

Freeman(2004)과 Burkhardt & Brass(1990)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구는 조직 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특히 구성원들 간의 권력관계의 양상 및 권력구조를 연구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성 개념과 권력의 연관성이 강조됨으로써, 네트워크

중심성의 하위개념인 네트워크의 정도와 긴밀성, 매개성 등을 측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김준기, 2006).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구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상호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나 분류에 따라 네트워크의 유형을 세분화 하였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Tichy, Tushman과 Formbrun(1979)은 정보, 재화, 서비스, 상호적 친밀감에 따라 업무적 네트워크(workflow network), 친밀감 네트워크(friendship network), 의사소통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Hard castle(2004)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람, 집단, 조직 또는 사회적 단위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환에 개입하고 상호 행동하는 사회적 배열로 보았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결합과 응집을 위하여 사회적 인간적 상호행동을 추구한다(행정자치부·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역 내 개인이나 조직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지체계로도 볼 수 있다. 즉 지역 안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집단 조직들 간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집단 조직들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단순히 행동을 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역량강화는 집단적, 개인적 행동을 필요로 하고, 집단적·개인적 행동을 통한 능력의 고양은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행정자치부·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셋째, 조직간 네트워크이론은 1960-7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조직간 관계이론이다.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 의존성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별 조직이 취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조직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본다(Klijin et al., 1995).

즉 각각의 조직들은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조직과 관계를 갖게 되며,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자원 교환은 조직들 간에 자발적 및 협조적으로 일어나며, 조직 상호간의 작용이 쌍방 간에 이루어진다. 권력을 지닌 조직은 다른 조직의 가치 있는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의존관계를 형성한다(Levine & White, 1961).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은 ‘기관 상호간 제휴’, ‘조정’, ‘협동’, ‘연대’, ‘협력’, ‘관계’, ‘연계’, ‘동맹’, ‘서비스 통합’ 등을 포함한다(손광훈, 1998; 최유미, 2008).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란 일정수의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문조, 1987; 유태균·김자옥, 2001; 최유미, 2008).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을 목적, 대상범위, 교환방법 그리고 내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목적으로 정의한 경우,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조직들의 공동의 이익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통상의 관심사의 달성(Kotaoka, 1995; 최유미, 2008)’과 ‘문제해결 등과 같은 공동의 조직목표 달성’으로 정의한다(Van de Ven & Ferry 1992; Lipnack, 1995; Kwait, 1998; 최유미, 2008). 이 외에도 네트워크의 목적은 ‘자원획득, 특정사업 및 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관자체의 이익(Kawait, 1998; Miles & Snow, 1978; 최유미, 2008)’과 ‘변화(Khagram et al., 2003; Higgott, 2000; 최유미, 2008)’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대상범위로 개념을 정의한 경우에는 ‘여러 관계의 연결체(Aldrich, 1977; Barnes, 1979; Mitchell, 1969; Kotaoka, 1995; Kwait, 1998; 최유미, 2008)’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조직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속의 개인들 간의 연결(Barnes, 1979; 최유미, 2008)’과 ‘조직과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Mitchell, 1969; 최유미, 2008)’으로 확산시킨 개념으로도 정의된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교환방법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목표달성 방법을 공유하고 수용하거나(Lipnack, 1998; 최유미, 2008)’, ‘조정, 협동, 연계, 연대를 통하여 이전, 교환, 개발하는 것(Mitchell, 1969; Kotaoka, 1995; 최유미, 2008)’으로 본다.

넷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내용으로는 ‘이슈들에 대한 가치공유, 일상적 토론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의 친밀한 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ikkink,

1998; 김재환, 2004; 최유미, 2008).

이상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과 정의를 종합해보면, 네트워크는 독립된 사회체계로서의 기관이 공동의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기관의 이익이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품과 자원 및 정보를 교환·연계하는 것이다. 즉,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연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4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주는 효과와 가치는 네트워크의 효과로 정보, 영향력, 사회적 신분,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 할 수 있다(Lin, 2001).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호적인 네트워크의 정보흐름과 방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상의 의사결정권자는 개인의 승진, 선발, 자원의 배분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사회적 신분의 보장 및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한 인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곧 특정한 자원으로의 관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특정한 인사와의 관계성 자체가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권리를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통적 자원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은 특정 자원에 대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감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정보, 통제, 결속 감을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

크로 맺어진 사람들 간의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 결속 감을 만들 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Sandefur & Laumann,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정 보접근, 교섭력, 경력기회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접근은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섭력은 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자 원과 결과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경력기회는 사회 네트워크로 얻게 되는 더 넓은 시야를 통해 사회 시스템 내에 있는 경력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Burt, 1992).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는 정보획득효과와 지원효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먼저 정보획득효과란 네트워크라는 관계망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며, 이 효과에는 정보탐색의 비용절감효과와 정보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 두 측면이 존재한다(손동원, 2005).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한 정보는 얻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며,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의 질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 효과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조언 및 충고 등의 효과를 말하며, 한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으면 이러한 지원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네트 워크로 부터 오는 효과는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 간 관계의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손동원, 2005). 선행연구에서는 관계의 조건으로 관계의 강도, 연 결밀도, 구조적 틈새(Burt, 1992)등을 제시하고 있다.

2.2.5 선행연구

이주는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이다. 특히, 이주와 함께 기존 에 형성, 발달시켜 왔던 사회적 관계망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전면적으로 재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사회

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이주자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발전 뿐 아니라 전반적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성훈, 200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있어서의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 이주민들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를 개인 또는 가정에 한정된 문제로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고려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또한 여성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생활이나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박미정·엄명용, 2009; 김현숙 외, 2011; 김경미, 2012).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안녕과 건강,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원으로써 살아가야하는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서 관련 정책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을 위한 노력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기관의 존재나 이들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이선 외, 2011).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요인과 단체참여 수준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통학 또는 통근 접근성,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 존재여부가 모두 단체참여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반면, 활동제약이 있을 경우 단체참여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진석, 2013). 또한 네트워크와 교육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소영, 2013)도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도 외로움과 소외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

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엄명용, 1999).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라 정의하였으며, 또한 일련의 관계에 의해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체이다(홍성만, 2006).

김민정·김성국(2004)은 강한 유대관계와 유사성이 네트워크의 효과를 높이고, 네트워크의 확장은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요인들인 경제활동, 접근성, 활동제약, 교육수준, 배우자 연령 등 모두 사회적 자본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령에 관한 연구에서 20~30대가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소영, 2013)로 보아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대에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고령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관계적 본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트워크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서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관계본질의 네 가지 기본 유형은 중요도, 빈도, 형식화, 표준화가 있고, 그에 따라 중요도는 관계의 중요성, 빈도는 반복되는 관계의 비율, 형식화는 공식적인 인정, 표준화는 교환의 절차와 단위를 정의한다(유태균·김자옥, 2001).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행위자들 사이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숨겨진 다양한 관계유형을 찾아내어 특정한 관계유형이 나타난 이유나 행위자의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을 분석한다(Freeman, 2004; Wasserman & Faust, 1994). 네트워크 분석의 선형적 연구는 Moreno, Heider, Bavelas, Festinger, Cartwright, Newcomb와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문정수, 2010).

특히, Moreno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창시자로서 행위자간 관계를 수리적으로 측정하여 양적 분석하는 소시오메트리(sociometry)와 이차원 평면에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소시오그램(sociogram)을 고안하

였다. 그는 개인이 가진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보았으며,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관계를 점과 선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오늘날 네트워크 연결망 지도와 유사한 소시오그램이다(Freeman, 2004).

구조적 특성은 네트워크와 구성원들이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분석의 수준에 따라 개인 구성원 수준, 하위집단 수준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수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 구성원 수준에서의 측정 은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김창욱·윤영수·채승병, 2009). 이 수준에서의 주요한 특성은 연결정도, 거리, 중심성 등 있다. 연결의 정도는 하나의 하위그룹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거리는 두 구성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계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각각의 다른 관련된 구성원들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인간은 조직이나 개인으로서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상호적 작용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조직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사회 또는 조직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정기적이며, 유형화된 패턴(regular patterns)으로 발현될 때 조직 또는 사회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있는 행위자는 네트워크의 구조로부터 행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사회네트워크 구조는 다시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박치성, 2010).

현대사회는 다양한 여러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들은 또한 여러 하위체계들로 분화되어 있어 각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행위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행위자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황동현·서순탁, 2011).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자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공존하기 위한 특정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김병섭·김영래·서순탁, 2012).

사회단체의 참여활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시민과 시민규범의 사이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는데, 주관적 관계(subjective type of ties)와 객관적 관계(objective associations)라는 두 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먼저, 객관적 관계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써 자발적인 토대 위에서 공식적 관계 또는 비공식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주관적 관계는 개인들 사이의 신뢰나 호혜성의 감정이 각각의 개인 간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Coleman, 1990; Putnam et al., 1993, Putnam, 2001). 특히, 객관적 관계는 조직을 형성하는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김병록, 2011). 따라서 사회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단체참여는 이러한 사회자본 이론에 대해 객관적인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 내 네트워크는 새로운 가치나 체계를 학습하려는 동기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마주쳤을 때 사회적 자본 내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어떠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과 이후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Alder & Kwon, 2002).

사회적 자본 내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동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Moschetti & Hudley가 미국 북네바다주 지역의 지역대학에 재학중인 중산층의 백인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와의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 내 네트워크 특성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지역대학이 제공하는 일련의 학습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정보나 조언 및 감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이러한 정보, 조언, 감정적 지원을 통해 연구 대상자가 지역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Moschetti & Hudley, 2015).

Knipprath & De Rick이 1976년에 태어나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살고 있

는 성인을 대상으로 1,657명의 사회적 자본 내 네트워크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속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상자의 통제의 장소를 고려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성인학습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 내 네트워크의 속성은 성인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인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nipprath & De Rick, 2015).

한편, 경제활동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고용자를 둔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단체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인 및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단체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주체를 이루는 임금근로자의 단체참여에 관해서 사회적 가치 또는 조직전체의 가치보다는 경제활동 즉, 직장생활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개인 사생활의 희생이라는 다소 불만족요인이 단체참여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써 단체참여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다양한 유형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은 개인의 단체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설립하거나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할 때 개인별 특성요인들을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면밀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이진석, 2013).

네트워크의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치적 또는 비정치적 성격의 모든 사회단체 및 서비스 지향적 단체 등을 통한 공익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를 설명하고 있다(이선미, 2003).

이처럼 사회적 활동은 단체에 대한 참여의 의미가 강하며,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을 단체에 대한 참여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사회활동

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참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정책 및 행정, 각종 문화 및 사회단체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주체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동기로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나 수혜 단체(사회복지시설)를 위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등 사회적 활동의 의미는 광범위하다.

미시적 사회적 자본과 거시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보면 미시적 사회적 자본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직계 가족, 다른 이민자, 이웃, 교회 포함)과 거시적 사회적 자본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관은 영국 내 여성 이민자들의 지역 정착과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이주지역의 집단적 자원으로서 이주자에게 인지되어 구성원들이 이주자에게 신뢰감이 있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며,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지는가, 지역사회의 규범을 지키는가? 등도 이주자에게 인지되어 이주자의 지역사회 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Giusta & Kambhampati, 2006). 결과적으로 인지된 사회적 자본은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얻게 되는 일종의 자원이다. 이는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써 실제적인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주자에 의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본을 인지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이주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인지될 수 있으며,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이주자들은 새롭게 이주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자연적·인문적 환경에 대하여 천천히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신뢰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주자들은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고,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이용 또한 사용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사회의 활동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에서는 이주자인 당사자도 지역사회 생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이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주자는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이용이 덜 어렵게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 환경을 잘 보호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인지된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과의 친분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는 가족생활과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에 뿌리를 둔 친분과 혈연, 사회적 관계의 복합적인 체계이다(Kasarda & Janowitz, 1974; 서유영, 2013). 지역사회 내에서 개개인은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친분성 및 사회성을 형성한다.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혜적인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친절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지역사회주민과 이주자의 친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기본적인 신뢰가 서로에게 없으며, 또한 서로 경계하면서 산다면 결국은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교류도 없이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살게 돼버릴 것이다. 만약에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의 이웃주민들이 법과 규범을 잘 지키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느낀다면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기 어려운 법이며, 또한 이주민에게 인지된 사회적 자본은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킨다.

지역사회 애착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애착심과는 달리 일정한 공간적 영역 속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노윤구, 2006). 이러한 애착심은 개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심리적 유대감을 말한다. 질서도 없고 믿음도 없으며 주민들이 타인에 대한 눈길이나 관심조차 없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이 생길 것이다.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의 규범을 잘 따르고 지키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된다면, 그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과 그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김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지된 사회적 자본은 해당 지역사회의 일체성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의 일체성은 지역사회에 융합되어 일체가 되는 것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이며,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지역주민들은 공동의 즐거운 자연적·인문적 생활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서로 잘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고 이주자도 주민들처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에 융합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려는 감정과 신념은 이주자들이 이주지역에 잘 통합하게끔 한다(이혜영, 1997).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인지된 사회적 자본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주민과의 친분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키며 지역사회와의 일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Ⅱ-10〉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

학 자	내 용
Tushman & Formbrun 1979	업무적 네트워크, 친밀감 네트워크, 의사소통 네트워크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Ibarra 1995	직무관련 접촉(contact)'으로 네트워크를 정의.
Kotaoka 1995	네트워크의 교환방법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달성 방법을 공유하고 수용하거나', '조정, 협동, 연계, 연대를 통하여 이전, 교환, 개발하는 것으로 본다.
Raider & Burt 1996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다.
Jones et al. 1997	네트워크를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의 흐름으로 보았다.
손광훈 1998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개념은 '기관 상호간 제휴', '조정', '협동', '연대', '협력', '관계', '연계', '동맹', '서비스 통합'등을 포함 한다.
Lin 2001	네트워크의 효과로 정보, 영향력, 사회적 신분,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
Seibert 2001	네트워크를 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패턴으로 보았다.
유태균·김자옥 2001	네트워크란 일정수의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
Brass et al. 2004	네트워크를 노드(node)들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의 부족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결'로 정의하였다.
Hard castle 2004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호 행동하는 사회적 배열로 보았다.
손동원 2005	사회적 네트워크란 사람들이 연결되어있는 관계망으로 보았다.
최유미 2008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은 '기관 상호간제휴', '조정', '협동', '연대', '협력', '관계', '연계', '동맹', '서비스 통합' 등을 포함 한다.
김은실 2012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소영 2013	글로벌 네트워크는 가족, 친족 혹은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인종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본과 신용의 흐름을 더욱 자유롭게 해준다.

2.3 사회참여

2.3.1 사회참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 사회활동(social activity) 등의 용어와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사회참여를 한 인간이 개인의 삶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Palmore, 1981).

문화와 풍습의 차이, 언어장벽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 불안정한 저임금의 고용형태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참여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나영, 2007).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체참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정훈, 2010).

여성결혼이민자는 일시적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정착 이민자들이며 이들의 자녀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함께 책임져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여성들을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이나 복지수혜자로 보려는 시각은 배제되어야 한다(설동훈·윤홍식, 2008).

사회참여를 협의의 개념으로서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나아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참여,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박정은·원영애, 1994).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형태에는 경제활동, 정치활동, 종교활동, 지역학습활동,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참여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계약직이나 저임금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있고, 건강한 여성인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도 경제력을 갖추며, 사회적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서 한 가족구조 내의 어머니, 며느리, 배우자라는 신분적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 하지 않으며 한국사회의 지위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를 관계라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들의 직접적인 사회참여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 강점을 찾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감으로써 각자가 우리 사회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행위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2 사회참여의 중요성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자아존중감과 자아인식의 변화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한 소속감 강화로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인 것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와 구소련출신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습득능력이 향상 되고 구직에 성공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리더십 향상, 커뮤니티소속감 강화,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Itzhaky, 2003).

농촌지역 여성결혼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나 찾아가기”가 가장 핵심적인 범주의 결과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서 세상 밖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또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집에서 혼자 남게 되어 겪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아정체감의 굴레는 점차 줄어든 반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수단인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게 되었으며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인정을 받고 비전을 갖고 보람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형하, 2010).

사회참여가 다양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들로는 자아존중감(박봉규·조재완, 2004; Safrin & Lopez, 2001), 자기효능감(백인경, 2009; Cohen, 2009), 가정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정순돌·이은주, 2005; 양순미, 2010; Morrow-Howell, 2010), 이들 연구들도 사회참여 활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자아효능감을 높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와 멀리 타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의 차이 및 언어의 장벽,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등의 현실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사회적 참여는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들 여성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참여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참여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현황을 조사한 최근연구에서는 이들 여성들의 정치, 경제,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고, 지역주민 모임에의 참여 역시 매우 낮았으나(28.8%) 상대적으로 가족친척 모임(65.0%) 및 배우자의 가족친척모임(88.6%), 모국인 친구모임(64.4%), 학부모 모임(62.6%)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김승권, 2010).

만약 선행연구 결과들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은 세상 밖과 소통하고 세상속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감과 삶에 대한 활력을 찾게 해주고, 또한 집에서 혼자 남게 되어 겪던 고독 및 외로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아정체감의 굴레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인정을 받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와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이주의 역사가 차츰 길어짐에 따라서 초기의 적응기를 지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한국인과 소통하며 교류하고, 한국인과 함께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지도자 발굴과 리더의 양성 등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적 기반의 조성 and 시민주체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의 협조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3.3 사회참여의 유형

참여 방법은 직접적·간접적, 집단적·개인적, 능동적·수동적, 공식적·비공식적, 한정적·일반적, 형식적·실질적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참여의 방법 등에 의해 직접적 참여 또는 간접적 참여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참여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공간적 범위가 작고, 시민의 수가 한정된 경우에 효과적이다.

반면 간접참여는 지역단위가 크고, 대상주민의 수가 많아서 직접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의사를 각종 위원회나 대의기구와 같은 간접적 수단을 활용하여 반영 하는 방법이다(한원택, 1996).

사회참여 분야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참여 분야를 교육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NGO활동, 지역주민활동, 지역행사 참여

로 구분하기도 하였고(황정미 외, 2009), 정치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자조모임활동으로 나누기도 하였다(정명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분야를 사회적 행사참여, 직업적 역할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 사회조직 참여뿐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이형하, 2010). 또한 정치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으로 나누었다(김나영, 2007).

사회참여를 활동분야로 정의하여 분야별로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정치활동 분야에서는 정당의 활동이나, 선관위 활동 등의 참여를 말하며, 경제활동 분야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시간제 근무 등의 참여를, 지역사회활동 분야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말한다.

학습활동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에서의 교양강좌와 자격증 교육 및 어학학습 활동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 분야는 친목회, 취미활동 참여를, 그리고 종교 활동 분야는 종교의식 및 모임에의 참여 활동 등으로 볼 수 있다(김나영, 2007).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해 집에서 혼자 남게 되어 겪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아정체감의 굴레는 점차 줄어든 반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게 되었고,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이형하, 2010).

사회참여 경험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삶이 기쁘고 즐거웠으며, ‘나도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 확인은 물론 한국사회에서 그저 일방적인 도움만 받고 있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적 존재감을 획득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된 경험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봉사경험은 또한 취업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실제로 봉사경험을 통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정숙, 2012).

2.3.4 사회참여의 효과

사회참여의 효과에 따라, 참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참여와 참여가 형식화에 그치는 형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주민참여의 효과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의 운용과 주민들의 자세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른슈타인(Arnstein)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따른 분류로 주민참여를 1단계 주민조작(manipulation) 2단계 주민 임상 치료(therapy) 3단계 일방적 정보제공(information) 4단계 상담(consultation) 5단계 회유(placation) 6단계 공동의사결정(partnership) 7단계 권한위임(delegated power) 8단계 자주관리(citizen control)등의 8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참여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첫째, 일방적 참여수준은 시민참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참여를 의미하며, 정부나 혹은 시민 둘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수준이다. 시민참여의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이며,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소극적 상호참여수준은 협의적 또는 소극적 시민참여 수준의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주제를 설정하며 이에 대해 시민은 자신의 견해 또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 의견 참여, 정책토론, 공청회, 청원, 서신발송, 정부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매체의 이용 등이다.

셋째, 적극적 상호참여 수준은 광의적 또는 능동적인 시민참여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수준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과정과 내용을 선정하는데 적극적인 참

여와 정부의 협력적(partnership) 관계를 유지한다. 이 경우는 시민자문위원회, 규제협상,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 많은 장·단점들이 따르게 되는데 먼저 장점으로서 시민참여자는 정부의 정보습득과 정보의 학습 그리고 시민의 역량증진 등이 있으며 정부 측에서는 주민의 정보습득과 정보의 학습, 주민설득, 신뢰구축, 전략적 제휴 가능, 적대감해소, 결정의 정당성 확보 등이 있다.

단점으로서 시민참여자의 입장에서 시간소모와 결정이 상반되거나 무시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부측면에서는 비용과 시간소모, 시민의사 미반영시 정부에 대한 반발 가능,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 상실, 편향된 정책 결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조석주 외, 2006; 배일섭, 2007).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이 그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라면,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아른슈타인(Arnstein)이 말하는 주민통제의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오정석, 2003).

공공에 대한 시민참여는 정치학을 비롯해 행정학이나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요한 화두중의 하나로 논의가 되어 왔다. 먼저,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는 사회의 보통구성원인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승종, 1997) 또는 시민의 선호와 가치를 행정서비스에 반영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정책이나 행정활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윤주명, 2000; 이우권, 2001)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사회참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실태조사는 거의 없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이 자아개념형성이나 가정생활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조사된 바 있다(김나영, 2007; 양순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현황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여성들의 사회참여 방식은 첫째, 남편을 통해 남편 친구와의 모임, 남편이 형성한 국제결혼가족모임 등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경우, 둘째, 거주지 주변의 이웃과 친분을 통해 관계를 넓히는 경우, 셋째, 동향 출신 이주민 친구를 통

해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경우, 넷째, 각 지역의 이주민 지원 단체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감으로써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황정미 외,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에 직업 활동, 종교활동, 문화학습활동, 운동활동, 봉사활동, 사교활동, 정치활동 7가지 요인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원배, 2010). 사회활동을 경제생산성, 사회생산성, 건강생산성 3가지로 포함시키고 이들 모두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김상범, 2012), 사회활동을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그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바 있다(이정숙, 2010).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문화교양, 봉사활동, 소득사업추구형, 소일형을 사회참여에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강현옥, 2011), 사회활동에 직업 중심형, 종교 중심형, 경로당 중심형, 자원봉사 중심형의 활동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이소정,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대인접촉의 사회활동 유형, 생산 활동, 교육 및 지적 활동, 순수한 여가 활동 4가지의 유형으로 설명했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배정희, 2013).

2.3.5 선행연구

사회참여가 다양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로는 자아존중감(박봉규·조재완, 2004; Safrin & Lopez, 2001), 자기효능감(백인경, 2009; Cohen, 2009), 가정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정순돌·이은주, 2005; 양순미, 2010; Morrow-Howell, 2010), 이들 연구들도 사회참여 활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자아효능감을 높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유리와 김은경(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의 유형을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봉사활동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시민참여를 대표적인 사회활동으로 보아 각종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가 비정부단체(NGO), 비영리단체(NPO), 그리고 기타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상필, 2008). 이는 사회참여와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참여의 확대 방안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교육수준과 네트워크의 관계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학연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학연 중심의 일차적 신뢰는 사회 참여의 토대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이다(Veenstra & Lomas, 1999). 그리고 개인의 교육수준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참여 의지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mico et al., 2000; 이소정, 2009).

이처럼, 개인의 교육적 수준은 풍부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나 보다 다양한 관심과 연계되어 개인의 사회적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개인의 사회적 단체참여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참여에 의한 사회적 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에서는 동창모임, 종교단체, 시민단체, 취미모임, 향우회, 그리고 친목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단체참여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는 즉,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시민단체와 취미모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비중을 나타냄으로써 교육수준과 단체 참여의 높은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이나 자원봉사에 참여정도 및 참여욕구도 높아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정경희 등, 2005). 개인의 교육 수준은 초·중·고 및 대학 등의 학연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동창회, 동문회 등의 모임이나 모임을 통한 봉사활동, 세미나, 교육연수 등의 참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교육과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학연관계가 연고모임 및 교육단체 참여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박희봉 외, 2006).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자본의 개념에서 단체참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이숙중·유희정, 2010). 즉, 다양한 조직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상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즉,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단체 참여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단체참여와의 관련성 연구는 주로 소득의 수준과 사회 단체참여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수준과 사회 단체참여간의 관련성에서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체참여가 많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김혜경, 2004)와 소득수준과 단체참여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단체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용자, 1984; 김정아·이정우, 1990)가 각각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의 참여 여부와 사회 단체참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직업군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일수록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율이 높으며, 기타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참여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적 참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활동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업무의 종사형태에 따라 참여의 수준 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특정한 집단, 조직, 사

회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은 사회적 결속을 가져오는 혈연관계에서 일차적 신뢰가 형성되며, 이러한 일차적 신뢰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이차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iddens, 1990; 박희봉 외, 2006).

즉, 가족을 혈연관계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전제하였을 경우 결혼은 배우자와의 신뢰를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일차적 신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이차적 신뢰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각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정도가 상이하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존재여부와 사회적 활동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단체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며, 기혼자일 경우 사회적 단체참여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도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열망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업주부가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정현희·구혜령, 2003), 기혼자의 단체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우 단체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미혼일 경우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김혜경, 2004). 가족관계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가 연고모임 및 교육단체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련성이 나타남을 제시하였고,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개인의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박희봉 외, 2006).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단체참여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형성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참

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체참여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관련성을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 참여는 개인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남편과의 관계만족도나 가족간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윤인진, 2000)이며, 이주국에서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Berry, 1992), 결론적으로 이주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민 개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해 가고 그렇게 사회와 동화되어가는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지은, 2005).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점차 사회와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 적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Ⅱ-11〉 사회적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학 자	내 용
Palmore 1981	사회적 참여는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박정은·원영애 1994	사회참여를 협의의 개념으로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
Veenstra & Lomas 1999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학연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학연 중심의 일차적 신뢰는 사회참여의 토대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요인이 된다.
Damico et al. 2000	교육수준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참여 의지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zhaky 2003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습득능력이 향상 되고 구직에 성공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리더십 향상, 커뮤니티소속감 강화,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희봉 외 2006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개인의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나영 2007	문화와 풍습의 차이, 언어장벽 및 사회적 관계망 단절, 불안정한 저임금의 고용형태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참여의 원인임.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이나 복지수혜자로 보려는 시각은 배제되어야 한다.
황정미 외 2009	사회참여 분야를 교육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NGO활동, 지역주민활동, 지역행사 참여로 구분.
김정훈 2010	여성결혼이민자는 단체에 대하여 낮은 참여도를 보인다.
이형하 2010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서 세상 밖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또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다.

2.4 사회적응

2.4.1 사회적응의 개념

사회적응이란 사회적인 의미로서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조건이나 상황과 잘 어우러져가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응을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윤인진, 2000).

인간은 외적인 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내적인 자원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던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할 내적자원으로 인하여 잘 적응한다는(김미령, 2004) 연구결과가 있다.

라자루스(Lazarus, 1984)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때의 기능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보다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국경을 넘어선 국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이주과정은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왔다. 이주과정에서 여성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여성주의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Buijs, 1993).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주 전에 속해 있던 본국의 사회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이주국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사회문화적 역할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자아를 형성하는 사회적응과정에 있어서 남성과의 관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주가 일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이전에 자신들의 체류국에서 갖지 못했던 사회적 및 경제적인 계층의 이동을 가능케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희망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주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국에서의 적응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응이란 개인의 내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외적환경과 사회적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불안감이나 좌절감이 없는 안녕감을 가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자의 사회적응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두 사회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한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김형태, 2004).

사회적응에 관하여 Mendenhall & Oddou(1985)는 자기 지향적 차원, 타인 지향적 차원, 지각차원, 문화적 곤란성 차원을 제시하고 있고 Black & Stephen(1989)은 이주자의 적응을 업무적응 상호작용 적응 및 일반적응을, Ward & Kennedy(1993)는 심리적응과 사회문화적응을, Aycan(1997)은 심리적응과 사회문화적응 외에 업무적응을 추가하였다(정철균 외, 2007).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적응에 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이주자의 개인적 심리 측면과 이주자가 적응해야할 체류국의 현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 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이주자의 심리적인 측면으로서의 심리적응은 신체적·심리적인 이주자의 안녕감과 만족을 의미(Searle & Ward, 1990)하는데, 이는 곧 긍정적 측면과 심리적 증후로 나누어진다. 심리적응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삶의 질,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전한 정신, 명확한 개인적 정체감, 건강상태 및 성취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심리적 증후란 적대감, 우울, 정신적 억압, 신체적 질환, 불안, 긴장, 피로 등이 있다. 또한 이주자의 사회적응은 현지에서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주자의 능력(Berry, 1992)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지문화와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갈 대처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응은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태도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및 사회적지지 등에 영향을 받는 문제 지향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에 사회적응은 태도적 요인에 내재된 사회적 행동으로 현지인과의 접촉이나 친밀감의 정도 또는 문화적 거리와 사고나 지식등에 영향을 받는 문화적 학습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응이란 이주자 개인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사회적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2.4.2 사회적응의 중요성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연합(UN)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주’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주란, 세계화와 개방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다. 대한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대신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주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이룬 외국인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성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이룬 외국인 여성은, 여성이라는 것과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로만 단순히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에게 외국인 여성이라는 지칭이나 그에 맞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점에서 겪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그들을 아울러 이주여성으로 파악하는 성 인지적 관점의 유용성이 부각된다(설동훈·윤홍식, 2008).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주로 국제결혼과 성매매사업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국제결혼은 전통적인 가족 내의 성별적 역할 분리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동등하지 않은 이민국 간의 국제결혼은 여성의 성과 몸이 금전적인 거래로 상대국으로 교환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제결혼은 여성에게 자국 남성의 경제적, 문화 식민지의 대상이 되고, 가부장적 성문화와 폭력 등으로 이주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설동

혼, 2005).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에서 2006년 4월 정부가 채택한 용어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었던 한국인남성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지칭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중국의 사회주의의 퇴보로 인한 급격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는 한·중 수교(1992년) 이후 중국여성들의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언어 등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중국의 한족 여성과의 결혼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1990년대 말부터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필리핀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필리핀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측의 국제중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영어권이므로 2세의 영어교육에 유리하고, 모계사회에서 자란 필리핀여성들은 농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필리핀 여성을 선호하게 하였다(우영희·하규수, 2015).

최근 급증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증가의 원인과 배경은 국제결혼대상으로 대만 남성의 한국 남성으로의 대체,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지역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급증세, 베트남 내 한류현상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과 호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박재규, 2009).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혈연공동체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 사회는 다민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도희, 2010). 이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적응하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 관한 조사를 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정보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활동 참여 부족,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도희, 2010). 또한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켜야 하며(서광석,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한다(양인숙 외, 2010). 그러나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우리의 사회는 아직까지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다른 문화에 대해 그 문화의 존중과 이해가 없이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 하며,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어 등의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응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그 외의 적응관련 프로그램은 받아 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았고(최운선, 2007), 또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출신 국가별·연령별 맞춤형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김규식·소진광, 2016)하여 사회적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인 저하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의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와 문화의 전체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참여에 우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적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 속에서 겪는 상이한 문화의 차이만 강조하고 있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진정한 사회문화적 관심과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배우자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간과 하고 있다. 이는 가족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며 크게 볼 때는 한국인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인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한국인은 자신의 문화를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다른 문화권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결혼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간의 접촉에 의한 다양한 문화적 접촉은 문화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

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2005).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자국의 생활방식을 포기한 채 이주국인 한국의 문화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강요된 동화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각각의 개인이 새로운 환경 및 문화와 접촉하면서 문화 접변을 겪는 외적인 심리적 결과로서 문화적인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Berry(2005)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응의 수준과 동일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며, 지나치게 한국의 문화적 가치만을 강요하는 문화동화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의 적응 속에서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융합되어버렸거나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심리내적인 혼란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간의 차이가 가지는 문화충격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편견 사이에서 개인이 겪을 문화변용에 대해 수용과 공존이라는 선택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2.4.3 사회적응의 유형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전 직업이나 학력에 준하는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실업이나 본국에서 보다 낮은 직업을 경험하게 된다(이금순, 2006). 즉 이주민들은 이주초기에 본국인에 비해 소득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회의 진입장벽을 경험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이주민의 경제적 부적응은 빈곤문제, 사회적 일탈, 공공부조에의 장기적인 의존가능성을 높이면서 국내적 통합과 관련하여 이들은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취업을 통한 경제적 적응은 이주생활에서 만

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아지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수준을 헤아릴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적응은 대개 일반적으로 취업여부나 소득수준으로 측정 된다. 예를 들어 이주민의 경제적 지표로 고용상태와 응답자의 연간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상태로는 직업이 있는가와 직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를 묻고 있으며, 연간소득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측정하고 있다.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인종, 언어능력, 가족구성, 거주기간, 정신적 외상경력,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성별, 이주동기, 건강상태등 다양하다. 이중에서 특히 성별, 교육수준, 가족구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적응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결혼한 가정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적응수준이 높게 나왔다. 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적응수준이 낮았으며,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보다 취업의 가능성이 비교적 더 낮게 나타났다(Potocky-Tripodi, 2003).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직업이나 또는 학력에 준하는 직업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실업상태나 혹은 이전의 직업보다 낮은 하향적인 신분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여건상 이주민은 이주 이전의 전문직 등을 이주국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나,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비관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용태도는 성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여성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에서 더 낮은 신분의 사회적 수요가 있는 직업(청소부, 가사도우미, 식당도우미등)에 대해 큰 저항감 없이 뛰어들게 되기 때문이다(이금순, 2006). 남성이 가족부양을 전담하는 것과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등을 담당하는 성별분업은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주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엄격한 성별분업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김순연, 2013). 그러나 이러한 이주 초기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행위·의미의 재구성은 정착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가족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가부장적 사고하의 성별 분업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 된다(윤인진, 2003).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족부양의 역할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가족부양만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권위가 남성에게 전해진다는 전통적인 신념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인식이 바뀌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된다.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이나 또는 심리적 자원의 획득은 평등한 부부 관계를 가져 올수 있을 것 이라고 가정 될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상대 배우자와 비교하여 직업, 수입, 학력 등 자원의 우세로 결정 되어 진다는 자원이론(Blood & Wolfe, 1960)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동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 권력을 소유한 배우자는 가사일과 같은 사소한 일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윤인진, 2003).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경제수입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는 남편의 가사 참여정도가 가장 높고, 반면 가족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낮은 여성의 경우보다 불평등한 가사의 분담을 변화 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금순, 2006).

베트남 난민들의 이주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연장자들이 가정 내에서 갖고 있던 권위가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약화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Kibria, 1994).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 초기에 지속적인 일을 하면서 가정적 경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이주 이전 사회에서는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입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으로 평가 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원을 갖게 됨으로써 불평등한 부부의 관계를 개선 하고자 시도되는 것

으로 가정 되어 왔다.

초기의 정착과정에서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평가절상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당연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결혼이주민들은 가정 내의 관계를 평등하게 개선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서방권에 이주한 난민이나 혹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취업은 여성해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가정되어왔다(Foner, 1986; Simon & Brettell, 1986).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아주 다양한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정의할 수 없다.

적응이란 개념은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1850년에 Darwin의 이론이 기초가 된 순응이란 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적응이라는 용어로 개정 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곽호근,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을 사회 환경의 변화를 관용하고 그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강신욱, 2003),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응력을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개인 및 사회적 자립을 이르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즉, 사회적응에 대한 광의적 의미는 개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해가고 그렇게 사회와 동화되어가는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지은, 2005).

영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 1871)저서의 서두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 라는 정의를 하였다(Tylor, 1871).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50여 년간 인류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나 인류학의 발전과 함께 문화의 정의는 더욱 다양해져 현재는 사회구성원

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행위·지식의 총체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때문에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인간의 일체의 활동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범세계화 상황에서 문화들 간의 이동과 접촉의 기회와 상호교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문화, 이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문화접변으로써의 적응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혹은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의 결과로써 한쪽 혹은 양쪽 모두 가지고 있던 원래의 문화적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써 Redfield et al.(1936)가 처음으로 개념의 정의를 세웠다.

그 후 많은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Berry et al.(1987)는 문화적응에 관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개인이 그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로 물리적 변화, 주택공해, 새로운 기후 등, 생물학적 변화, 음식, 질병, 영양상태 등, 사회적 변화 사회제도의 변화와 대인관계 심리내적인관계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Berry et al., 1987).

후속연구로 Berry(1992)는 문화적응은 ‘두개의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및 집단들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문화적응은 서로 이질적인 두 문화에 변화를 일으켜 양쪽문화권에 있는 집단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 문화변용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양쪽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 집단에서 더 많은 변화를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문화변용과는 차이가 있다(Berry, 1992).

문화적응에 대한연구는 1970년대 초 미국내 이민자와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에는 문화학습접근 스트레스대처접근 사회정체감이론 등의 패러다임들이 등장하면서 활발한 연구들(Furnham & Ward, 2001)이 이루어져 문화적응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나 유형의 구분들이 이루어졌다.

2.4.4 사회적응의 효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남성들은 점점 주변화 되어 가고 있다.

즉,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의 한국인 남성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 다시 말해 경제력이 미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사회적 원인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형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민의 여성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정책,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국가 간 자원, 기술, 교역, 노동력 등의 이동이 점점 증가하는 세계화의 진전은 범지구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국제 이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 하였는데, 2015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51만 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2.96%에 이른다(통계청, 2015).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 이다.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남성결혼이민자보다 우리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가족이 되면서 한국인인 남편의 아이를 낳고, 한국인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와는 다르게 이들에 대한 정책은 폭넓게 수용되어야하는 측면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양적인 측면 및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양적인 측면의 변화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을 소폭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

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게 나타며,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상당 부분이 재혼인 한국인 남자배우자와 결혼하고, 또한 부부간 연령 차이가 크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 및 직업력이 한국인의 평균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의 보육과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이삼식, 2009).

적응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유기체의 형태구조기능이 환경적 조건에 가장 잘 융화된 상태로 변화하는 현상이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은 주변 환경과 개인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며 개체의 욕구에 대한 해소과정 즉, 환경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에 활동의 변화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응에는 수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동적 현상을 말하는 순응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주민과 관련하여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적응,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적응, 인류학적 측면에서의 문화변용, 문화적 적응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적응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적응이란 사회적 환경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적응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그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적응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사회의 적응은 건강한 자아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자아와 사회적 초자아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인 것이다. 사회적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응을 욕구불만의 이론을 인용하여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조화라고 정의하였으며(Shoben & Shaffer, 1956),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Adams, 1972).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문화적 태도 가치 역할 등을 학습함으로써 독자적인 인성을 형성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응으로 보았고, 또한 사회적 유능 감의 구성 영역중 하나로 보았으며 개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타당한 목표들을 성취 하는지를 사회적응으로 규정 하였다(Cavell, 1990).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능력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김수연, 2011), 사회적응을 위한 능력에 가치를 두어 사회적응 능력을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보았다(오혜경·박경숙, 1999).

2.4.5 선행연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행정·복지·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의 발전·안정의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증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 구조로써 융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즉, 새로운 구성원들의 사회 적응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특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으로의 이주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정기선, 2008). 한편 결혼이주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학력 취득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모경환 외, 2012).

이러한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적 배려로 인한 수행이 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체성과 관련 있는 영향 요인들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김오남, 2006; 정경운, 2007; 정주연, 2008; 이정숙, 2010).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 정체성,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등 정신적 건강의 상태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한 친척 및 가족의 지지체계 및 이들과의 관계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기반의 수준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동화, 사회적 통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사회적지지(김경옥, 2010)의 다양한 요인들을 사회통합의 영향으로 다루고 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특성을 요인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의 변인인 통합, 동화, 주변화, 분리 중에서 통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자기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이영분·이유경, 2010). 반대로 남편의 통제가 심하거나 부부간의 문화차이가 클수록 또한 남편과의 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선·한지은, 2009).

최근에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접촉과 지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주재·김순규, 2010).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관계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특히 난민과 이민자 적응 양식에서 보면 난민 집단의 계층과 학력 및 성향에 따라 적응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례로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접촉, 지지, 사회적 태도 등 사회적 관계의 제반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Berry, 1992). 특히,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 언어, 문화적 거리, 사회적 지위, 이주 동기 등 이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요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적응과정 중에 발달되는 동시에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수성이 있다(Berry, 1992). 그런 만큼 이주 사회(목적지 사회)가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여타의 요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이주 사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김이선 외, 2011). 이러한 모든 영향은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능력으로써 이주국으로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순미(2010)의 연구에서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낮을수록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들의 사회적응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가정의 당면 문제로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소통과 언어장벽을 꼽아 가족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대화부족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외래어나 한문에 대한 지식부족,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기술 부족, 한국 사회의 제도·법·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자본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도 지역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윤인진, 2000).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은 매우 어려우며 사회 연계망은 다른 소외 계층보다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엄태완·이기영, 2004).

사회적 관계망과 스트레스의 대한 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나원호, 2017). 각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정체성 이외에도 직장을 구하거나(Granovetter, 1973)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작용한다(Burt, 1992).

한편, 경제수준이 높은 이주자는 비교적 사회적 자본이 많이 누적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경제수준이 서로 다른 이주자들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주자가 본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에 몰두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참여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자본을 부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소득수준은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에서도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재화·김연수, 2007; 신유리·김은경, 2011). 외국의 사례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Lowenstein & Katz, 2005), 가정의 경제위기는 종종 가족해체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가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주한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ssey & Akresh, 2006).

개인의 네트워크에 의한 관계적 자산이 많은 이주자보다, 지역사회에의 친분 및 연대가 많이 없는 이주자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부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거주 형태에 있어서는 고시원이나 자취 및 독립적인 주거 생활보다 타인이나 이웃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웃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주자가 그렇지 않은 이주자보다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각각 독립하게 생활하는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는 이주자도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누적된 사회적 관계와 자원에 대해 인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이주자는 남성 이주자보다 지역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많은 이주자는 젊은 이주자보다 생활경험 및 사회경험이 더 풍부하여 사회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드은 이주자가 생활 및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젊은 이주자보다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거주 및 생활한 이주자는 이주기간이 짧은 이주자보다 사회규범과 지역사회활동, 이웃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자가 그렇지 않은 이주자에 비해 사회규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규범 및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자에 대한 지역사회적응의 요인도 이주자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별,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지역사회화적응 이전에 존재할 수 있는 요인과 과거 거주경험, 개인의 관계적 자산, 거주형태,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특성 등 사회적 적응과정에 관여될 수 있는 요인은 이주자 개인적 지역사회적응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방향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의 정착지에서 적응에 관해 연구한 많은 선행 외국의 논문들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가 이주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취업, 교육, 그리고 다른 기본적 욕구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Simich & Mwakarimba, 2005).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 지지는 친구, 동료, 가족, 전문가들과의 상호적 교류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또는 실천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상호간에 주고받음으로써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생활과 적응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을 다섯 가지의 하위체계로 분류하여 사회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살펴보려 한다. 그에 따른 다섯 가지의 하위체계는 경제, 정치, 사회, 정책적, 가정적 적응으로써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적응이다. 경제적 적응은 사회적 활동의 기본이며, 이주생활에서 참여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있어 스트레스를 낮아지게 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사회 내에서 객체에서부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수단이다(엄명용, 1999; 이금순, 2006; 윤인진, 2007).

둘째, 정치적 적응이다. 정치적 적응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응이다. 이주국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즉, 사회외부에서 사회내부로 편입되는 척도이다(윤인진, 2007).

셋째, 사회적 적응이다. 사회적 적응은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 몰입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주국 사회에서 적응차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혜지, 2009; 양순미, 2010).

넷째, 정책적 적응이다. 정책적 적응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사회화의 과정이며, 동화주의 다문화가정지원, 건강가정지원, 다누리콜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의 증가추세인 우리사회에서 사회적응에 대한 역량획득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섯째, 가정적 적응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민생활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적응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유발 생애사건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는 언어 이해와 의사소통, 문화차이, 부부관계와 시부모와의 관계, 이웃관계, 취업편견과 차별 자녀 양육과 교육관계, 한국어 습득과 문화이해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정기선·한지은,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과제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제반 정책과 제도 등이 구축 및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사회통합 방안이나 통합정책 및 사회적응 등의 일반적인 변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사회적응의 경우에는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습득한 후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의 요인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진 후 다음의 단계적인 적응을 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적응기간별로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요구는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국가의 성향도 고려되어야 한다(황미혜, 2014).

〈표Ⅱ-12〉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학 자	내 용
Shoben & Shaffer 1956	사회적응을 욕구불만의 이론을 인용하여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조화라고 정의 하였다.
Adams 1972	사회적응을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개개인 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Cavell 1990	사회적응은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문화적 태도 가치 역할 등을 학습 함으로써 독자적인 인성을 형성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며 개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타당한 목표들을 성취 하는지를 사회적응으로 규정 하였다.
오혜경·박경숙 1999	사회적응이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보았다.
Potocky-Tripodi 2003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인종, 언어능력, 가족구성, 거주기간, 정신적 외상경력,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성별, 이주동기, 건강상태 등 다양하다.
강신옥 2003	사회적응을 사회 환경의 변화를 관용하고 그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 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Berry 2005	사회문화적 적응은 각각의 개인이 새로운 환경 및 문화와 접촉하면서 문화접변을 겪는 외적인 심리적 결과로서 문화적인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지은 2005	사회적응에 대한 광의적 의미는 개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해가고 그렇게 사회와 동화되어가는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곽호근 2007	적응이란 개념은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리학자들이 적응이라는 용어로 개정 하여 사용하게된 것이다.
최운선 2007	적응관련 프로그램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주재·김순규 2010	사회적 지지망이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양인숙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김수연 2011	사회적응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환경과 조화되어 어울리는 능력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정의.
서광석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
김순연 2013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김규식·소진광 2016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은 국가별·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Ⅲ. 분석방법

3.1 분석틀

여성결혼이민자⁴⁾의 사회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즉 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인적관계와 사회활동 등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친족관계 이웃관계 등을 말하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사회활동 및 자조집단의 참여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응의 핵심적 개념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하위체계로 사회 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 정치, 사회, 정책, 가정적으로 적응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차원의 적응은 내국인과 동등한 또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기회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주국의 경제적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주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유무(직업유무 포함),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정도 그리고 경제활동 기회가 찾아오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이다.

정치적 차원의 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통해 그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며, 이러한 인정지위를 통해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연구에서는 정치 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정당 및 노동조합 등의 참여나 참여 의사에 관한 의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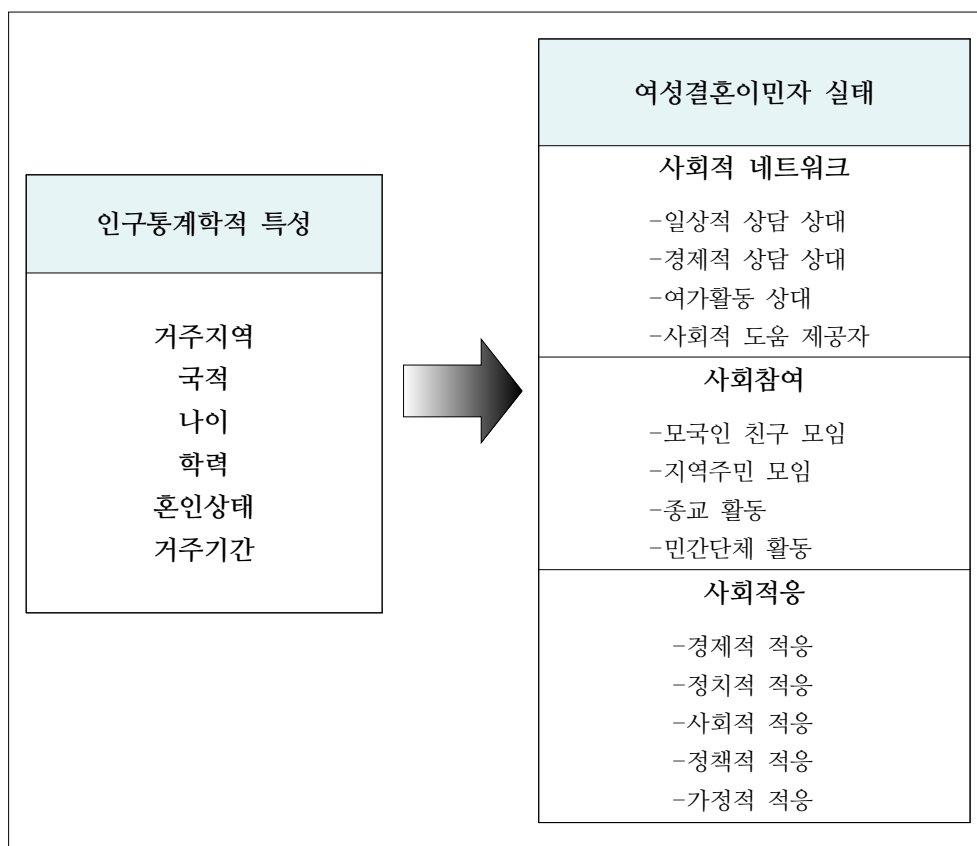
정책적 차원의 적응으로는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원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및 읍·면·

4) 이 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혼인귀화자를 의미하며, 혼인관계에는 법률혼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반 귀화자라 함은 혼인이외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1인 미혼 귀화자도 포함된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동사무소, 고용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외국인 상담소, 사회복지관등 민간단체)의 수, 향후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다. 사회적 적응은 이주국의 삶의 만족도로써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현재 생활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파악함이다. 가정적 적응은 배우자와의 삶의 만족도로써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현재 배우자와의 생활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틀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국내거주기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사회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틀을 살펴보면 다음<그림Ⅲ-1>과 같다.

[그림Ⅲ-1] 분석틀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다음과 같은 설문문의 문항에 대한 대답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먼저 거주지역, 출신국적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으로 분류하여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혼인상태에 관한 내용은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미혼, ②배우자 있음, ③사별, ④이혼·별거로써 네부분의 보기로 나누어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거주기간은 ‘2년 이하’, ‘3~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를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이나 집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모국인)’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예 있습니다.’, ‘② 아니요 없습니다.’로써 모국인과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음 등의 네부분으로 나누어진 문항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모국인)’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예 있습니다.’, ‘② 아니요 없습니다.’로써 모국인과 한국인 기타 외국인 등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문항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모국인)’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예 있습니다.’, ‘② 아니요 없습니다.’로써 모국인과 한국인 기타 외국인 등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문항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모국인)’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예 있습니다.’, ‘② 아니요 없습니다.’로써 모국인과 한국인 기타 외국인 등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문항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문항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대상 등을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3 사회적 참여

다음으로 사회적 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첫째, ‘모국인 친구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있었다.’, ‘② 없었다.’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지역 주민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있었다.’, ‘② 없었다.’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종교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있었다.’, ‘② 없었다.’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있었다.’, ‘② 없었다.’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섯째, ‘향후에 모국인 친구 모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희망.’, ‘② 비희망.’으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섯째, ‘향후에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희망.’, ‘② 비희망.’으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곱째, ‘향후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희망.’, ‘② 비희망.’으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덟째, ‘향후에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

체 등)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희망.’, ‘② 비희망.’으로써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문항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넓게는 사회적 관계망의 참여활동으로, 정부 또는 지역의 공공단체의 참여활동을, 좁게는 민간단체의 활동 및 소지역 모임이나 기타 단체의 참여활동에 대한 지표를 선정 및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4 사회적 적응

다음으로 사회적 적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섯 가지의 하위체계로 나누었다. 그 내용으로는 경제적 적응의 요소는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① 일 하였다.’, ‘② 일하지 않았다.’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치적 적응의 요소는 ‘다음 모임 중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있습니까? (향후 참여 희망 모임) 정당, 노동조합 등’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① 희망’, ‘② 비희망’ 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적응의 요소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당신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보기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책적 적응의 요소는 ‘당신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세부내용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 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경험, 3. 1577-1366(다누리 콜센터, (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용 경험, 4.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이용 경험,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이용 경험, 5. 고용센터 이용 경험, 6. 사회복지관 이용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보기

는 ‘① 모른다.’, ‘②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③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정적 적응의 요소는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로 써 보기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문항을 토대로 각각의 경제활동 등의 참여여부, 정당 및 노동조합 등의 참여 및 의사, 이주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교육 및 공공기관의 지원서비스, 가족(배우자) 관계 만족도 등을 추출하여 지표를 선정 및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및 사회의 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Ⅲ-1>으로 정리하였다.

<표Ⅲ-1>구성변수 및 측정지표

구성변수	측정지표
인구통계학적 특성	거주지역, 국적, 나이, 학력, 혼인상태, 거주기간
사회적 네트워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의 유무(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대상의 유무(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다)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할 대상의 유무(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다)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의 유무(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없다)
사회참여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여 유무 -지역주민 모임의 참여 유무

		-종교활동의 참여 유무 -민간단체 활동의 참여 유무
사회적응	경제적 적응	-경제활동의 참여 유무
	정치적 적응	-정당, 노동조합 등의 모임의 참여 유무
	사회적 적응	-현재의 삶의 만족도
	정책적 적응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 유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유무 -다누리 콜센터 이용 유무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이용 유무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용 유무 -고용센터 이용 유무 -사회복지관 이용 유무
	가정적 적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표본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통계청은 표본추출과 모집단 추정, 조사 실사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요구, 그리고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표 개발과 생산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보고서 집필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년 실태조사 설문지(안)은 2014년 시험조사 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2015년 설문지(안)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명부 구축, 표본설계 및 모집단 추정, 조사 진행 및 자료생산, 데이터 클리닝 등의 업무는 통계청이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모집단 및 조사대상자 정의 등의 단계에 의견을 개진하여 조율하였으며, 실사 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등에 참여하였다.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며 조사의 주기는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목적은 전국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

조사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조사의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진행이 되며 필요시 자기 기입식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기준시점은 2015년 7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조사의 기간은 2015년 7월 22일부터 ~ 8월 18일 까지로 기간 중 20일간 시행 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일반특성과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등록자료를 보완하여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3,487개의 읍면동에서 278,294가구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른 표본추출방법은 이중추출법이며 1단계 집락계통추출, 2단계 층화계통추출하였다. 층화는 28개 층으로 동·읍면부, 14개 국적층이다. 추출의 단위는 읍면동을 1단계로하고 다문화 대상 가구를 2단계로 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1,045개 읍면동에서 27,120가구이다. 1차 추출 규모는 전국 3,487개 행정동의 약 30%인 1,045개 읍면동이며, 2차 추출 규모는 응답완료 약 16,000 가구를 목표로 2012년 조사 결과의 응답률을 고려한 27,120 가구 내외 오버샘플링, 표본대체없이 최소 59%의 응답률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 유효 표본수는 약 16,000가구로 설정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가구수는 27,120가구 중 65.8%인 17,849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사표는 표본 가구 수 27,120가구 중 63.1%인 17,109명의 조사가 완료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표Ⅲ-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가구

(단위 : %, 가구, 명)

전 체 표본수	가구수	가구 구성표	여성결혼이민자	유고가구 ⁵⁾
100 (27,120)	65.8 (17,849)	65.8 (17,849)	63.1 (17,109)	34.2 (9,271)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 사용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국내거주기간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및 사회적응(경제, 정치, 사회, 정책, 가정적 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카이스퀘어 검정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본 연구에서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자세한 변수간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각 요인들의 전반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및 평균 등 기술통계 자료를 산출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사회적 적응의 차이분석을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적응의 요인들 간의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불능 : 30%(8,144가구), 불응 4.2%(1,127가구)

IV. 분석결과

4.1 응답자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Ⅳ-1>과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비율은 32%, 동 단위의 지역의 거주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지역적 인구 비율은 행정구역 단위의 소단위 지역에 높은 분포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도시 보다는 주로 농업중심의 중·소 지방도시에서 농촌총각 즉, 미혼 남성의 해외 결혼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농업의 특성상 ‘읍·면’ 단위의 인구 밀집지역 보다는, 토지와 경작을 위한 공간의 비용 및 활용도 면에서 ‘동’단위의 구성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또한 ‘동’단위 지역의 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신국적별 분포는 중국(22%), 베트남(16%), 중국(한국계)(16%), 동남아시아(9%), 일본(9%), 필리핀(8%),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7%), 미주·유럽·대양주(6%), 대만·홍콩(3%), 남부아시아(3%)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35%), ‘40~49세’(24%), ‘29세 이하’(24%), ‘50~59세’(11%), ‘60세 이상’(5%)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트남, 중국(한국계), 동남아시아 등 62.9%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잘사는 우리나라로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30’대가 57%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4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17%), 대학교 졸업이(17%), 대학교(4년제 미만)가(12%), 초등학교(6%), 대학원(4%), 무학(1%)순으로 70%이상의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민이후 한국의 거주기간으로 ‘6~10년’이(36%), ‘11~15년’이(21%), ‘16년 이상’이(17%)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은 일반귀화는 ‘최소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함’의 귀화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1〉 응답자의 개인적(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범주	빈도	비율
거주지역	동	11,580	67.68
	읍면	5,529	32.32
출신국적	1 중국	3,793	22.17
	2 중국(한국계)	2,678	15.65
	3 일본	1,485	8.68
	4 대만, 홍콩	550	3.21
	5 베트남	2,736	15.99
	6 필리핀	1,446	8.45
	7 그 외 동남아시아	1,569	9.17
	8 남부아시아	510	2.98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240	7.25
	10 미주, 유럽, 대양주	951	5.56
	11 기타	151	0.88
연령	29세 이하	4,035	23.58
	30~39세	6,075	35.51
	40~49세	4,190	24.49
	50~59세	1,943	11.36
	60세 이상	866	5.06
학력	무학	197	1.15
	초등학교	1,168	6.83
	중학교	3,073	17.96
	고등학교	6,917	40.43
	대학교(4년제 미만)	2,126	12.43
	대학교(4년제 이상)	3,001	17.54
	대학원	627	3.66
혼인상태	1 미혼	239	1.40
	2 배우자 있음	15,561	90.95
	3 사별	433	2.53
	4 이혼, 별거	876	5.1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211	7.08
	3~5년	3,033	17.73
	6~10년	6,168	36.05
	11~15년	3,687	21.55
	16년 이상	3,010	17.59
소 계		17,109	100%

N = 17,109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2 사회적 네트워크 실태

4.2.1 일상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표Ⅳ-2〉는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71.93%가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72.4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70%이상이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이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일본(87.21%), 대만·홍콩(79.27%), 미주·유럽·대양주(78.13%)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40~49세’(81.79%), ‘30~39세’(75.09%), ‘29세 이하’(72.0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40대’가 ‘50대~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81.18%), 대학교(4년제 이상)(76.71%), 대학교(4년제 미만)(76.6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74.48%), 배우자 있음(72.4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과 배우자 있음은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혼의 빈도수가 낮아 비율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혼이나 배우자 있음이 사별이나 이혼·별거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빈도수는 높게 나왔으나 그 차이가 높지 않아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77.00%), ‘3~5년’(72.24%), ‘11~15년’(71.82%)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70~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8,330	71.93	3,250	28.07	0.57 (.448)
	읍면	4,008	72.49	1,521	27.51	
출신국적	1 중국	2,648	69.81	1,145	30.19	270.51 (.000)
	2 중국(한국계)	1,806	67.44	872	32.56	
	3 일본	1,295	87.21	190	12.79	
	4 대만, 홍콩	436	79.27	114	20.73	
	5 베트남	1,893	69.19	843	30.81	
	6 필리핀	1,093	75.59	353	24.41	
	7 그 외 동남아시아	1,082	68.96	487	31.04	
	8 남부아시아	371	72.75	139	27.25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63	69.60	377	30.40	
	10 미주, 유럽, 대양주	743	78.13	208	21.87	
	11 기타	108	71.52	43	28.48	
연령	29세 이하	2,908	72.07	1,127	27.93	109.05 (.000)
	30~39세	4,562	75.09	1,513	24.91	
	40~49세	3,008	81.79	1,182	28.21	
	50~59세	1,350	69.48	593	30.52	
	60세 이상	510	58.89	356	41.11	
학력	무학	137	69.54	60	30.46	180.87 (.000)
	초등학교	726	62.16	442	37.84	
	중학교	2,052	66.78	1,021	33.22	
	고등학교	4,982	72.03	1,935	27.97	
	대학교(4년제 미만)	1,630	76.67	496	23.33	
	대학교(4년제 이상)	2,302	76.71	699	23.29	
	대학원	509	81.18	118	18.82	
혼인상태	1 미혼	178	74.48	61	25.52	15.68 (.001)
	2 배우자 있음	11,275	72.46	4,286	27.54	
	3 사별	300	69.28	133	30.72	
	4 이혼, 별거	585	66.78	291	33.2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849	70.11	362	29.89	37.98 (.000)
	3~5년	2,191	72.24	842	27.76	
	6~10년	4,363	70.74	1,805	29.26	
	11~15년	2,648	71.82	1,039	28.18	
	16년 이상	1,918	77.00	573	23.00	

N = 17,109

4.2.2 경제적 상담 상대 존재유무

〈표Ⅳ-3〉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75.03%가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75.4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70%이상이 일자리와 관련하여 상담할 대상이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82.54%), 일본(81.68%), 대만·홍콩(79.6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77.87%), ‘30~39세’(76.54%), ‘40~49세’(73.51%), ‘50~59세’(70.61%), ‘60세 이상’(71.1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71~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구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81.18%), 대학교(4년제 이상)(79.04%), 대학교(4년제 미만)(77.52%)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75.89%), 미혼(72.80%)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별(69.28%), 이혼·별거(65.87%)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망의 빈도는 배우자 있음과 미혼이 사별이나 이혼·별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비율은 약 71%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하여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2년 이하’(78.61%), ‘3~5년’(78.01%), ‘16년 이상’(76.3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7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3〉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8,688	75.03	2,892	24.97	0.37 (.542)
	읍면	4,172	75.46	1,357	24.54	
출신국적	1 중국	2,737	72.16	1,056	27.84	138.96 (.000)
	2 중국(한국계)	1,884	70.35	794	29.65	
	3 일본	1,213	81.68	272	18.32	
	4 대만, 홍콩	438	79.64	112	20.36	
	5 베트남	2,018	73.76	718	26.24	
	6 필리핀	1,151	79.60	295	20.40	
	7 그 외 동남아시아	1,199	76.42	370	23.58	
	8 남부아시아	385	75.49	125	24.51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933	75.24	307	24.76	
	10 미주, 유럽, 대양주	785	82.54	166	17.46	
	11 기타	117	77.48	34	22.52	
연령	29세 이하	3,142	77.87	893	22.13	57.26 (.000)
	30~39세	4,650	76.54	1,425	23.46	
	40~49세	3,080	73.51	1,110	26.49	
	50~59세	1,372	70.61	571	29.39	
	60세 이상	616	71.13	250	28.87	
학력	무학	138	70.05	59	29.95	79.21 (.000)
	초등학교	835	71.49	333	28.51	
	중학교	2,191	71.30	882	28.70	
	고등학교	5,167	74.70	1,750	25.30	
	대학교(4년제 미만)	1,648	77.52	478	22.48	
	대학교(4년제 이상)	2,372	79.04	629	20.96	
혼인상태	대학원	509	81.18	118	18.82	53.66 (.000)
	1 미혼	174	72.80	65	27.20	
	2 배우자 있음	11,809	75.89	3,752	24.11	
	3 사별	300	69.28	133	30.72	
한국 거주기간	4 이혼, 별거	577	65.87	299	34.13	35.25 (.000)
	2년 이하	952	78.61	259	21.39	
	3~5년	2,366	78.01	667	21.99	
	6~10년	4,575	74.17	1,593	25.83	
	11~15년	2,691	72.99	996	27.01	
	16년 이상	1,901	76.31	590	23.69	

N = 17,109

4.2.3 여가활동 상대 존재유무

〈표Ⅳ-4〉은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63.56%가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62.2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이상이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대만·홍콩(79.09%), 미주·유럽·대양주(78.55%), 일본(72.2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30~39세’(65.96%), ‘29세 이하’(63.69%), ‘40~49세’(63.03%)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40대’가 ‘50대~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77.99%), 대학교(4년제 이상)(72.01%), 대학교(4년제 미만)(68.8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75.31%), 배우자 있음(63.9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별(52.66%), 이혼·별거(50.11%)순으로 나타났다.

미혼과 배우자 있음은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혼의 빈도수가 낮아 비율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혼이나 배우자 있음이 사별이나 이혼·별거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68.17%), ‘3~5년’(62.88%), ‘6~10년’(62.40%)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60~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4〉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할 사람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7,360	63.56	4,220	36.44	2.73 (.098)
	읍면	3,442	62.25	2,087	37.75	
출신국적	1 중국	2,301	60.66	1,492	39.34	313.60 (.000)
	2 중국(한국계)	1,540	57.51	1,138	42.49	
	3 일본	1,073	72.26	412	27.74	
	4 대만, 홍콩	435	79.09	115	20.91	
	5 베트남	1,631	59.61	1,105	40.39	
	6 필리핀	988	68.33	458	31.67	
	7 그 외 동남아시아	897	57.17	672	42.83	
	8 남부아시아	316	61.96	194	38.04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773	62.34	467	37.66	
	10 미주, 유럽, 대양주	747	78.55	204	21.45	
	11 기타	101	66.89	50	33.11	
연령	29세 이하	2,570	63.69	1,465	36.31	88.53 (.000)
	30~39세	4,007	65.96	2,068	34.04	
	40~49세	2,641	63.03	1,549	36.98	
	50~59세	1,137	58.52	806	41.48	
	60세 이상	447	51.62	419	48.38	
학력	무학	107	54.31	90	45.69	352.17 (.000)
	초등학교	593	50.77	575	49.23	
	중학교	1,712	55.71	1,361	44.29	
	고등학교	4,276	61.82	2,641	38.18	
	대학교(4년제 미만)	1,464	68.86	662	31.14	
	대학교(4년제 이상)	2,161	72.01	840	27.99	
	대학원	489	77.99	138	22.01	
혼인상태	1 미혼	108	75.31	59	24.69	104.17 (.000)
	2 배우자 있음	9,955	63.97	5,606	36.03	
	3 사별	228	52.66	205	47.34	
	4 이혼, 별거	439	50.11	437	49.8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738	60.94	473	39.06	34.43 (.000)
	3~5년	1,907	62.88	1,126	37.12	
	6~10년	3,849	62.40	2,319	37.60	
	11~15년	2,274	61.68	1,413	38.32	
	16년 이상	1,698	68.17	793	31.83	

N = 17,109

4.2.4 사회적 도움 제공자 존재유무

〈표Ⅳ-5〉은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65.81%가 요청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64.2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이상이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대만·홍콩(78.18%), 일본(74.95%), 미주·유럽·대양주(67.93%)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결과로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40~49세’(66.68%), ‘30~39세’(66.12%), ‘50~59세’(65.88%)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9세 이하’(63.25%), ‘60세 이상’(60.97%)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70.49%), 대학교(4년제 이상)(69.74%), 대학교(4년제 미만)(69.0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72.80%), 배우자 있음(65.5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별(63.97%), 이혼·별거(59.59%)순으로 나타났다.

미혼과 배우자 있음은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혼의 빈도수가 낮아 비율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혼이나 배우자 있음이 사별이나 이혼·별거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72.86%), ‘11~15년’(65.50%), ‘6~10년’(63.52%)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5년’(63.11%), ‘2년 이하’(62.68%)순으로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62~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5〉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7,621	65.81	3,959	34.19	4.25 (.039)
	읍면	3,550	64.21	1,979	35.79	
출신국적	1 중국	2,490	65.65	1,303	34.35	182.42 (.000)
	2 중국(한국계)	1,737	64.86	941	35.14	
	3 일본	1,113	74.95	372	25.05	
	4 대만, 홍콩	430	78.18	120	21.82	
	5 베트남	1,615	59.03	1,121	40.97	
	6 필리핀	975	67.43	471	32.57	
	7 그 외 동남아시아	927	59.08	642	40.92	
	8 남부아시아	339	66.47	171	33.53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00	64.52	440	35.48	
	10 미주, 유럽, 대양주	646	67.93	305	32.07	
	11 기타	99	65.56	52	34.44	
연령	29세 이하	2,552	63.25	1,483	36.75	20.31 (.000)
	30~39세	4,017	66.12	2,058	33.88	
	40~49세	2,794	66.68	1,396	33.32	
	50~59세	1,208	65.88	663	34.12	
	60세 이상	528	60.97	338	39.03	
학력	무학	122	61.93	75	38.07	136.38 (.000)
	초등학교	648	55.48	520	44.52	
	중학교	1,844	60.01	1,229	39.99	
	고등학교	4,554	65.84	2,363	34.16	
	대학교(4년제 미만)	1,468	69.05	658	30.95	
	대학교(4년제 이상)	2,093	69.74	908	30.26	
	대학원	442	70.49	185	29.51	
혼인상태	1 미혼	174	72.80	65	27.20	19.26 (.000)
	2 배우자 있음	10,198	65.54	5,363	34.46	
	3 사별	277	63.97	156	36.03	
	4 이혼, 별거	522	59.59	354	40.4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759	62.68	452	37.32	81.55 (.000)
	3~5년	1,914	63.11	1,119	36.89	
	6~10년	3,918	63.52	2,250	36.48	
	11~15년	2,415	65.50	1,272	34.50	
	16년 이상	1,815	72.86	676	27.14	

N = 17,109

4.2.5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Ⅳ-6>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수 17,109중 최소값 '0' ~ 최대값 '12'의 평균은 2.87, 표준편차 1.8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집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는 일자리 등과 관련해 의논하거나 취미나 여가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도움이나 의논이 필요할 때 최대값 대비 평균 75%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6> 사회적 네트워크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네트워크	17,109	2.87	1.87	0	12

N = 17,109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7>과 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출신국적,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주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평균은 2.79로 비교적 행정구역상 작은 동 단위의 거주지역 평균 2.92보다 낮게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 단위 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동 단위의 작은 행정구역에서 조금 더 활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신국적의 평균은 일본 3.66, 미주·유럽·대양주 3.61, 남부아시아 2.95, 필리핀 2.90, 중국(한국계) 2.83, 중국 2.74,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2.73, 베트남 2.5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가 평균 2.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40~49세'가 3.00, '30~39세'가 2.99, '50~59세'가

2.92, ‘29세 이하’가 2.6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2.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은 대학원 3.7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이상) 3.26, 대학교(4년제 미만) 3.10, 고등학교(4년제 이상) 2.82, 무학 2.63, 중학교 2.51이며, 초등학교 2.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평균은 미혼이 3.28, 배우자 있음이 2.8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 및 이혼·별거가 2.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 평균은 ‘16년 이상’이 3.24, ‘11~15년’이 2.94, ‘6~10년’이 2.82, ‘3~5년’이 2.70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하’가 2.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7〉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단위: 명)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거주지역	동	11,580	2.92	2.88	4.26	0.000***
	읍면	5,529	2.79	2.74		
출신국적	1 중국	3,793	2.74	1.79	65.05	0.000***
	2 중국(한국계)	2,678	2.83	1.96		
	3 일본	1,485	3.66	2.05		
	4 대만, 홍콩	550	3.41	1.90		
	5 베트남	2,736	2.55	1.67		
	6 필리핀	1,446	2.90	1.63		
	7 그 외 동남아시아	1,569	2.50	1.71		
	8 남부아시아	510	2.95	1.92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240	2.73	1.77		
	10 미주, 유럽, 대양주	951	3.61	2.21		
	11 기타	151	3.20	2.13		
연령	29세 이하	4,035	2.68	1.72	47.03	0.000***
	30~39세	6,075	2.99	1.86		
	40~49세	4,190	3.00	1.94		
	50~59세	1,943	2.92	2.02		
	60세 이상	866	2.24	1.76		
학력	무학	197	2.63	2.00	89.50	0.000***
	초등학교	1,168	2.30	1.74		
	중학교	3,073	2.51	1.74		
	고등학교	6,917	2.82	1.80		
	대학교(4년제 미만)	2,126	3.10	1.88		
	대학교(4년제 이상)	3,001	3.26	1.97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대학원	627	3.72	2.19		
혼인상태	1 미혼	239	3.28	2.00	11.89	0.000***
	2 배우자 있음	15,561	2.89	1.87		
	3 사별	433	2.62	1.90		
	4 이혼. 별거	876	2.62	1.9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211	2.46	1.62	51.71	0.000***
	3~5년	3,033	2.70	1.75		
	6~10년	6,168	2.82	1.85		
	11~15년	3,687	2.94	1.92		
	16년 이상	3,010	3.24	2.01		

※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3 사회적 참여 실태

4.3.1 모국인 친구 활동

〈표Ⅳ-8〉은 모국인 친구 모임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60.85%가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61.4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이상이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일본(77.85%), 필리핀(76.63%), 그 외 동남아시아(65.4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63.25%), ‘30~39세’(63.09%), ‘40~49세’(61.60%)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40대’가 ‘50대~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교(4년제 미만)(69.71%), 대학원(66.19%), 대학교(4년제 이상)(65.9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6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46.86%), 사별(47.34%), 이혼·별거(48.06%)는 모국인 친구 모임이 ‘없음’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음’이 ‘배우자가 없음’ 보다 높은 것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3~5년’(64.66%), ‘6~10년’(61.20%), ‘16년 이상’(60.1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58~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8〉 모국인 친구 모임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7,046	60.85	4,534	39.15	0.58 (.443)
	읍면	3,398	61.46	2,131	38.54	
출신국적	1 중국	1,933	50.96	1,860	49.04	594.60 (.000)
	2 중국(한국계)	1,436	53.62	1,242	46.38	
	3 일본	1,156	77.85	329	22.15	
	4 대만, 홍콩	282	51.27	268	48.73	
	5 베트남	1,703	62.24	1,033	37.76	
	6 필리핀	1,108	76.63	338	23.37	
	7 그 외 동남아시아	1,027	65.46	542	34.54	
	8 남부아시아	314	61.57	196	38.43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11	65.40	429	34.60	
	10 미주, 유럽, 대양주	582	61.20	369	38.80	
	11 기타	92	60.93	59	39.07	
연령	29세 이하	2,552	63.25	1,483	36.75	173.13 (.000)
	30~39세	3,833	63.09	2,242	36.91	
	40~49세	2,581	61.60	1,609	38.40	
	50~59세	1,122	57.75	821	42.25	
	60세 이상	356	41.11	510	58.89	
학력	무학	94	47.72	103	52.28	216.80 (.000)
	초등학교	611	52.31	557	47.69	
	중학교	1,666	54.21	1,407	45.79	
	고등학교	4,198	60.69	2,719	39.31	
	대학교(4년제 미만)	1,482	69.71	644	30.29	
	대학교(4년제 이상)	1,978	65.91	1,023	34.09	
	대학원	415	66.19	212	33.81	
혼인상태	1 미혼	112	46.86	127	53.14	128.06 (.000)
	2 배우자 있음	9,706	62.37	5,855	37.63	
	3 사별	205	47.34	228	52.66	
	4 이혼, 별거	421	48.06	455	51.9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706	58.30	505	41.70	26.61 (.000)
	3~5년	1,961	64.66	1,072	35.34	
	6~10년	3,775	61.20	2,393	38.80	
	11~15년	2,183	59.21	1,504	40.79	
	16년 이상	1,493	60.14	993	39.86	

N = 17,109

4.3.2 지역 주민 활동

〈표Ⅳ-9〉은 지역 주민 모임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11.96%가 지역 주민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23.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대만·홍콩(24.55%), 일본(24.51%),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18.7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60세 이상’(21.13%), ‘50~59세’(19.45%), ‘40~49세’(17.40%)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60대’가 ‘20대~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교(4년제 미만)(19.00%), 대학교(4년제 이상)(17.39%), 대학원(13.88%)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사별(22.40%), 배우자 있음(16.02%)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혼·별거(8.45%), 미혼(5.44%)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24.69%), ‘11~15년’(16.98%), ‘6~10년’(14.0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5년’(11.31%), ‘2년 이하’(8.8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9〉 지역 주민 모임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1,385	11.96	10,195	88.04	368.96 (.000)
	읍면	1,292	23.37	4,237	76.63	
출신국적	1 중국	608	16.03	3,185	83.97	207.67 (.000)
	2 중국(한국계)	362	13.52	2,316	86.48	
	3 일본	364	24.51	1,121	75.49	
	4 대만, 홍콩	135	24.55	415	75.45	
	5 베트남	287	10.49	2,449	89.51	
	6 필리핀	244	16.87	1,202	83.13	
	7 그 외 동남아시아	241	15.36	1,328	84.64	
	8 남부아시아	64	12.55	446	87.45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232	18.71	1,008	81.29	
	10 미주, 유럽, 대양주	121	12.72	830	87.28	
	11 기타	19	12.58	132	87.42	
연령	29세 이하	443	10.98	3,592	89.02	117.48 (.000)
	30~39세	944	15.54	5,131	84.46	
	40~49세	729	17.40	3,461	82.60	
	50~59세	378	19.45	1,565	80.55	
	60세 이상	183	21.13	683	78.87	
학력	무학	25	12.69	172	87.31	36.69 (.000)
	초등학교	176	15.07	992	84.93	
	중학교	434	14.12	2,639	85.88	
	고등학교	1,029	14.88	5,888	85.12	
	대학교(4년제 미만)	404	19.00	1,722	81.00	
	대학교(4년제 이상)	522	17.39	2,479	82.61	
	대학원	87	13.88	540	86.12	
혼인상태	1 미혼	13	5.44	226	94.56	69.88 (.000)
	2 배우자 있음	2,493	16.02	13,068	83.98	
	3 사별	97	22.40	336	77.60	
	4 이혼, 별거	74	8.45	802	91.55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07	8.84	1,104	91.16	259.02 (.000)
	3~5년	343	11.31	2,690	88.69	
	6~10년	868	14.07	5,300	85.93	
	11~15년	626	16.98	3,061	83.02	
	16년 이상	615	24.69	1,876	75.31	

N = 17,109

4.3.3 종교 활동

〈표Ⅳ-10〉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25.28%가 종교 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28.3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일본(66.06%), 필리핀(46.40%), 남부아시아(43.73%),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주·유럽·대양주(31.13%), 그 외 동남아시아(25.18%),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24.44%), 대만·홍콩(21.82%), 중국(17.30%), 중국(한국계)(14.64%), 베트남(14.36%)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40~49세’(33.05%), ‘50~59세’(30.83%), ‘60세 이상’(28.0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0~39세’(25.05%), ‘29세 이하’(18.49%)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교(4년제 미만)(39.23%), 대학교(4년제 이상)(34.09%), 대학원(32.22%)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24.16%), 무학(22.34%), 초등학교(18.41%), 중학교(16.47%)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사별(33.49%), 배우자 있음(26.6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혼·별거(19.75%), 미혼(12.97%)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41.35%), ‘11~15년’(28.34%), ‘6~10년’(21.7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5년’(21.43%), ‘2년 이하’(17.9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10〉 종교 활동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2,927	25.28	8,653	74.72	18.36 (.000)
	읍면	1,568	28.36	3,961	71.64	
출신국적	1 중국	656	17.30	3,137	82.70	2.22 (.000)
	2 중국(한국계)	392	14.64	2,286	85.36	
	3 일본	981	66.06	504	33.94	
	4 대만, 홍콩	120	21.82	430	78.17	
	5 베트남	393	14.36	2,343	85.64	
	6 필리핀	671	46.40	775	53.60	
	7 그 외 동남아시아	395	25.18	1,174	74.82	
	8 남아시아	223	43.73	287	56.27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303	24.44	937	75.56	
	10 미주, 유럽, 대양주	296	31.13	655	68.87	
	11 기타	65	43.05	86	56.95	
연령	29세 이하	746	18.49	3,289	81.51	252.64 (.000)
	30~39세	1,522	25.05	4,553	74.95	
	40~49세	1,385	33.05	2,805	66.95	
	50~59세	599	30.83	1,344	69.17	
	60세 이상	243	28.06	623	71.94	
학력	무학	44	22.34	153	77.66	497.73 (.000)
	초등학교	215	18.41	953	81.59	
	중학교	506	16.47	2,567	83.53	
	고등학교	1,671	24.16	5,246	75.84	
	대학교(4년제 미만)	834	39.23	1,292	60.77	
	대학교(4년제 이상)	1,023	34.09	1,978	65.91	
혼인상태	대학원	202	32.22	425	67.78	53.81 (.000)
	1 미혼	31	12.97	208	87.03	
	2 배우자 있음	4,146	26.64	11,415	73.36	
	3 사별	145	33.49	288	66.51	
한국 거주기간	4 이혼, 별거	173	19.75	703	80.25	449.46 (.000)
	2년 이하	217	17.92	994	82.08	
	3~5년	650	21.43	2,383	78.57	
	6~10년	1,341	21.74	4,827	78.26	
	11~15년	1,045	28.34	2,642	71.66	
	16년 이상	1,030	41.35	1,461	58.65	

N = 17,109

4.3.4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표Ⅳ-11〉은 민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10.48%가 민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단위에서도 14.9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일본(27.14%), 필리핀(21.85%),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14.8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 외 동남아시아(13.70%), 남부아시아(10.98%), 베트남(9.65%), 중국(9.20%), 대만·홍콩(7.64%), 미주·유럽·대양주(6.73%), 중국(한국계)(4.74%)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40~49세’(13.37%), ‘30~39세’(12.43%), ‘50~59세’(11.79%)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9세 이하’(11.20%), ‘60세 이상’(4.85%)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교(4년제 미만)(17.97%), 대학교(4년제 이상)(15.86%), 대학원(13.88%)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11.55%), 무학(8.63%), 중학교(7.16%), 초등학교(4.88%)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12.49%), 사별(9.4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혼·별거(5.71%), 미혼(1.26%)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15.34%), ‘2년 이하’(11.73%), ‘11~15년’(11.6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5년’(11.01%), ‘6~10년’(10.93%)순으로 나타났다. ‘2년 이하’~‘16년 이상’까지 모두 1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11〉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1,214	10.48	10,366	89.52	69.66 (.000)
	읍면	824	14.90	4,705	85.10	
출신국적	1 중국	349	9.20	3,444	90.80	684.66 (.000)
	2 중국(한국계)	127	4.74	2,551	95.26	
	3 일본	403	27.14	1,082	72.86	
	4 대만, 홍콩	42	7.64	508	92.36	
	5 베트남	264	9.65	2,472	90.35	
	6 필리핀	316	21.85	1,130	78.15	
	7 그 외 동남아시아	215	13.70	1,354	86.30	
	8 남부아시아	56	10.98	454	89.02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84	14.84	1,056	85.16	
	10 미주, 유럽, 대양주	64	6.73	887	93.27	
	11 기타	18	11.92	133	88.08	
연령	29세 이하	452	11.20	3,583	88.80	53.10 (.000)
	30~39세	755	12.43	5,320	87.57	
	40~49세	560	13.37	3,630	86.63	
	50~59세	229	11.79	1,714	88.21	
	60세 이상	42	4.85	824	95.15	
학력	무학	17	8.63	180	91.37	245.30 (.000)
	초등학교	57	4.88	1,111	95.12	
	중학교	220	7.16	2,853	92.84	
	고등학교	799	11.55	6,118	88.45	
	대학교(4년제 미만)	382	17.97	1,744	82.03	
	대학교(4년제 이상)	476	15.86	2,525	84.14	
	대학원	87	13.88	540	86.12	
혼인상태	1 미혼	3	1.26	236	98.74	65.46 (.000)
	2 배우자 있음	1,944	12.49	13,617	87.51	
	3 사별	41	9.47	392	90.53	
	4 이혼, 별거	50	5.71	826	94.2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42	11.73	1,069	88.27	36.32 (.000)
	3~5년	334	11.01	2,699	88.99	
	6~10년	674	10.93	5,494	89.07	
	11~15년	428	11.61	3,259	88.39	
	16년 이상	382	15.34	2,109	84.66	

N = 17,109

4.3.5 사회적 참여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Ⅳ-12>와 같이 나타났다. 표본수 17,109중 최소값 ‘0’ ~ 최대값 ‘8’의 평균은 2.12, 표준편차 1.6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 즉,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활동, 민간단체 활동 등의 참여나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에 대한 결과 값으로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Ⅳ-12> 사회적 참여와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참여	17,109	2.12	1.65	0	8

N = 17,109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3>과 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출신국적,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평균은 2.35로 비교적 행정구역상 작은 동 단위의 거주지역 평균 2.01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참여는 동 단위 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의 평균은 일본 3.37, 필리핀 2.86, 남부아시아 2.33, 동남아시아 2.32,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2.14, 미주·유럽·대양주 2.00, 베트남 1.96, 대만·홍콩 1.78, 중국 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한국계)이 평균 1.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40~49세’가 2.23, ‘30~39세’가 2.15, ‘50~59세’가 2.11, ‘29세 이하’가 2.06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은 대학교(4년제 미만) 2.63, 대학교(4년제 이상) 2.38, 대학원 2.37, 고등학교 2.04, 중학교 1.80, 무학이 1.7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1.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평균은 배우자 있음이 2.17, 사별이 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별 평균은 ‘16년 이상’이 2.40, ‘3~5년’이 2.12, ‘11~15년’이 2.06, ‘2년 이하’가 2.0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이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3〉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참여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거주지역	동	11,580	2.01	1.98	-12.72	0.000***
	읍면	5,529	2.35	2.30		
출신국적	1 중국	3,793	1.77	1.49	183.92	0.000***
	2 중국(한국계)	2,678	1.60	1.43		
	3 일본	1,485	3.37	2.01		
	4 대만, 홍콩	550	1.78	1.43		
	5 베트남	2,736	1.96	1.41		
	6 필리핀	1,446	2.86	1.77		
	7 그 외 동남아시아	1,569	2.32	1.57		
	8 남부아시아	510	2.33	1.69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240	2.14	1.59		
	10 미주, 유럽, 대양주	951	2.00	1.53		
	11 기타	151	2.35	1.61		
연령	29세 이하	4,035	2.06	1.46	29.11	0.000***
	30~39세	6,075	2.15	1.59		
	40~49세	4,190	2.23	1.80		
	50~59세	1,943	2.11	1.86		
	60세 이상	866	1.59	1.51		
학력	무학	197	1.74	1.64	86.27	0.000***
	초등학교	1,168	1.70	1.39		
	중학교	3,073	1.80	1.43		
	고등학교	6,917	2.04	1.62		
	대학교(4년제 미만)	2,126	2.63	1.87		
	대학교(4년제 이상)	3,001	2.38	1.70		
	대학원	627	2.37	1.72		
혼인상태	1 미혼	239	1.19	1.22	73.17	0.000***
	2 배우자 있음	15,561	2.17	1.65		
	3 사별	433	2.00	1.88		
	4 이혼, 별거	876	1.49	1.4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211	2.03	1.44	29.09	0.000***
	3~5년	3,033	2.12	1.50		
	6~10년	6,168	2.02	1.56		
	11~15년	3,687	2.06	1.70		
	16년 이상	3,010	2.40	1.94		

※ 주: * p <0.05, ** p <0.01, *** p <0.001

4.4 사회적 적응 실태

4.4.1 경제적 적응(경제 활동 참여)

〈표Ⅳ-14〉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경제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60.98%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62.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79.39%), 남부아시아(75.29%), 중국(한국계)(72.1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50~59세’(77.05%), ‘40~49세’(73.41%), ‘30~39세’(61.6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59%이상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79.27%), 고등학교(62.04%), 대학교(4년제 이상)(61.98%)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61.67%), 대학교(4년제 미만)(58.70%), 초등학교(53.42%), 무학(49.2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60%이상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이혼·별거(82.08%), 미혼(74.06%)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있음(60.25%), 사별(55.66%)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71.54%), ‘11~15년’(71.22%), ‘6~10년’(64.1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5년’(46.32%), ‘2년 이하’(29.23%)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별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구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14〉 경제적 적응(경제 활동 참여)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7,062	60.98	4,518	39.02	3.15 (.076)
	읍면	3,450	62.40	2,079	37.60	
출신국적	1 중국	2,404	63.38	1,389	36.62	563.49 (.000)
	2 중국(한국계)	1,931	72.11	747	27.89	
	3 일본	779	52.46	706	47.54	
	4 대만, 홍콩	357	64.91	193	35.09	
	5 베트남	1,557	56.91	1,179	43.09	
	6 필리핀	842	58.23	604	41.77	
	7 그 외 동남아시아	775	49.39	794	50.61	
	8 남부아시아	384	75.29	126	24.71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618	49.84	622	50.16	
	10 미주, 유럽, 대양주	755	79.39	196	20.61	
	11 기타	110	72.85	41	27.15	
연령	29세 이하	1,877	46.52	2,158	53.48	1.12 (.000)
	30~39세	3,745	61.65	2,330	38.35	
	40~49세	3,076	73.41	1,114	26.59	
	50~59세	1,497	77.05	446	22.95	
	60세 이상	317	36.61	549	63.39	
학력	무학	97	49.24	100	50.76	136.35 (.000)
	초등학교	624	53.42	544	46.58	
	중학교	1,895	61.67	1,178	38.33	
	고등학교	4,291	62.04	2,626	37.96	
	대학교(4년제 미만)	1,248	58.70	878	41.30	
	대학교(4년제 이상)	1,860	61.98	1,141	38.02	
	대학원	497	79.27	130	20.73	
혼인상태	1 미혼	177	74.06	62	25.94	189.01 (.000)
	2 배우자 있음	9,375	60.25	6,186	39.75	
	3 사별	241	55.66	192	44.34	
	4 이혼, 별거	719	82.08	157	17.9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354	29.23	857	70.77	1.12 (.000)
	3~5년	1,405	46.32	1,628	53.68	
	6~10년	3,957	64.15	2,211	35.85	
	11~15년	2,626	71.22	1,061	28.78	
	16년 이상	1,782	71.54	709	28.46	

N = 17,109

4.4.2 정치적 적응(정당, 노동조합 참여)

〈표Ⅳ-15〉은 정당, 노동조합 등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치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2.56%가 모임에 참여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2.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정당, 노동조합 등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낮게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8.10%), 필리핀(4.70%), 남부아시아(3.33%)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2.50%), 베트남(2.45%), 대만·홍콩(2.36%), 그 외 동남아시아(2.10%), 중국(1.74%), 일본(1.28%), 중국(한국계)(1.2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3.22%), ‘30~39세’(2.75%), ‘40~49세’(2.41%)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59세’(1.39%), ‘60세 이상’(0.6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25%), 대학교(4년제 이상)(4.23%), 대학교(4년제 미만)(3.1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1.84%), 중학교(1.40%), 무학(1.02%), 초등학교(0.6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혁·남일재(2014)의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주여성들의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2.63%), 미혼(1.67%)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혼·별거(1.48%), 사별(0.92%)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3~5년’(3.43%), ‘2년 이하’(3.06%), ‘6~10년’(2.30%)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1~15년’(2.22%), ‘16년 이상’(2.09%)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5〉 정치적 적응(정당, 노동조합 참여)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296	2.56	11,284	97.44	0.19 (.655)
	읍면	135	2.44	5,394	97.56	
출신국적	1 중국	66	1.74	3,727	98.26	190.62 (.000)
	2 중국(한국계)	33	1.23	2,645	98.77	
	3 일본	19	1.28	1,466	98.72	
	4 대만, 홍콩	13	2.36	537	97.64	
	5 베트남	67	2.45	2,669	97.55	
	6 필리핀	68	4.70	1,378	95.30	
	7 그 외 동남아시아	33	2.10	1,536	97.90	
	8 남부아시아	17	3.33	493	96.67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31	2.50	1,209	97.50	
	10 미주, 유럽, 대양주	77	8.10	874	91.90	
	11 기타	7	4.64	144	95.36	
연령	29세 이하	130	3.22	3,905	96.78	31.47 (.000)
	30~39세	167	2.75	5,908	97.25	
	40~49세	101	2.41	4,089	97.59	
	50~59세	27	1.39	1,916	98.61	
	60세 이상	6	0.69	860	99.31	
학력	무학	2	1.02	195	98.98	203.18 (.000)
	초등학교	7	0.60	1,161	99.40	
	중학교	43	1.40	3,030	98.60	
	고등학교	127	1.84	6,790	98.16	
	대학교(4년제 미만)	67	3.15	2,059	96.85	
	대학교(4년제 이상)	127	4.23	2,874	95.77	
혼인상태	대학원	58	9.25	569	90.75	9.85 (.020)
	1 미혼	4	1.67	235	98.33	
	2 배우자 있음	410	2.63	15,151	97.37	
	3 사별	4	0.92	429	99.08	
한국 거주기간	4 이혼, 별거	13	1.48	863	98.52	16.05 (.003)
	2년 이하	37	3.06	1,174	96.94	
	3~5년	104	3.43	2,929	96.57	
	6~10년	142	2.30	6,026	97.70	
	11~15년	82	2.22	3,605	97.78	
	16년 이상	52	2.09	2,439	97.91	

N = 17,109

4.4.3 사회적 적응(삶의 만족도)

〈표Ⅳ-16〉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33.73%가 보통이었고, 30.67%가 약간 만족, 24.84%가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절반이상(55.5%)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단위에서도 33.73%가 약간 만족, 31.78%가 보통, 25.68%가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59.4%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55~59% 이상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적응에 대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약간 만족이나 매우 만족의 긍정적 답변은 오름차순으로, 중국(한국계)(44.99%), 일본(53.20%), 중국(53.58%), 그 외 동남아시아(57.81%), 베트남(59.50%), 남부아시아(60.00%),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61.46%), 필리핀(62.52%), 대만·홍콩(62.55%), 미주·유럽·대양주(77.9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만족하지 못함과 별로 만족하지 못함의 부정적 답변은 내림차순으로, 중국(한국계)(14.42%), 일본(12.46%), 중국(12.31%), 남부아시아(9.80%), 대만·홍콩(9.64%), 필리핀(9.27%), 그 외 동남아시아(8.86%),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7.82%), 베트남(6.29%), 미주·유럽·대양주(3.89%)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34.00%)에서는 약간 만족이 제일 높았으며, ‘30~39세’(33.51%)에서도 약간 만족이 제일 높았다. ‘40~49세’(36.11%)에서는 보통이 제일 높았으며, ‘50~59세’(40.50%)에서도 보통이 제일 높았으며, ‘60세 이상’(35.33%)에서도 보통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41.63%)은 매우 만족이 제일 높았고, 대학교(4년제 이상)(33.79%)는 약간 만족이 제일 높았으며, 대학교(4년제 미

만)(34.52%)도 약간 만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35.85%)는 보통이 제일 높았으며, 중학교(36.22%)도 보통이 제일 높았고, 초등학교(36.82%)와 무학(38.58%)도 보통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35.15%)은 보통이 제일 높았으며, 배우자 있음(32.74%)은 약간 만족이 제일 높았고, 사별(38.57%)은 보통이 제일 높았으며, 이혼·별거(42.81%)또한 보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35.97%)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15년’(37.02%)도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0년’(33.74%)또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3~5년’(34.03%)은 약간 만족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2년 이하’(37.16%)는 매우 만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6〉 사회적 적응(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2,876	3,552	3,906	1,062	184	32.70 (.000)
		24.84	30.67	33.73	9.17	1.59	
	읍면	1,420	1,865	1,757	429	58	
		25.68	33.73	31.78	7.76	1.05	
출신국적	1 중국	859	1,173	1,294	384	83	610.87 (.000)
		22.65	30.93	34.12	10.12	2.19	
	2 중국(한국계)	559	646	1,087	329	57	
		20.87	24.12	40.59	12.29	2.13	
	3 일본	243	547	510	157	28	
		16.36	36.84	34.34	10.57	1.89	
	4 대만, 홍콩	157	187	153	48	5	
		28.55	34.00	27.82	8.73	0.91	
	5 베트남	741	887	936	154	18	
		27.08	32.42	34.21	5.63	0.66	
	6 필리핀	383	521	408	122	12	
		26.49	36.03	28.22	8.44	0.83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7 그 외 동남아시아	401	506	523	123	16	
		25.56	32.25	33.33	7.84	1.02	
	8 남부아시아	132	174	154	46	4	
		25.88	34.12	30.20	9.02	0.78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351	411	381	82	15	
		28.31	33.15	30.73	6.61	1.21	
	10 미주, 유럽, 대양주	420	321	173	35	2	
		44.16	33.75	18.19	3.68	0.21	
	11 기타	50	44	44	11	2	
		33.11	29.14	29.14	7.28	1.32	
연령	29세 이하	1,232	1,372	1,178	225	28	482.54 (.000)
		30.53	34.00	29.19	5.58	0.69	
	30~39세	1,649	2,036	1,879	455	56	
		27.14	33.51	30.93	7.49	0.92	
	40~49세	894	1,260	1,513	444	79	
		21.34	30.07	36.11	10.60	1.89	
	50~59세	363	529	787	221	43	
		18.68	27.23	40.50	11.37	2.21	
	60세 이상	158	220	306	146	36	
		18.24	25.40	35.33	16.86	4.16	
학력	무학	26	63	76	23	9	425.84 (.000)
		13.20	31.98	38.58	11.68	4.57	
	초등학교	214	345	430	150	29	
		18.32	29.54	36.82	12.84	2.48	
	중학교	694	905	1,113	308	53	
		22.58	29.45	36.22	10.02	1.72	
	고등학교	1,621	2,122	2,480	597	97	
		23.44	30.68	35.85	8.63	1.40	
	대학교(4년제 미만)	512	734	673	184	23	
		24.08	34.52	31.66	8.65	1.08	
	대학교(4년제 이상)	968	1,014	787	203	29	
		32.26	33.79	26.22	6.76	0.97	
	대학원	261	234	104	26	2	
		41.63	37.32	16.59	4.15	0.32	
혼인상태	1 미혼	47	70	84	30	8	808.51 (.000)
		19.67	29.29	35.15	12.55	3.35	
	2 배우자 있음	4,122	5,095	5,037	1,139	168	
		26.49	32.74	32.37	7.32	1.08	
	3 사별	39	93	167	106	28	
		9.01	21.48	38.57	24.48	6.47	
	4 이혼, 별거	88	159	375	216	38	
		10.05	18.15	42.81	24.66	4.34	
한국	2년 이하	450	400	303	54	4	410.50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거주기간	3~5년	37.16	33.03	25.02	4.46	0.33	(.000)
		970	1032	837	167	27	
	6~10년	31.98	34.03	27.60	5.51	0.89	
		1465	2017	2081	532	73	
	11~15년	23.75	32.70	33.74	8.63	1.18	
		790	1065	1365	395	72	
	16년 이상	21.43	28.89	37.02	10.71	1.95	
		514	735	896	286	60	
		20.63	29.51	35.97	11.48	2.41	

N = 17,109

4.4.3.1 사회적 적응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Ⅳ-17>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수 17,109중 최소값 '1' ~ 최대값 '5'의 평균은 3.70, 표준편차 0.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Ⅳ-17> 사회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적응	17,109	3.70	0.98	1	5

N = 17,109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8>와 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출신국적,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평균은 3.75로 비교적 행정구역상 작은 동 단위의 거주지역 평균 3.67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적응은 동 단위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미주·유럽·대양주가 평균 4.17, 대만·홍콩 3.80,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3.80, 베트남 3.79, 필리핀 3.78, 남부아시아 3.75, 동남아시아 3.73, 중국 3.61, 일본 3.5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한국계)이 평균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29세 이하’가 3.88, ‘30~39세’ 3.78, ‘40~49세’ 3.58, ‘50~59세’ 3.48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3.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은 대학원 4.15, 대학교(4년제 이상) 3.89, 대학교(4년제 미만) 3.71, 고등학교 3.66, 중학교 3.61, 초등학교 3.48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무학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평균은 배우자 있음이 3.76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사별 3.02, 미혼 3.4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별거가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별 평균은 ‘2년 이하’가 4.02, ‘3~5년’이 3.90, ‘6~10년’이 3.69, ‘11~15년’이 3.25순으로 높았으며, ‘16년 이상’이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18〉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적응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거주지역	동	11,580	3.67	3.66	-4.50	0.000***
	읍면	5,529	3.75	3.72		
출신국적	1 중국	3,793	3.61	1.01	48.29	0.000***
	2 중국(한국계)	2,678	3.49	1.02		
	3 일본	1,485	3.55	0.94		
	4 대만, 홍콩	550	3.80	0.97		
	5 베트남	2,736	3.79	0.92		
	6 필리핀	1,446	3.78	0.95		
	7 그 외 동남아시아	1,569	3.73	0.96		
	8 남부아시아	510	3.75	0.96		
	9 몽골, 러시아,	1,240	3.80	0.96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중앙아시아					
	10 미주, 유럽, 대양주	951	4.17	0.87		
	11 기타	151	3.85	1.00		
연령	29세 이하	4,035	3.88	0.93	109.82	0.000***
	30~39세	6,075	3.78	0.95		
	40~49세	4,190	3.58	0.99		
	50~59세	1,943	3.48	0.99		
	60세 이상	866	3.36	10.8		
학력	무학	197	3.37	1.00	62.71	0.000***
	초등학교	1,168	3.48	1.01		
	중학교	3,073	3.61	0.99		
	고등학교	6,917	3.66	0.97		
	대학교(4년제 미만)	2,126	3.71	0.96		
	대학교(4년제 이상)	3,001	3.89	0.96		
	대학원	627	4.15	0.86		
혼인상태	1 미혼	239	3.49	1.04	229.26	0.000***
	2 배우자 있음	15,561	3.76	0.96		
	3 사별	433	3.02	1.03		
	4 이혼, 별거	876	3.04	1.0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211	4.02	0.91	100.36	0.000***
	3~5년	3,033	3.90	0.94		
	6~10년	6,168	3.69	0.96		
	11~15년	3,687	3.57	1.00		
	16년 이상	3,010	3.55	1.00		

※ 주: * p <0.05, ** p <0.01, *** p <0.001

4.4.4 정책적 적응

4.4.4.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표Ⅳ-19〉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57.94%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37.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이용 경험은 가지고 있으나, 거주지역별로는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1.06%), 대만·홍콩(83.09%), 중국(한국계)(80.73%)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60세 이상’(88.22%), ‘50~59세’(73.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적응과 함께 정책적 정보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그에 따른 정책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76.08%), 무학(62.94%), 대학교(4년제 이상)(55.1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93.31%), 사별(72.29%)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이나 사별, 이혼·별거등 여성결혼이민자가 혼자된 상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평균이 7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미래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등을 얻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69.89%), ‘11~15년’(61.24%), ‘6~10년’(46.74%), ‘3~5년’(38.97%), ‘2년 이하’(35.0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거주기간과 정책적 적응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Ⅳ-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6,709	57.94	4,871	42.06	629.32 (.000)
	읍면	2,070	37.44	3,459	62.56	
출신국적	1 중국	2,257	59.50	1,536	40.50	3.42 (.000)
	2 중국(한국계)	2,162	80.73	516	19.27	
	3 일본	581	39.12	904	60.88	
	4 대만, 홍콩	457	83.09	93	16.91	
	5 베트남	717	26.21	2,019	73.79	
	6 필리핀	351	24.27	1,095	75.73	
	7 그 외 동남아시아	478	30.47	1,091	69.53	
	8 남부아시아	287	56.27	223	43.73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527	42.50	713	57.50	
	10 미주, 유럽, 대양주	866	91.06	85	8.94	
	11 기타	96	63.58	55	36.42	
연령	29세 이하	1,289	31.95	2,746	68.05	1.62 (.000)
	30~39세	2,807	46.21	3,268	53.79	
	40~49세	2,485	59.31	1,705	40.69	
	50~59세	1,434	73.80	509	26.20	
	60세 이상	764	88.22	102	11.78	
학력	무학	124	62.94	73	37.06	234.90 (.000)
	초등학교	605	51.80	563	48.20	
	중학교	1,483	48.26	1,590	51.74	
	고등학교	3,486	50.40	3,431	49.60	
	대학교(4년제 미만)	948	44.59	1,178	55.41	
	대학교(4년제 이상)	1,656	55.18	1,345	44.82	
	대학원	477	76.08	150	23.92	
혼인상태	1 미혼	223	93.31	16	6.69	387.96 (.000)
	2 배우자 있음	7,637	49.08	7,924	50.92	
	3 사별	313	72.29	120	27.71	
	4 이혼, 별거	606	69.18	270	30.82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425	35.09	786	64.91	853.41 (.000)
	3~5년	1,182	38.97	1,851	61.03	
	6~10년	2,883	46.74	3,285	53.26	
	11~15년	2,258	61.24	1,429	38.76	
	16년 이상	1,741	69.89	750	30.11	

N = 17,109

4.4.4.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표Ⅳ-20〉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86.84%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83.2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80% 이상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5.58%), 대만·홍콩(92.73%), 중국(한국계)(92.35%), 남부아시아(89.61%), 중국(87.35%), 일본(84.51%),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82.50%), 베트남(82.42%), 그 외 동남아시아(81.01%), 필리핀(73.2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86.4%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50~59세’(91.35%), ‘60세 이상’(89.72%), ‘40~49세’(87.23%), ‘30~39세’(84.31%), ‘29세 이하’(82.5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2.98%), 중학교(87.02%), 초등학교(87.59%), 무학(86.80%), 대학교(4년제 이상)(85.54%), 고등학교(84.95%), 대학교(4년제 미만)(83.11%)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97.07%), 이혼·별거(88.47%), 사별(87.30%), 배우자 있음(85.3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89.60%), ‘2년 이하’(87.28%), ‘11~15년’(86.79%), ‘3~5년’(84.24%), ‘6~10년’(83.7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로서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이용이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표Ⅳ-20〉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10,056	86.84	1,524	13.16	38.49 (.000)
	읍면	4,605	83.29	924	16.71	
출신국적	1 중국	3,313	87.35	480	12.65	458.89 (.000)
	2 중국(한국계)	2,473	92.35	205	7.65	
	3 일본	1,255	84.51	230	15.49	
	4 대만, 홍콩	510	92.73	40	7.27	
	5 베트남	2,255	82.42	481	17.58	
	6 필리핀	1,059	73.24	387	26.76	
	7 그 외 동남아시아	1,271	81.01	298	18.99	
	8 남부아시아	457	89.61	53	10.39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023	82.50	217	17.50	
	10 미주, 유럽, 대양주	909	95.58	42	4.42	
	11 기타	136	90.07	15	9.93	
연령	29세 이하	3,332	82.58	703	17.42	111.71 (.000)
	30~39세	2,122	84.31	953	15.69	
	40~49세	3,655	87.23	535	12.77	
	50~59세	1,775	91.35	168	8.65	
	60세 이상	777	89.72	89	10.28	
학력	무학	171	86.80	26	13.20	49.87 (.000)
	초등학교	1,023	87.59	145	12.41	
	중학교	2,674	87.02	399	12.98	
	고등학교	5,876	84.95	1,041	15.05	
	대학교(4년제 미만)	1,767	83.11	359	16.89	
	대학교(4년제 이상)	2,567	85.54	434	14.46	
	대학원	583	92.98	44	7.02	
혼인상태	1 미혼	232	97.07	7	2.93	33.46 (.000)
	2 배우자 있음	13,276	85.32	2,285	14.68	
	3 사별	378	87.30	55	12.70	
	4 이혼, 별거	775	88.47	101	11.5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057	87.28	154	12.72	61.43 (.000)
	3~5년	2,555	84.24	478	15.76	
	6~10년	5,165	83.74	1,003	16.26	
	11~15년	3,200	86.79	487	13.21	
	16년 이상	2,232	89.60	259	10.40	

N = 17,109

4.4.4.3 다누리콜센터 이용

〈표Ⅳ-21〉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93.36%가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93.2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90%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8.63%), 대만·홍콩(98.36%), 중국(한국계)(97.01%), 중국(94.46%), 일본(94.41%), 남부아시아(93.73%),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90.56%), 그 외 동남아시아(90.12%), 베트남(89.58%), 필리핀(89.4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60세 이상’(97.58%), ‘50~59세’(95.83%), ‘40~49세’(94.46%), ‘30~39세’(93.22%), ‘29세 이하’(90.16%)순으로 모두 90%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8.09%), 무학(96.45%), 초등학교(94.95%), 중학교(93.72%), 대학교(4년제 이상)(93.04%), 고등학교(92.73%), 대학교(4년제 미만)(92.4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99.16%), 사별(95.61%), 배우자 있음(93.24%), 이혼·별거(92.0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96.07%), ‘11~15년’(94.09%), ‘6~10년’(92.83%), 2년 이하’(91.58%), ‘3~5년’(91.4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높은 이용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표Ⅳ-21〉 다누리콜센터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10,811	93.36	769	6.64	0.09 (.762)
	읍면	5,155	93.24	374	6.76	
출신국적	1 중국	3,583	94.46	210	5.54	274.19 (.000)
	2 중국(한국계)	2,598	97.01	80	2.99	
	3 일본	1,402	94.41	83	5.59	
	4 대만, 홍콩	541	98.36	9	1.64	
	5 베트남	2,451	89.58	285	10.42	
	6 필리핀	1,293	89.42	153	10.58	
	7 그 외 동남아시아	1,414	90.12	155	9.88	
	8 남부아시아	478	93.73	32	6.27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123	90.56	117	9.44	
	10 미주, 유럽, 대양주	938	98.63	13	1.37	
	11 기타	145	96.03	6	3.97	
연령	29세 이하	3,638	90.16	397	9.84	118.26 (.000)
	30~39세	5,663	93.22	412	6.78	
	40~49세	3,958	94.46	232	5.54	
	50~59세	1,862	95.83	81	4.17	
	60세 이상	845	97.58	21	2.42	
학력	무학	190	96.45	7	3.55	38.40 (.000)
	초등학교	1,109	94.95	59	5.05	
	중학교	2,880	93.72	193	6.28	
	고등학교	6,414	92.73	503	7.27	
	대학교(4년제 미만)	1,966	92.47	160	7.53	
	대학교(4년제 이상)	2,792	93.04	209	6.96	
	대학원	615	98.09	12	1.91	
혼인상태	1 미혼	237	99.16	2	0.84	19.31 (.000)
	2 배우자 있음	14,509	93.24	1,052	6.76	
	3 사별	414	95.61	19	4.39	
	4 이혼, 별거	806	92.01	70	7.99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109	91.58	102	8.42	58.55 (.000)
	3~5년	2,773	91.43	260	8.57	
	6~10년	5,726	92.83	442	7.17	
	11~15년	3,469	94.09	218	5.91	
	16년 이상	2,393	96.07	98	3.93	

N = 17,109

4.4.4.4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용

〈표Ⅳ-22〉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27.31%가 주민센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30.8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낮은 비율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50.47%), 필리핀(33.68%), 베트남(33.19%), 그 외 동남아시아(31.23%), 대만·홍콩(31.09%),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29.27%), 남부아시아(29.22%), 중국(25.44%), 일본(23.97%), 중국(한국계)(16.7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34.52%), ‘30~39세’(28.86%), ‘40~49세’(25.08%), ‘50~59세’(24.09%), ‘60세 이상’(23.79%)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나이가 어릴수록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40.35%), 대학교(4년제 이상)(33.19%), 중학교(29.68%), 초등학교(28.94%), 무학(27.41%), 고등학교(25.72%), 대학교(4년제 미만)(25.3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29.71%), 미혼(22.18%), 이혼·별거(15.07%), 사별(14.5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2년 이하’(53.43%), ‘3~5년’(36.99%), ‘6~10년’(25.08%), ‘16년 이상’(23.89%), ‘11~15년’(23.0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결과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에 비해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인한 이용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Ⅳ-22〉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3,163	27.31	8,417	72.69	23.51 (.000)
	읍면	1,708	30.89	3,821	69.11	
출신국적	1 중국	965	25.44	2,828	74.56	498.71 (.000)
	2 중국(한국계)	449	16.77	2,229	83.23	
	3 일본	356	23.97	1,129	76.03	
	4 대만, 홍콩	171	31.09	379	68.91	
	5 베트남	908	33.19	1,828	66.81	
	6 필리핀	487	33.68	959	66.32	
	7 그 외 동남아시아	490	31.23	1,079	68.77	
	8 남부아시아	149	29.22	361	70.78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363	29.27	877	70.73	
	10 미주, 유럽, 대양주	480	50.47	471	49.53	
	11 기타	53	35.10	98	64.90	
연령	29세 이하	1,393	34.52	2,642	65.48	124.28 (.000)
	30~39세	1,753	28.86	4,322	71.14	
	40~49세	1,051	25.08	3,139	74.92	
	50~59세	468	24.09	1,475	75.91	
	60세 이상	206	23.79	660	76.21	
학력	무학	54	27.41	143	72.59	114.55 (.000)
	초등학교	338	28.94	830	71.06	
	중학교	912	29.68	2,161	70.32	
	고등학교	1,779	25.72	5,138	74.28	
	대학교(4년제 미만)	539	25.35	1,587	74.65	
	대학교(4년제 이상)	996	33.19	2,005	66.81	
	대학원	253	40.35	374	59.65	
혼인상태	1 미혼	53	22.18	186	77.82	134.83 (.000)
	2 배우자 있음	4,623	29.71	10,938	70.29	
	3 사별	63	14.55	370	85.45	
	4 이혼, 별거	132	15.07	744	84.9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647	53.43	564	46.57	588.92 (.000)
	3~5년	1,122	36.99	1,911	63.01	
	6~10년	1,547	25.08	4,621	74.92	
	11~15년	850	23.05	2,837	76.95	
	16년 이상	595	23.89	1,896	76.11	

N = 17,109

4.4.4.5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용

〈표Ⅳ-23〉은 정부지원여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경험 한적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86.4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85.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여성센터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8.00%), 대만·홍콩(93.45%), 남부아시아(92.35%), 중국(한국계)(90.96%), 베트남(86.66%), 중국(85.45%), 그 외 동남아시아(83.43%),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80.73%), 일본(79.19%), 필리핀(79.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60세 이상’(94.69%), ‘50~59세’(88.68%), ‘29세 이하’(86.64%), ‘40~49세’(85.32%), ‘30~39세’(84.3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3.30%), 초등학교(90.33%), 무학(89.85%), 중학교(88.06%), 대학교(4년제 이상)(86.47%), 고등학교(85.17%), 대학교(4년제 미만)(81.2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96.64%), 사별(90.30%), 이혼·별거(88.13%), 배우자 있음(85.7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2년 이하’(92.57%), ‘3~5년’(88.76%), ‘16년 이상’(87.64%), ‘11~15년’(84.89%), ‘6~10년’(83.7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센터는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의 평생교육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위해 그 이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Ⅳ-23〉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10,007	86.42	1,573	13.58	2.26 (.133)
	읍면	4,731	85.57	798	14.43	
출신국적	1 중국	3,241	85.45	552	14.55	376.78 (.000)
	2 중국(한국계)	2,436	90.96	242	9.04	
	3 일본	1,176	79.19	309	20.81	
	4 대만, 홍콩	514	93.45	36	6.55	
	5 베트남	2,371	86.66	365	13.34	
	6 필리핀	1,144	79.11	302	20.89	
	7 그 외 동남아시아	1,309	83.43	260	16.57	
	8 남부아시아	471	92.35	39	7.65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001	80.73	239	19.27	
	10 미주, 유럽, 대양주	937	98.00	19	2.00	
	11 기타	143	94.70	8	5.30	
연령	29세 이하	3,496	86.64	539	13.36	83.07 (.000)
	30~39세	5,124	84.35	951	15.65	
	40~49세	3,575	85.32	615	14.68	
	50~59세	1,723	88.68	220	11.32	
	60세 이상	820	94.69	46	5.31	
학력	무학	177	89.85	20	10.15	103.48 (.000)
	초등학교	1,055	90.33	113	9.67	
	중학교	2,706	88.06	367	11.94	
	고등학교	5,892	85.17	1,025	14.82	
	대학교(4년제 미만)	1,728	81.28	398	18.72	
	대학교(4년제 이상)	2,595	86.47	406	13.53	
혼인상태	1 미혼	585	93.30	42	6.70	33.25 (.000)
	2 배우자 있음	231	96.65	8	3.35	
	3 사별	13,344	85.75	2,217	14.25	
	4 이혼, 별거	391	90.30	42	9.70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772	88.13	104	11.87	97.49 (.000)
	3~5년	1,121	92.57	90	7.43	
	6~10년	2,692	88.76	341	11.24	
	11~15년	5,168	83.79	1,000	16.21	
	16년 이상	3,130	84.89	557	15.11	
		2,183	87.64	308	12.36	

N = 17,109

4.4.4.6 고용센터 이용

〈표Ⅳ-24〉은 고용센터를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75.63%가 고용센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83.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70%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3.59%), 베트남(84.83%), 대만·홍콩(82.36%), 그 외 동남아시아(80.82%), 일본(80.34%), 필리핀(77.52%),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75.65%), 중국(75.19%), 남부아시아(69.41%), 중국(한국계)(69.3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60세 이상’(85.10%), ‘29세 이하’(83.49%), ‘30~39세’(78.39%), ‘40~49세’(73.51%), ‘50~59세’(73.3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0.11%), 초등학교(85.10%), 무학(83.25%), 중학교(80.51%), 대학교(4년제 이상)(79.47%), 고등학교(75.41%), 대학교(4년제 미만)(74.0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78.70%), 사별(78.29%), 미혼(76.57%), 이혼·별거(69.0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2년 이하’(93.15%), ‘3~5년’(86.02%), ‘6~10년’(76.22%), ‘16년 이상’(76.19%), ‘11~15년’(72.3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센터 또한 취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앞서 논의한 여성센터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표Ⅳ-24〉 고용센터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8,758	75.63	2,822	24.37	134.71 (.000)
	읍면	4,615	83.47	914	16.53	
출신국적	1 중국	2,852	75.19	941	24.81	393.77 (.000)
	2 중국(한국계)	1,856	69.31	822	30.69	
	3 일본	1,193	80.34	292	19.66	
	4 대만, 홍콩	453	82.36	97	17.64	
	5 베트남	2,321	84.83	415	15.17	
	6 필리핀	1,121	77.52	325	22.48	
	7 그 외 동남아시아	1,268	80.82	301	19.18	
	8 남부아시아	354	69.41	156	30.59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938	75.65	302	24.35	
	10 미주, 유럽, 대양주	890	93.59	61	6.41	
	11 기타	127	84.11	24	15.89	
연령	29세 이하	3,369	83.49	666	16.51	171.48 (.000)
	30~39세	4,762	78.39	1,313	21.61	
	40~49세	3,080	73.51	1,110	26.49	
	50~59세	1,425	73.34	518	26.66	
	60세 이상	737	85.10	129	14.90	
학력	무학	164	83.25	33	16.75	152.79 (.000)
	초등학교	994	85.10	174	14.90	
	중학교	2,474	80.51	599	19.49	
	고등학교	5,216	75.41	1,701	24.59	
	대학교(4년제 미만)	1,575	74.08	551	25.92	
	대학교(4년제 이상)	2,385	79.47	616	20.53	
	대학원	565	90.11	62	9.89	
혼인상태	1 미혼	183	76.57	56	23.43	45.44 (.000)
	2 배우자 있음	12,246	78.70	3,315	21.30	
	3 사별	339	78.29	94	21.71	
	4 이혼, 별거	605	69.06	271	30.94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128	93.15	83	6.85	364.49 (.000)
	3~5년	2,609	86.02	424	13.98	
	6~10년	4,701	76.22	1,467	23.78	
	11~15년	2,666	72.31	1,021	27.69	
	16년 이상	1,898	76.19	593	23.81	

N = 17,109

4.4.4.7 사회복지관 이용

〈표Ⅳ-25〉은 사회복지관을 경험 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정책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82.83%가 사회복지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단위에서도 81.4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80%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미주·유럽·대양주(95.48%), 대만·홍콩(88.00%), 중국(한국계)(87.27%), 남부아시아(86.67%), 중국(82.28%), 베트남(81.18%),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78.31%), 일본(78.11%), 그 외 동남아시아(77.69%), 필리핀(75.9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50~59세’(85.59%), ‘40~49세’(82.67%), ‘29세 이하’(82.65%), ‘30~39세’(81.78%), ‘60세 이상’(76.7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91.55%), 대학교(4년제 이상)(84.24%), 중학교(83.73%), 고등학교(81.08%), 초등학교(81.08%), 대학교(4년제 미만)(80.34%), 무학(79.7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93.31%), 배우자 있음(82.56%), 이혼·별거(82.19%), 사별(70.4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2년 이하’(88.77%), ‘3~5년’(83.75%), ‘16년 이상’(82.70%), ‘11~15년’(82.40%), ‘6~10년’(80.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및 지역사회조직 등의 사회서비스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부족한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해줌으로서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서 그 이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Ⅳ-25〉 사회복지관 이용

(단위: 명, %)

구분	범주	있음		없음		χ^2 (p-value)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9,592	82.83	1,988	17.17	4.97 (.026)
	읍면	4,503	81.44	1,026	18.56	
출신국적	1 중국	3,121	82.28	672	17.72	279.82 (.000)
	2 중국(한국계)	2,337	87.27	341	12.73	
	3 일본	1,160	78.11	325	21.89	
	4 대만, 홍콩	484	88.00	66	12.00	
	5 베트남	2,221	81.18	515	18.82	
	6 필리핀	1,098	75.93	348	24.07	
	7 그 외 동남아시아	1,219	77.69	350	22.31	
	8 남부아시아	442	86.67	68	13.33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971	78.31	269	21.69	
	10 미주, 유럽, 대양주	908	95.48	43	4.52	
	11 기타	134	88.74	17	11.26	
연령	29세 이하	3,335	82.65	700	17.35	34.40 (.000)
	30~39세	4,968	81.78	1,107	18.22	
	40~49세	3,464	82.67	726	17.33	
	50~59세	1,663	85.59	280	14.41	
	60세 이상	665	76.79	201	23.21	
학력	무학	157	79.70	40	20.30	63.85 (.000)
	초등학교	947	81.08	221	18.92	
	중학교	2,573	83.73	500	16.27	
	고등학교	5,608	81.08	1,309	18.92	
	대학교(4년제 미만)	1,708	80.34	418	19.66	
	대학교(4년제 이상)	2,528	84.24	473	15.76	
	대학원	574	91.55	53	8.45	
혼인상태	1 미혼	223	93.31	16	6.69	62.56 (.000)
	2 배우자 있음	12,847	82.56	2,714	17.44	
	3 사별	305	70.44	128	29.56	
	4 이혼, 별거	720	82.19	156	17.81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075	88.77	136	11.23	53.57 (.000)
	3~5년	2,540	83.75	493	16.25	
	6~10년	4,964	80.48	1,204	19.52	
	11~15년	3,038	82.40	649	17.60	
	16년 이상	2,060	82.70	431	17.30	

N = 17,109

4.4.4.8 정책적 적응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적 적응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Ⅳ-26>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수 17,109중 최소값 ‘0’ ~ 최대값 ‘7’의 평균은 1.94, 표준편차 1.45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공공기관 등의 이용 경험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난 수치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아주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Ⅳ-26> 정책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책적 적응	17,109	1.94	1.45	0	7

N = 17,109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책적 적응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27>과 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출신국적,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평균은 2.04로 비교적 행정구역상 작은 동 단위의 거주지역 평균 1.89보다 높게 나타나, 정책적 적응은 동 단위 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의 평균은 필리핀 2.46, 동남아시아 2.25, 일본 2.20,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2.20, 베트남 2.15, 중국 1.90, 남부아시아 1.82, 중국(한국계) 1.65, 대만·홍콩 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주·유럽·대양주가 평균 0.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29세 이하’가 2.08, ‘30~39세’가 2.02, ‘40~49세’가 1.92, ‘50~59세’가 1.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은 대학교(4년제 미만) 2.18, 고등학교 2.04, 중학교 1.89, 대학교(4년제 이상) 1.82, 초등학교 1.80, 무학 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이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평균은 배우자 있음이 1.95, 이혼, 별거가 1.95, 사별 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별 평균은 ‘6~10년’이 2.11, ‘11~15년’이 1.95, ‘16년 이상’이 1.78, ‘3~5년’이 1.8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하’가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27〉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정책적 적응

(단위: 명, %)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거주지역	동	11,580	1.89	1.86	-6.29	0.000***
	읍면	5,529	2.04	2.00		
출신국적	1 중국	3,793	1.90	1.44	134.36	0.000***
	2 중국(한국계)	2,678	1.65	1.20		
	3 일본	1,485	2.20	1.45		
	4 대만, 홍콩	550	1.30	1.16		
	5 베트남	2,736	2.15	1.39		
	6 필리핀	1,446	2.46	1.68		
	7 그 외 동남아시아	1,569	2.25	1.52		
	8 남부아시아	510	1.82	1.34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240	2.20	1.59		
	10 미주, 유럽, 대양주	951	0.77	0.86		
	11 기타	151	1.47	1.29		
연령	29세 이하	4,035	2.08	1.42	57.30	0.000***
	30~39세	6,075	2.02	1.51		
	40~49세	4,190	1.92	1.48		
	50~59세	1,943	1.67	1.31		
	60세 이상	866	1.44	1.16		
학력	무학	197	1.73	1.36	51.65	0.000***
	초등학교	1,168	1.80	1.26		
	중학교	3,073	1.89	1.33		
	고등학교	6,917	2.04	1.45		
	대학교(4년제 미만)	2,126	2.18	1.55		
	대학교(4년제 이상)	3,001	1.82	1.57		
	대학원	627	1.17	1.17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혼인상태	1 미혼	239	1.21	0.92	20.29	0.000***
	2 배우자 있음	15,561	1.95	1.46		
	3 사별	433	1.91	1.36		
	4 이혼, 별거	876	1.95	1.43		
한국 거주기간	2년 이하	1,211	1.58	1.25	48.66	0.000***
	3~5년	3,033	1.89	1.37		
	6~10년	6,168	2.11	1.50		
	11~15년	3,687	1.95	1.50		
	16년 이상	3,010	1.78	1.40		

※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4.5 가정적 적응(배우자와의 만족도)

〈표Ⅳ-28〉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질문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으로, 개인의 가정적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 동단위에서는 27.17%가 보통이었고, 28.52%가 약간 만족, 39.18%가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67.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단위에서도 27.39%가 보통, 31.74%가 약간 만족, 34.83%가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 66.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 적응에 대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약간 만족이나 매우 만족의 긍정적 답변은 오름차순으로, 베트남(62.59%), 일본(63.45%), 중국(65.47%), 중국(한국계)(65.63%), 그 외 동남아시아(66.56%), 필리핀(68.17%),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68.34%), 남부아시아(70.96%), 대만·홍콩(72.69%), 미주·유럽·대양주(88.9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만족못함과 별로만족못함의 부정적 답변은 내림차순으로, 일본(8.13%), 베트남(6.28%), 중국(6.10%), 그 외 동남아시아(5.45%), 남부아시아(5.40%), 필리핀(5.16%), 중국(한국계)(4.50%), 대만·홍콩(4.20%),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3.82%), 미주·유럽·대양주(1.92%)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9세 이하’(39.62%), ‘30~39세’(40.11%), ‘40~49세’(35.06%), ‘50~59세’(32.16%), ‘60세 이상’(34.61%)으로 연령별 전 구간에서 매우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대학원(61.77%)은 매우 만족이 제일 높았고, 대학교(4년제 이상)(47.61%)도 매우 만족이 제일 높았으며, 대학교(4년제 미만)(37.69%)또한 매우 만족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35.01%)는 매우 만족이 제일 높았으며, 중학교(32.52%)는 보통이 제일 높았고, 초등학교(33.37%)또한 보통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32.19%)은 매우 만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33.12%), ‘11~15년’(34.76%), ‘6~10년’(36.28%), ‘3~5년’(42.59%), ‘2년 이하’(50.29%)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별 전구간이 매우 만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매우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표Ⅳ-28〉 가정적 적응(배우자와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거주지역	동	4,044	2,944	2,804	417	112	36.42 (.000)
		39.18	28.52	27.17	4.04	1.09	
	읍면	1,825	1,663	1,435	260	57	
		34.83	31.74	27.39	4.96	1.09	
출신국적	1 중국	1,233	926	938	142	59	508.69 (.000)
		37.39	28.08	28.44	4.31	1.79	
	2 중국(한국계)	835	551	631	80	15	
		39.54	26.09	29.88	3.79	0.71	
	3 일본	454	459	409	90	27	
		31.55	31.90	28.42	6.25	1.88	
	4 대만, 홍콩	214	132	110	18	2	
		44.96	27.73	23.11	3.78	0.42	
	5 베트남	822	831	822	143	23	
		31.12	31.47	31.12	5.41	0.87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6 필리핀	508	417	362	57	13	
		37.44	30.73	26.68	4.20	0.96	
	7 그 외 동남아시아	529	484	426	72	11	
		34.76	31.80	27.99	4.73	0.72	
	8 남부아시아	194	148	114	21	5	
		40.25	30.71	23.65	4.36	1.04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406	382	321	38	6	
		35.21	33.13	27.84	3.30	0.52	
	10 미주, 유럽, 대양주	603	229	85	12	6	
		64.49	24.49	9.09	1.28	0.64	
	11 기타	71	48	21	4	2	
		48.63	32.88	14.38	2.74	1.37	
연령	29세 이하	1,514	1,193	941	143	30	112.81 (.000)
		39.62	31.22	24.63	3.74	0.79	
	30~39세	2,296	1,677	1,470	231	50	
		40.11	29.30	25.68	4.04	0.87	
	40~49세	1,323	1,065	1,118	207	60	
		35.06	28.23	29.63	5.49	1.59	
	50~59세	528	490	525	76	23	
		32.16	29.84	31.97	4.63	1.40	
	60세 이상	208	182	185	20	6	
		34.61	30.28	30.78	3.33	1.00	
학력	무학	47	42	44	12	1	456.64 (.000)
		32.19	28.77	30.14	8.22	0.68	
	초등학교	280	289	327	71	13	
		28.57	29.49	33.37	7.24	1.33	
	중학교	896	827	907	121	38	
		32.13	29.65	32.52	4.34	1.36	
	고등학교	2,184	1,862	1,829	290	73	
		35.01	29.85	29.32	4.65	1.17	
	대학교(4년제 미만)	750	619	516	81	24	
		37.69	31.11	25.93	4.07	1.21	
	대학교(4년제 이상)	1,342	821	549	91	16	220.50 (.000)
		47.61	29.12	19.47	3.23	0.57	
	대학원	370	147	67	11	4	
		61.77	24.54	11.19	1.84	0.67	
	2년 이하	603	343	219	28	6	
		50.29	28.61	18.27	2.34	0.50	
	3~5년	1,251	890	627	95	29	
		42.59	30.30	22.88	3.23	0.99	
	6~10년	2,067	1,726	1,580	274	51	
		36.28	30.29	27.73	4.81	0.90	
한국 거주기간	11~15년	1,087	905	946	142	47	

구분	범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χ^2 (p-value)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6년 이상	34.76	28.94	30.25	4.54	1.50	
		716	609	690	115	32	
		33.12	28.17	31.91	5.32	1.48	

N = 17,109

4.4.5.1 가정적 적응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적 적응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Ⅳ-29>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수 15,561중 최소값 '1' ~ 최대값 '5'의 평균은 3.98, 표준편차 0.9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배우자)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Ⅳ-29> 가정적 적응과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정적 적응	15,561	3.98	0.95	1	5

N = 15,56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정적 적응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30>과 같이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출신국적, 연령, 학력, 혼인상태, 한국 거주기간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 단위의 평균은 3.94로 비교적 행정구역상 작은 동 단위의 거주지역 평균 4.00보다 낮게 나타나, 가정적 적응은 읍·면 단위 보다 동 단위의 거주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의 평균은 미주·유럽·대양주가 4.50, 기타가 4.24, 대만·홍콩이 4.13, 남부아시아 4.04, 중국(한국계) 3.99, 필리핀 3.99, 몽골·러시아·중앙아

시아 3.99, 동남아시아 3.95, 중국 3.94, 베트남 3.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이 평균 3.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은 '29세 이하'가 4.05, '30~39세'가 4.03, '60세 이상'이 3.94, '40~49세'가 3.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59세'가 3.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은 대학원이 4.44, 대학교(4년제 이상) 4.19, 대학교(4년제 미만) 4.00, 고등학교 3.92, 중학교 3.86, 무학 3.83 순으로 높게 나왔고, 초등학교 3.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별 평균은 '2년 이하'가 4.25, '3~5년'이 4.10, '6~10년'이 3.96, '11~15년'이 3.9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6년 이상'이 3.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Ⅳ-30〉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가정적 적응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거주지역	동	10,321	4.00	3.98	3.94	0.000***
	읍면	5,240	3.94	3.91		
출신국적	1 중국	3,298	3.94	0.99	38.82	0.000***
	2 중국(한국계)	2,112	3.99	0.95		
	3 일본	1,439	3.84	0.99		
	4 대만, 홍콩	476	4.13	0.92		
	5 베트남	2,641	3.86	0.94		
	6 필리핀	1,357	3.99	0.94		
	7 그 외 동남아시아	1,522	3.95	0.93		
	8 남부아시아	482	4.04	0.95		
	9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153	3.99	0.89		
	10 미주, 유럽, 대양주	935	4.50	0.76		
	11 기타	146	4.24	0.89		
연령	29세 이하	3,821	4.05	0.92	23.42	0.000***
	30~39세	5,724	4.03	0.94		
	40~49세	3,773	3.89	0.99		
	50~59세	1,642	3.86	0.96		
	60세 이상	601	3.94	0.93		
학력	무학	146	3.83	0.99	68.06	0.000***
	초등학교	980	3.76	0.98		
	중학교	2,789	3.86	0.96		
	고등학교	6,238	3.92	0.96		
	대학교(4년제 미만)	1,990	4.00	0.95		

구분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한국 거주기간	대학교(4년제 이상)	2,819	4.19	0.90	51.51	0.000***
	대학원	599	4.44	0.81		
	2년 이하	1,199	4.25	0.87		
	3~5년	2,937	4.10	0.92		
	6~10년	5,698	3.96	0.95		
	11~15년	3,127	3.90	0.97		
	16년 이상	2,600	3.86	0.98		

※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5 주요 변수간의 관계 분석

4.5.1 경제적 적응

먼저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분석은<표Ⅳ-31>와 같다.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총 응답자수 N : 17,109중 ‘참가’ 10,512(61.4%), 평균 3.09, 표준편차 1.90, ‘미참가’ 6,597(38.6%), 평균 2.53 표준편차 1.77로 참가가 미참가보다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1〉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분석

경제활동 참여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미참가	6,597	2.53	1.77	-19.19	0.000***
참가	10,512	3.09	1.90		

N = 17,109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경제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분석은<표Ⅳ-32>와 같다.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총 응답자수 N : 17,109중 ‘참가’ 10,512(61.4%), 평균 1.11, 표준편차 1.68, ‘미참가’ 6,597(38.6%), 평균 2.13 표준편차 1.60, 로 참가가 미참가보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Ⅳ-32〉 경제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

경제활동 참가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미참가	6,597	2.13	1.60	0.91	0.36
참가	10,512	2.11	1.68		

N = 17,109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5.2 정치적 적응

먼저 정치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분석은〈표Ⅳ-33〉와 같다. 정당 참가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총 응답자수 N : 17,109중 ‘희망’ 431(2.5%), 평균 3.45, 표준편차 1.98, ‘비희망’ 16,678(97.5%), 평균 2.86 표준편차 1.87로 희망이 비희망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3〉 정치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분석

정당 참가 희망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비희망	16,678	2.86	1.87	-6.42	0.000***
희망	431	3.45	1.98		

N = 17,109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정치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분석은〈표Ⅳ-34〉와 같다. 정당 참가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총 응답자수 N : 17,109중 ‘희망’ 431(2.5%), 평균 3.90, 표준편차 1.99, ‘비희망’ 16,678(97.5%), 평균 2.07 표준편차 1.61로 희망이 비희망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4〉 정치적 적응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

정당 참가 희망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비희망	16,678	2.07	1.61	-22.96	0.000***
희망	431	3.90	1.99		

N = 17,109 자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5.3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의 상관관계는〈표Ⅳ-35〉와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11$, $p<.001$). 또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적응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5$, $p<.001$), 사회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6$, $p<.001$).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참여와 사회적응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표Ⅳ-35〉 사회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상관관계(r)		
	1.사회적 적응	2.사회적 네트워크	3.사회참여
1.사회적 적응	1.00		
2.사회적 네트워크	0.11***	1.00	
3.사회참여	0.05***	0.26***	1.00

※ 주: N=17,109

* $p < 0.05$, ** $p < 0.01$, *** $p < 0.001$

4.5.4 정책적 적응

정책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의 상관관계는〈표Ⅳ-36〉와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책적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08$, $p<.001$). 또한 사회참여와 정책적 적응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4$, $p<.001$), 사회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6$, $p<.001$).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참여와 정책적 적응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표Ⅳ-36〉 정책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상관관계(r)		
	1.정책적 적응	2.사회적 네트워크	3.사회참여
1.정책적 적응	1.00		
2.사회적 네트워크	0.08***	1.00	
3.사회참여	0.24***	0.26***	1.00

※ 주: N=17,109

* $p < 0.05$, ** $p < 0.01$, *** $p < 0.001$

4.5.5 가정적 적응

가정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의 상관관계는〈표Ⅳ-37〉와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가정적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08$, $p<.001$). 반면 사회참여와 가정적 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6$, $p<.001$).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정적 적응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37〉 가정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상관관계(r)		
	1.가정적 적응	2.사회적 네트워크	3.사회참여
1.가정적 적응	1.00		
2.사회적 네트워크	0.08***	1.00	
3.사회참여	0.01	0.26***	1.00

※ 주: N=17,109

* p <0.05, ** p <0.01, *** p <0.001

V. 결 론

5.1 요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적응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로서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에 이주한 이주민들 중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해외 국적의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대한민국 영토 내로 삶의 기반을 옮겨 이주해 들어 온 사람을 말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인 거주지역, 출신국적,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국내거주기간, 이민정책 관련서비스 이용경험 등 특성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적응의 다양성과 실태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 보다 작은 단위인 ‘동’ 단위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보다는 주로 농업중심의 중·소 지방도시에서 농촌총각 즉, 미혼 남성의 해외 결혼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농업의 특성상 ‘읍·면’ 단위의 인구 밀집지역 보다는, 토지와 경작을 위한 공간과 비용 및 활용도 면에서 ‘동’단위의 구성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또한 ‘동’단위 지역의 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중국(한국계),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잘사는 우리나라로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30’대가 57%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거주기간으로는 ‘6~15년’이 57%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

민을 결정하기 까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환경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결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70%이상이 어려움을 상담할 대상이나 여가활동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차이분석결과, 일본, 대만·홍콩, 미주·유럽·대양주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20대~40대’가 ‘50대~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몸이 아플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될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동’ 단위 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동’ 단위의 인구 비율이 높은 점과 보다 작은 마을에서 이웃과의 친밀감이 조금 더 활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신국적으로는 일본, 미주·유럽·대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국보다 선진국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출신국적이 보다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이상)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도 ‘16년 이상’이 가장 활발하고 ‘2년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일정기간이상 한국생활에 적응을 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도 활발해 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참여에 관한 결과로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이상이 모국인 친구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배우자 있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 사별, 이혼·별거는 모국인 친구 모임이 ‘없음’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음’이 ‘배우자가 없음’ 보다 높은 것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 모임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참여는 동단위와 읍면 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연령대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60대’가 ‘20대~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16년 이상’, ‘11~15년’, ‘6~10년’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 활동 참여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참여는 동단위와 읍면 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망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단체 활동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참여는 동단위와 읍면 단위 모두 사회적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참여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 보다 ‘동’ 단위의 거주지역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참여라는 점에서 비교적 단체나 집단 또는 모임의 활동이나 행사의 홍보 및 참여가 이루어지기 수월한 중심지역, 즉 유동인구, 수용인원, 교통, 행사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동’단위 보다는 ‘읍·면’단위의 보다 넓은 행정구역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출신국적으로는 일본, 필리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거주기간도 ‘16년 이상’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 이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의 한국생활에 적응을 함으로써 사회적 참여 활동도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적응으로써 먼저 경제적 적응에 관한 결과로 경제 활동 참여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60%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 전체 평균 59%이상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제적 적응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와 ‘동’ 단위의 거주지역상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지역 거주가 많아 도시지역의 이주민처럼 특정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활동으로써 농업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출신국적으로는 미주·유럽·대양주, 남부아시아, 중국, 대만·홍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와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국보다 선진국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출신 국적이 보다 경제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이상)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이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적응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사회적 참여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상 한국생활에 적응을 함으로써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적응도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치적 적응에 관한 결과로 정당, 노동조합 참여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정당, 노동조합 등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

적 관심도가 높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별 차이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정치적 적응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와 ‘동’ 단위의 거주지역상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촌지역 거주가 많고 경제적으로 농업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나,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출신국적으로는 미주·유럽·대양주, 필리핀, 남부아시아, 대만·홍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국보다 선진국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출신 국적이 보다 정치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교(4년제 미만)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정치적 적응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거주기간 ‘2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6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정치적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적 적응에 관한 결과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55~59% 이상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적응에 대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회적 적응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읍·면’ 단위와 ‘동’ 단위의 거주지역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구의 비율이나, 동네 이웃과의 친밀감, ‘읍·면’ 단위의 사회적 참여활동 등과 같이 사회적 적응은 각각의 요인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으로는 미주·유럽·대양주, 대만·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한국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국보다 선진국이거나 비슷한 수준의 출신 국적이 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이상)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

학이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거주기간별로 거주기간 2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6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책적 적응에 관한 결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이용 경험은 가지고 있으나, 읍면단위가 동단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적응과 함께 정책적 정보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그에 따른 정책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분석결과 미혼이나 사별, 이혼·별거 등 여성결혼이민자가 혼자된 상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평균이 7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미래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등을 얻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거주기간별 차이분석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거주기간과 정책적 적응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 단위 모두 80% 이상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며,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로서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이용이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다누리콜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90%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높은 이용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낮은 비율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낮은 결과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에 비해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관한 제 공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인한 이용의 수준이 낮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 단위 모두 여성센터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센터는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의 평생교육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기관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 동의 참여를 위해 그 이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고용센터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 두 70%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 또한 취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앞서 논의한 정부지원여성센터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 이용에 관한 문항의 답변으로 거주지역별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80%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및 지역사회조직 등의 사회서비스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사업 을 전개하는 기관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부족한 정보에 대하 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해줌으로서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부족한 부 분을 채워줌으로 인하여 그 이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정책적 적응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동’ 단위 보다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참여 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지원여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정부지원센터가 홍보나 참여가 이루어지기 수월한 중심지역, 즉 유동인구, 수용인원, 교통, 행 사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동’단위 보다는 ‘읍·면’단위의 보다 넓은 행정구역

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출신국적으로는 필리핀, 동남아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홍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이주한 이주민이, 비슷한 수준이나 선진국 출신 이주민 보다 정책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4년제 미만), 고등학교, 중학교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출신으로 고학력자 일수록 정책적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이 주전 본국 간의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이기도 하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 ‘6~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가정적 적응에 관한 결과로 배우자와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의 답변에 대해 거주지역별 6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단위와 읍면단위 모두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 적응에 대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가정적 적응의 차이분석은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동’ 단위와 ‘읍·면’ 단위의 거주지역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출신국적으로는 미주·유럽·대양주, 대만·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선진국 출신 이주민이 가정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교(4년제 미만)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가정적 적응에 있어서 적응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 ‘2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6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와의 관계분석에서는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경제적 적

응과 사회참여간의 관계는 그 영향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치적 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와의 관계분석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정치적 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사회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정책적 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가정적 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참여와 가정적 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여성결혼이민자가 새로운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참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실태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다각적인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관행적인 시각과 접근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인 적응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일본, 미주·유럽·대양주등의 선진국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교육이나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대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소영(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높은 학력수준에 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경제, 문화, 사회, 정치등 사회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회화 교육과 각 지역 사회의 특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하고 책임질 교육 전문인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40대’가 ‘50대~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령별 20~30대가 5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이소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대별 수준에 관해서는 ‘20대~40대’가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50대~60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형성 프로그램의 홍보와 적극적 참여의 종용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미교실, 운동 및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참여부문은 모국인 친구 모임에 비해 지역주민모임이나 민간단체모임 등은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김정훈(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도 ‘40대~6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20대~30대’와 거주기간별 ‘2년~5년’에 비해 연령별 ‘40대~60대’와 거주기간별 ‘16년 이상’, ‘11~15년’, ‘6~10년’등의 오래된 순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오랜 시간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친분이 형성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이 적거나 이주기간이 짧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지역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장려하여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모색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적응부문은 먼저 경제적으로는 6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별거, 미혼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우자가 없는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한 가족 증가나 체류기간 증가 및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향후 취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취업촉진을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민 당사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서광석, 2011)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는 연구결과(양인숙 외, 2010)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자 또는 모녀가정의 경제적 생활과 자립을 위해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부문에서는 2%대의 매우 저조한 참여도가 나왔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도가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결혼이민자 6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외국인 이민자로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부문에서는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응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그 외의 적응관련 프로그램은 받아 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최운선, 2007)와는 상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시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부문에 관해서는 최초 이주시 법무부에서 교육을 통한 홍보 효과와 거주지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착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출신국가별·연령별 맞춤형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김규식·소진광, 2016)처럼 수요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이 부족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사회적 부문은 5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대만·홍콩, 미주·유럽·대양주 등의 선진국과, 대학원, 대학교 등의 고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적 부문에서도 67%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앞선 결론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이민자 모국간의 사회적 발달의 차이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확대 및 접근성과 수용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정구역상 ‘동’단위의 작은 마을에도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및 문화교육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빠른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의 확대는 생활의 안정과 그로인한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적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 교육과정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모형은 ‘차별배제모형’으로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일반적인 가정에 동화시키려는 융합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수용과 사회적 공존의 모색 및 정책변화의 노력을 통해 ‘다문화모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적응을 넘어서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로, 사회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실태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 변수의 활용이 용의치 않았으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면접 및 인터뷰 등의 심층 분석 자료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및 지역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요인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한 표준화된 도구나 척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본 연구에서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다각적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가기산. (1996).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전산화에 대한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분석학회』, 제6권, 111-145.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경훈, 김보은. (20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한국행정논집』, Vol.24 No.2.
- 고용노동부. (2011). 『북한 이탈주민의 일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강기정. (200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14 No.3.
- 강근복. (2007). 참여정책분석의 개념적 특성과 과정. 『지방정부연구』, Vol.11 No.3.
- 강민희. (2009). 장애인의 사회 및 여가활용 실태. 『보건복지포럼』, 153(7), 25-36.
- 강신욱. (2003). 생활체육참가자의 운동중독과 자기의식 및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Vol.42 No.5.
- 강현옥. (2011).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미정. (2015).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현근. (2002).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Vol.8 No.4.
- 곽호근. (2007).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응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지현. (2012). 『통근시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

-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장원. (1999). 『한국방송 정책 환경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금혜성, 임지혜. (2010).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다문화사회연구』, Vol.3 No.2.
- 김규식. (2017).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및 지원정책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규식, 소진광. (2017).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3호, 205-238.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 사회 만족도.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경아, 이정우. (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8 No.2.
-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수. (2003). 지방행정 변화와 시민참여 발전 모색. 『국가정책연구』, Vol.17 No.1.
-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9집 3호, 53-78.
- 김도희. (201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1.
- 김미령. (2004).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Vol.2004 No.3.
- 김민정. (20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 경험』.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정, 김성국. (2004). 프로테제 개인의 성격이 멘토링 연결망 특성에 미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14(1), 143-181.
- 김묵한, 박행웅, 오은주. (2003). [옮김]. 마뉴엘 카스텔 지음 :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 김문조. (1987). 『사회망 분석의 기본원리 및 절차』,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501-504.
- 김보영. (2004). [옮김]. 피터 스토거 지음 : 『국제이주』, 이소출판사.
- 김병록. (2011).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9(1), 1-19.
- 김병섭, 김영래, 서순탁. (2012). 문화재의 관광적 활용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5(4), 175-207.
- 김성문. (2015). 다문화인문학의 문학적 실천. 『다문화콘텐츠연구』, Vol.19.
- 김수연. (201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권. (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건 복지포럼』, Vol.165.
- 김성건. (2009).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사회 학대회 논문집』, Vol.2009 No.1.
- 김성훈. (2003). 취업자의 사회연결망 활용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노동경 제논집』, 26(3).
- 김순연. (2013).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관계적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 이선희. (2013).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민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Vol.40.
- 김이선, 민무숙, 김경미, 주유선. (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인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Vol.17 No.1.
- 김은실. (2012).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 및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 서민정. (2013). 여가활동유형이 여가만족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Vol.15 No.3.
- 김영근, 조무현. (201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3.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1.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Vol.13.
- 김영덕, 서성혁, 이기봉, 박일혁. (2010).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체육활동참여정도, 삶의 질의 예측 모형 검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18 No.2.
- 김영하. (2003).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15.
- 김용우, 장인봉. (2009). 참여적 정책분석(PPA) 이론적·실제적 함의와 전제조건. 『한국정책연구』, Vol.9 No.1.
- 김용신. (2011).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정치사회화 이론의 재해석과 방법적 지향.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9 No.1.
- 김용자. (1984). 우리나라 주부의 자원봉사 참여 판별에 관한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23. 233-255.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이론 : 사회적 관계와 효과』 서울 . 박영사.
- 김유경. (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175.
- 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Vol.165.
- 김오남.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18-3.
- 김옥남, 김영화. (2009).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질

- 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19 No.1.
- 김옥, 송미영. (2007).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도와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Vol.28.
- 김정훈. (2010).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자본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훈, 임안나.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증진방안. 『현대사회와행정』, 제20권 제3호. 51-87.
- 김종훈. (201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초등교육연구』, Vol.27 No.4.
- 김준기. (2006). 『한국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성과 효과성』,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중관, 윤희중. (2014).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공존정책, 다종교현상에 대한인구사회학적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Vol.34 No.4.
- 김재환. (2004).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창욱, 윤영수, 채승병. (2009). 『이머전트 코퍼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단행본.
- 김태준, 장근영. (2010).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자본. 『한국성인교육학회』, Vol.13 No.3.
- 김판준. (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3 No.2.
-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현숙. (2013). 『빈곤아동 청소년 지원기관의 통합서비스 영향요인 연구 : 네트워크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 질의 관계. 『가족과 문화』, 22(3), 97-127.
- 김현진. (2016). 『학습전이, 참여동기, 사회적자본 내 네트워크 유형, 반성적

- 사고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준, 김동일. (2011). 부르디외의 성찰적 사회학과 순수성의 정치. 『사회과학연구』, Vol.19 No.2.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행열. (2013).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68권, 115-136.
- 김혜경. (2004). 자원봉사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특성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41-156.
- 김혜순. (2006).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학 졸업생 취업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7-119.
- 김혜원, 임춘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17 No.3.
- 나원호.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윤구. (2006).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정옥. (2012).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궁근. (2007). 행정학자 시민단체 참여 활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 남부현, 김영인, 김옥남. (2016). 공공기관 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2), 101-132.
- 남순현. (2010).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 탐색. 『인간발달연구』, Vol.17 No.4.
- 남은영, 박수정, 김영빈.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여가와 문화적응의 탐색. 『교육문화연구』, Vol.16 No.1.
- 류영수. (2016). 『사회복지 자원봉사조직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모경환, 안성훈, 우희숙. (2012). 결혼이주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2.
- 민정아. (2010). 『조직 내 네트워킹 행동과 유리천장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상덕. (2007).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행정법 연구』, Vol.1 No.18.
- 문정수. (2010). 『지역평생추진체제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41.
- 백인경. (200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기관, 우무정. (2008).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회화 개념의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연구』, Vol.2 No.2.
- 박미정, 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미희. (2014).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봉규, 조재완. (2004).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만족과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Vol.18 No.3, 143-157.
- 박상원. (2016).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분석.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1), 112-147.
- 박상필. (2008).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석희, 노화준, 안대승. (2004).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42(1), 103-132.
- 박선민.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응희. (2012). 다문화교육의 담론과 실천을 위한 교육학적 분석 모형

-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Vol.7 No.1.
- 박용관. (1999). 『네트워크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용관. (1997). 네트워크 조직론 서설.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박의경. (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치사상연구』, Vol.19 No.2.
- 박자경. (2008).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Vol.18 No.1.
- 박주문. (1999). 노인 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245-261.
- 박재규. (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Vol.26.
-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보건 사회연구』, Vol.31 No.3.
- 박치성. (2010).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한국정책학회보』, 19(4), 115-154.
- 박하정. (2008).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희봉, 이희창, 강제상, 이창원, 임명수, 박광수, 박병래. (2006). 한국과 중국의 성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비교 분석. 『한국행정연구』, 15(4), 143-175.
- 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Vol.15 No.2
- 사지은. (2005). 『발달장애아동에 여가활동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재명. (2006).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4 No.1.
- 서진완. (2001). 지역정보네트워크와 정보공동체의 실현. 『한국행정연구원』, Vol.10 No.4.

- 서광석. (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유영. (2013). 『지역주민의 문화가치가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이벤트 태도 및 주민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형도, 조영호. (2010). 네트워크 행동과 경력만족 : 조직적합성 변수의 매개효과.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 1-22.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신미정, 이봉민. (2015).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참여와 초등학생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2 No.1.
- 신유리, 김은경. (2011). 사회참여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연구. 『여성학연구』, 21(3), 101-140.
- 설동훈. (2005).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Vol.5 No.2.
- 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Vol.24 No.2.
- 손광훈. (199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관 상호간 협력의 개념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 45-70.
- 손동원. (2005).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손은하. (2013).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다문화와 평화』, Vol.7 No.1.
- 송경재. (2015).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 변화 : 바텀업과 탑다운의 상호작용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13(1), 231-262.
- 송인영, 김영화.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적응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Vol.17 No.4.
- 송지현, 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30 No.2.
- 송지현.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 근. (1998). 새로운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의 모색과 참여 협력 경쟁의 시장경제. 『비교경제연구』, Vol.6.
-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Vol.45 No.1.
- 이경은, 박창제. (2009).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족과 문화』, 21(4), 119-143.
- 이보람.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Vol. 71 No.2.
- 이복자. (2011). 『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영. (2013).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와 다문화시민권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교육연구』, Vol.7 No.1.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연구학』, 32(1), 71-91.
- 이승중. (1997).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4. 249-269.
- 이삼식.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 이상길. (2005).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참여와 미디어 실천.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9.
- 이선미. (2003).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 『시민사회와 NGO』, 111-143.
- 이승주. (2012). 경찰행정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49.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27.
- 이순자, 박용순, 송진영.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 만

- 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25.
- 이우권. (2001). 시민 참여민주주의와 CGM의 적용 가능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1. 137-152.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Vol.10 No.2.
- 이영분, 이유경. (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Vol.28 No.1. 145-157.
- 이주재, 김순규.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73-91.
- 이재석, 변지영. (2015).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 이정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석. (2013).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요인이 개인의 단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통계연구』, 18(2), 16-41.
- 이준영. (2007).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자료집』, 3-34.
- 이종엽, 이승철. (2008). 경찰행정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지』, Vol.16.
- 이호경. (2010).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대책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Vol.9.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3. 219-245
- 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18 No.4.
- 이혜영. (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한국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이화영. (2008). 『한국 정당조직 내 여성의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훈병. (201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분석.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50, 373-399.
- 오세경, 김미순. (2016).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의 상호문화역량 탐색. 『다문화와 평화』, Vol.10 No.2.
- 오영민, 박종선. (2014). 시민참여와 경제개발정책 : 지역경제개발전략에서의 시민참여가 지역의 경제성과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Vol.18 No.2.
- 오영훈, 임한나. (2014).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를 통한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연구. 『다문화와 평화』, Vol.8 No.1.
-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석. (2003). 지적(地籍)행정서비스의 주민참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향론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Vol.32. 243-255.
- 오재림. (2004).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1.
- 오혜경, 박경숙. (1999). 여성장애인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Vol.3 No.2.
- 우영희, 하규수. (201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6 No.12.
- 유정숙.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태균, 김자옥. (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상에서의 중심자 역할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7(2), 20-48.
- 윤주명. (2000). 행정의 대응성과 시민참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Vol.2000 No.6. 69-97.
- 임혁, 남일재. (2014).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5.

- 안경섭, 김나영. (2009).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 안순태, 이하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정체성과 사회적지지』, 미디어, 젠더 & 문화. 31(4), 49-78.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성은, 이미영. (2011). 도서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이해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17 No.3.
- 양승함. (2005). 참여를 통한 보훈정책 발전 방안.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 Vol.1 181-199.
-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Vol.20 No.1.
- 양명숙, 이혜선. (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Vol.12 No.2.
- 양명숙, 이선희. (2012).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과 결혼만족도 연구. 『상담학연구』, Vol.13 No.4.
- 양인숙, 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 원서진, 송인옥.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윤경아, 남미애. (2003). 『서구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서울법학. Vol.6-7.
- 윤서정, 유은영. (2015).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고찰.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Vol.7 No.1.
- 윤석상. (2011).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사회구축. 『글로벌교육연구』, Vol.3 No.1.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현대북한연구』, 3(2).
- 윤인진. (2003).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아세아연구』, 50(20), 106-143.
- 엄명용. (1999).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의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한국사회복지학』, 37, 271-306.
- 엄태완, 이기영. (2004).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5-32.
- 염미경. (2013).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Vol.15 No.2.
- 임채완, 전형권. (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조상희. (2011). 『노인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석주, 강인성. (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석주. (2014).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83.
- 조영복, 김정원. (2011).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직무성과와 협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연구』, 18(1), 87-110.
- 조희원. (2010). 정치, 외교 영역 :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 『유라시아연구』, Vol.7 No.3.
- 주 정. (2014).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사회복지경영연구』, 1(2), 23-47.
- 진선미, 강은나, 장용석. (2011).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Vol.31 No.3.
- 전경옥, 김현숙. (2010). 미국 다문화주의를 통해 본 다문화주의 정치 철학의 딜레마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Vol.3 No.1.
- 전수진, 박경규. (2007). 사회 네트워크가 개인의 직무성과 및 경력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31(1), 147-171.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한국동북아논총』, 제49

집.

- 전형권. (2013).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성. 『한국동북아논총』, Vol.68.
- 전형권, 이승희. (2011). 한국 ‘다문화가족’ 형성에 나타난 정치학적 성격. 『평화학연구』, Vol.12 No.4.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20-4.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Vol.32 No.2.
- 정경운. (200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46-1.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운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명호. (2008). 사회적 관계와 협조적 행동 : 집단 및 조직 수준의 관계 특성을 통한 다층적 분석. 『인사조직연구』, 16(4), 41-74.
- 정명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변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복동. (2016).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공헌학회지』, Vol.3 No.2.
- 정순돌, 이은주. (2005).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25 No.4, 219-233.
- 정의철. (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국제비교한국학회』, Vol.19 No.1.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228-262.
- 정재화, 김연수. (2007).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Vol.7 No.2.
- 정정화, 은재호, 남재걸. (2014). 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한

- 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 정철균, 이광희, 황규대. (2007). 외국인 근로자 적응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1 No.2.
- 정홍모. (2014).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정치윤리논쟁. 『문화와 정치』, Vol.1 No.1.
- 정현희, 구혜령. (2003).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7(1), 153-167.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2.
- 쓰지모토 도시코. (2006).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 형성을 위한 이주여성의 저항과 전략』,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금해.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광목. (2016). 『외국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무현. (2011).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자료.
- 최아영, 윤현숙. (2012).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참여이유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복지연구』, Vol.3 No.1.
- 최인숙. (2016).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여성 관리자의 인식이 경력진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광. (2011). 『장애인 직업재활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훈, 신은주, 성정현, 김현희, 송주영, 김효주, 안채리. (2014).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위한 배분 분야별 연구 : 다문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연구소 연구 보고서. Vol.2014 No.3.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Vol.46 No.1.
- 최유미. (2008).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숙, 오지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
용 집단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33.
- 최정혜.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
족복지학』, Vol.16 No.4.
- 최종임, 김영순. (2016).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문화 시민
성 인식에 관한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4.
- 최준호. (2013). 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 『한국지방자치연
구』, Vol.15 No.1.
- 최태현. (2014). 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
구. 『한국정책학회보』, Vol.23 No.1.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Vol.61 No.1.
- 허수미. (2010). 다문화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의 방향 탐색. 『사회과
교육』, Vol.49 No.3.
- 허은성. (2012).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여
성연구논총』, Vol.11 No.8.
- 한상일. (2006).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지역공동체 참여. 『국제지역연구』,
Vol.15 No.1.
- 한애경, 윤혜미. (2012).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
인연구. 『장애와 고용』, Vol.22 No.3.
- 한원택. (1996).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 한형서. (2007). 독일지방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변화에 관한연구. 『한
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 홍성만. (2006). 『정책네트워크분석 : 정책행위자 간 동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현상 규명하기』, 국토 : planning and policy. 120-127.
- 홍성희, 김성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
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지』, 13(1), 119-146.

- 홍장선. (2012).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동현, 서순탁. (2011).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의 정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24(4), 55-84.
- 황미혜. (2014).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Vol.11 No.3.
- 황정미, 문경희, 양혜우, 정승희.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증진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외 문헌

- Adams, B. (1972). Birth order: A critical review. *Sociometry*. 35. pp 411-439
- Alder, P. S. &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Aldrich, H. & Herker, D. (1977). "Boundary Spanning Rol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pp 217-230
- Aycan, Z. (1997). Expatriate Adjustment as a Multifaceted Phenomen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8(4). pp 834-856
- Barnes, John. A. (1979). "Network Analysis. In Paul W. Holland & Samuel Leinhardt(ed.) Perspectives on Social Network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p. 403-423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1): pp 69-85.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pp 697-712.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pp 491-511
- Black, J. S. & Stephen, G. K. (1989) The influence of the spouse on American expatriate adjustment and intent to stay in Pacific Rim overseas assignments. *Journal of Management*. Vol. 15, No. 4. pp 529-544
- Blood Jr,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 Brass, D. J., Galaskiewicz, J., Greve, H. R. & Tsai, W. (2004). Taking

- stock of networks and organizations: A multi leve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 pp 795–819
- Buijs, G. (1993). Women alone: Migrants from Transkei employed in rural Natal
- Burkhardt, M. E. & Brass, D. J. (1990). Changing patterns or patterns of change: The effects of a change in technology on social network structure and pow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No. 1
- Burt, R. (1992).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pp 111–122
- Charles Taylor.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 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mico, J., Alfonso, M., Conway, M. & Damico, S. B. (2000). Patterns of Political Trust and Mistrust: Three moments in the lives of democratic citizens, *Polity*, 32(3), pp 377–400
- David A., Hard castle. & Patricia, R. (2004).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s*.
- Dosher, A. (1977). "Networks: A key to person–community development". *Paper presented to Office of Youth Development.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Denver Hearings
- Dubini, P. & Aldrich, H. (1991). Personal and extended networks are central to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 Fine, A. H. (1996). Leisure, living, an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Sage Books Pub
- Foner, N. (1986). Sex roles and sensibilities: Jamaican women in New York and London.
- Freeman, L. (2004).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Science. Vancouver. Empirical Press.
- Furnham, A. & Ward, C. (2001). Sex differences, test experience and the self-estim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 Gerlach, M. L. & Lincoln, J. R. (1992). "The Organization of Business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N. Noria & G. Eccles(eds.) *Networks and Organizations: Structure, form, and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usta, M. D. & Kambhampati, U. (2006). Women migrant workers in the UK: social capital, well-being and inte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8(6), pp 819–833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pp 1360–1380
- Granovetter, M. S. (1974). *Getting a Job ;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 Higgott, R. (2000). Contested Globalization: The Changing Context and Normative Challeng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6
- Ibarra, H. (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of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Managers'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3): pp 673–703.
- Itzhaky, H. (2003). Developing empowerment and leadership: The case of

- immigrant women in Israel. *journals.sagepub.com*
- Jones, C. (1996). Careers in project networks: The case of the film industry, in M. Trthur & D. Roussea(eds,), *The boundaryless career*, NY: Oxford Univ. Press
- Jones, C., Hesterly, W. & Borgatti, S. (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pp 911–946
- Kasarda, D.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pp 329–329
- Khagram, S., Clark, W. C. & Raad, D. F. (2003). From the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 to Sustainable Securi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4 No.2
- Kibria, N. (1994). Household Structure and Family Ideologies: The Dynamics of Immigrant Economic Adaptation Among Vietnamese Refugees. *Social Problems*. Vol. 41. No.1. pp 81–96
- Knipprath, H. & De Rick, K. (2015). How social and human capital predict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 longitudinal data analysis, *Adult Education Quarterly*. 65(1), pp 50–66.
- Kotaoka, H. C. (1995). *The Effectivenes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a Network Organization*. University of Toront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reiner, K. & Schultz, M. (1993). "Informal collaboration in R&D: The formation of networks across organizations". *Organization Studies*. 14
- Kwait, J. L. (1998).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mon HIV/AIDS Service Organization in Baltimore: A Network Analysis*, Johns Hopkins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lijn, E. H., Koppenjan, J. & Termeer, k. (1995).

- Managing Networks In The Public Sector: A Theoretical Study Of Management Strategies In Policy Networks.
- Larson, A. (1992). Network days in entrepreneurial settings: A study of the governance of exchange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apany.
- Levine, S. & White, P. E. (1961). White Exchange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5, No. 4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 Lipnack, J. (1998). The Age of the Network: Organizing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Interfaces*, Vol.28 No.3
- Lowenstein, A. & Katz, R. (2005). Living arrangements,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wo generations of immigrants in Israel. *Ageing & Society*.
- Mank, D. M. & Buckley, J. (1989). Strategies for integrated employment, Economics, industry, and disability, Paul Books
- Massey, D. S. & Akresh, I. R.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immigrants
- Mendenhall, M. & Oddou, G. (1985). The dimensions of expatriate acculturation: A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Michael L. Gerlach. & James R. Lincoln. (1992). Keiretsu networks in the Japanese economy: A dyad analysis of intercorporate 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7, No. 5
- Miles, R. E. & Snow, C. C. (1978). Organization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 Graw Hill

- Mitchell, J. C. (1969). "The Concept Use of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 Mitchell, J. C. (1979). Networks, Algorithms, and analysis. In Paul W. holland & Samuel Leihardt(ed.) *Perspective on Social Network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pp 425-451
- Morrow-Howell, N. (2010). Volunteering in later life: Research fronti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 Moschetti, V. R. & Hudley, C. (2015). Social capital and academic motivation among first-generation community college student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9(3), pp 235-251.
- Palmore, E. (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 Potocky-Tripodi, M. (2003). Refugee economic adaptation: Theory,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pp 63-91
- Powell, W. W.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L. L. Cmmings and B. M.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 Greenwich, CT: JAI Press. pp. 295-336
- Putnam, R.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ider, H. J. & Burt, R. S. (1996).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 Safrit, R. D. J & Lopez, J. (2001). *Exploring Hispanic American*

- involvement in community leadership through volunteerism.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 Sandefur, R. & Laumann, E. O. (1998). A Paradigm for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4): pp 481–501
- Santiago, M. C. & Coyle, C. P. (2004).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and secondary conditions in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 Seibert, S. E., Kraimer, M. L. & Liden, R. C. (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 pp 219–237
- Shoben, L. F. & Shaffer, E. J. (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 Simich, L., Morton, B., Stewart, M. & Mwakarimba, E. (2005). Providing social support for immigrants and refugees in Canada: Challenges and direction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7(4): pp 259–268
- Simon, R. J. & Brettell, C. B. (1986). International migration: the female experience.
- Tichy, N., Tushman, M. & Fombrun, C. (1979). Social network analysis for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pp 507–519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 Van de Ven, A. H. & Ferry, D. L. (1980/1992). Measuring and Assesseing Organizations. A Wiley Interscience Pub
- Veenstra, G. & Lomas, J.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5, pp 1–12

- Walker, M. E., Wasserman, S. & Wellman, B. (1994). Statistical Models for Social Support Networks. In Wasserman & Galaskiewicz(eds.) *Advances in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pp 53–78
- Ward, C. &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2): pp 129–147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인터넷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김포시청.	http://www.gimpo.go.kr
국가통계포털사이트. KOSIS.	http://kosis.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진주YWCA.	http://www.jinjuywca.or.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부록〉 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인사말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조사기간 중(2015. 7. 22. ~ 8. 18.)에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게 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표지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 _____ 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읍·면·동 _____ 동·리 _____ 번지			
관리 사항	행정구역 분류부호			세대 번호		가구원 번호
	[] [] - [] [] [] [] - [] []			[] [] [] [] [] [] [] []		[] []

지방청·사무소		구	분	계	남	여
조사원 성명		총	가	구	원	수
(휴대폰)	- -	비	대	상	가	구
		대	상	가	구	원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부 중(1)부	불응·불능 가구원 수				
조 사 표 기 입 방 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완료 조사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 ~ 24세 청소년 자녀 (1990. 7. 1. ~ 2006. 6. 30.)			

I 가구 구성

1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귀 덕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에 대해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¹⁾ (성명)	결혼이민자 귀화자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수준			혼인상태
				최종 ²⁾ 학력	재학 종업	학년 ³⁾ (재학중인 경우)	
1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별거
2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3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4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5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6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7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8 ()		① 남 ② 여	(양/음) ____년 ____월 ____일			㉞ 해당 없음 ① () 학년	

1) 가구원 번호는 가구 방문 시 만나는 사람 순으로 부여하고, 관계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과의 관계임

결혼이민자·귀화자와의 관계

- | | |
|----------------------------|-------------------------------|
| ①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본인(2번 조사표) | ⑨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부모 |
| ②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3번 조사표) | ⑩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조부모 |
| ③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자녀(4번 조사표) | ⑪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형제자매 |
| ④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자녀의 배우자 | ⑫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
| 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부모 | 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⑥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부모 | ⑭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⑦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손자녀 | ⑮ 기타() |
| ⑧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손자녀의 배우자 | |

최종학력

- | | |
|-----------------|---------------|
| ㉞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 ① 초등학교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 ② 중학교 | ⑥ 대학원 이상 |
| ③ 고등학교 | |

재학·종업

- | | |
|------|------|
| ① 졸업 | ④ 휴학 |
| ② 재학 | ⑤ 중퇴 |
| ③ 수료 | |

학년

- | | |
|-------|-------|
| ① 1학년 | ④ 4학년 |
| ② 2학년 | ⑤ 5학년 |
| ③ 3학년 | ⑥ 6학년 |

2) 외국인의 최종학력은 총 학습기간을 물어 이를 한국의 학제로 전환하여 기입

3) 학년은 대학교까지만 학년을 표시하며, 대학원은 ㉞ '해당 없음'으로 처리

2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출생, 여행, 입원 등의 이유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으로 간주)

국적		최초 입국연도 ⁵⁾	귀화연도 ⁶⁾	장애인 복지카드 ⁷⁾	조사원이 기입	
현재 국적 ⁴⁾ ☐	출생 시 국적				가구주 ⁸⁾ 여부	응답사유 코드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		⓪ 해당 없음 ① ()년	⓪ 해당 없음 ① ()년	① 있음 ② 없음	☐	

4) 현재 국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외국 국적을 쓰고, 현재 국적 아래의 ☒ 에 체크

5) 최초입국연도는 현재국적이 외국이거나 출생 시 국적이 외국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주, 취업 등을 위하여 처음 입국한 때를 의미하며, 여행 등은 제외

6) 귀화연도는 한국 국적 취득 연도를 말하며, 출생 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던 외국인이 귀화에 의해 한국국적을 갖게 된 연도를 기재하며, 현재 외국국적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⓪ '해당 없음'에 체크

7)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의미

8) 가구주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 3

조사표 기입요령

- 해당 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 각 항목별로 응답번호에 ✓ 하거나 1, 2, 3, 4와 같은 번호 또는 숫자를 써주십시오.
- '기타'의 경우에는 () 안에 내용을 한국어로 써주십시오.

미취학자녀 돌봄

- 2** (만 5세 이하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1 어린이집에 보낸다
2 유치원에 보낸다
3 보내지 않는다 →

2-1 이 아동은 평일 낮 시간에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동의 아버지 ⑤ 기타 친인척
② 아동의 어머니 ⑥ 고용된 아이돌보미
③ 아동의 친조부모 ⑦ 기타 ()
④ 아동의 외조부모 ⑧ 돌보는 사람이 없음

- 0 만 5세 이하 자녀 없음

II 가구 특성

주택의 종류

- 3**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④ 다세대주택
② 아파트 ⑤ 기타 ()
③ 연립주택

점유 형태

- 4**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기집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② 전세(월세 없음) (사글세 포함)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⑤ 무상

월평균 소득

- 5** 지난 1년(2014. 7. 1. ~ 2015. 6. 30.)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소득: 세전 수입을 의미(성여금,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정부 지원 제도

- 6** 귀하의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가구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폰	() -
	집	()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사 말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조사기간 중(2015. 7. 22. ~ 8. 18.)에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게 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 표지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로 _____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읍·면·동 _____동·리 _____번지		
관리 사항	행정구역 분류부호		세대 번호	가구원 번호
	[][] - [][][] - [][][]		[][][][][][][][][][]	[][][]
지방청·사무소	조사원 성명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표 기입방법	조사표 종류
	(연락처: _____)	총 ()부 중 ()부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① 한국어 ② 외국어

조사표 기입요령

- 본 조사표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출생 시 국적이 외국인이었던 사람(이중국적 포함)이 작성합니다.
- 각 항목별로 응답번호에 ✓ 하거나 1, 2, 3, 4와 같은 번호 또는 숫자를 써주십시오.
- '기타'의 경우에는 () 안에 내용을 한국어로 써주십시오.

I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혼인 상태

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미혼 → **17** 번으로 이동

2 배우자
있음

1-1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2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1-2-1** 몇 명을 (더) 가질 계획입니까?(임신 중인 자녀 포함) _____ 명
- ② 아니요

→ **2** 번
으로 이동

3 사별 →

1-3 언제 사별하셨습니까? (배우자께서 사망한 연도를 써주십시오)

_____ 년 → **11** 번으로 이동

4 이혼·
별거

1-4 귀하는 결혼 후 얼마 만에 이혼 또는 별거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1-5 이혼 또는 별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외도 등의 애정문제 ⑥ 학대와 폭력
② 성격차이 ⑦ 음주 및 도박
③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⑧ 심각한 정신장애
④ 경제적 무능력 ⑨ 배우자의 가솔
⑤ 자녀문제 ⑩ 기타()

■ 만 18세 이하(1996. 7. 1.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6** 번으로, 없으면 **11** 번으로 이동

1-6 누가 자녀를 주로 키우고 있습니까?

- ① 본인 → **1-6-1** 그렇다면 귀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② 배우자 → **1-6-2** 귀하는 자녀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 ① 한 달에 두 번 이상
② 한 달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 번 미만
④ 그보다 더 드물게 만난다
⑤ 거의 만나지 않는다

③ 기타()

→ **11** 번
으로 이동

만남과 결혼

2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와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까?

※ 결혼식,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연도를 써주십시오.

_____ 년

3 이 결혼은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① 초혼 ② 재혼

4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① 결혼 중개업체(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④ 종교 기관을 통해서
②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로 ⑤ 스스로
③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⑥ 기타()

부부간 대화

5 귀하는 배우자와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 ①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부부간 문화적 차이

6 귀하는 지금까지 배우자와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6-1 있었다면 가장 크게 느낀 문화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식습관 ⑥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②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⑦ 종교생활에 대한 이해
③ 자녀 양육 방식 ⑧ 지출, 소비 등 경제생활 차이
④ 가사 분담 방식 ⑨ 기타()
⑤ 부모 부양 방식

2 없었다

의사 결정

7 귀 닥에서는 다음의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② 본인이 주로 결정하고 배우자가 돕는다	③ 공평하게 결정한다	④ 배우자가 주로 결정하고 본인이 돕는다	⑤ 배우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⑥ 해당 없음
1. 자녀 교육						
2. 생활비 지출						
3. 본인의 취업 / 직장이동						

부부 갈등

8 지난 1년(2014. 7. 1.~ 2015. 6. 30.)동안 귀하는 배우자와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8-1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성격차이 ⑦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②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⑧ 본인 가족과의 갈등(가족초청, 물질적 지원 등)
③ 언어 소통의 어려움 ⑨ 외도 문제
④ 자녀의 교육 또는 행동 문제 ⑩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문제
⑤ 생활비 등 경제 문제 ⑪ 심한 의심, 외출 제한(여권 숨김 등) 문제
⑥ 음주 문제 ⑫ 기타()

2. 얻었다

9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그냥 참는다
② 혼자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 본다
③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④ 소평을 한다
⑤ 운동 등 취미생활로 분다
⑥ 술을 마신다
⑦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⑧ 주위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이야기한다
⑨ 전문가와 상담한다
⑩ 종교에 의지한다
⑪ 기타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10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11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2.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3. 딸들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II

자녀양육

■ 자녀가 없거나, 모든 자녀가 만 25세 이상(1990. 6. 30. 이전 출생)이면 17 번으로 이동

자녀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12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태어난 달이 가장 빠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2. 나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13 귀하와 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해당 없음
1. 나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2. 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모국으로의 유학

14 귀하는 향후에 자녀를 모국에서 공부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 ②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 ③ 한국에서는 학교생활이 어려워서(차별, 놀림 등)
- ④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 ⑤ 한국보다 모국에서 성공하기 쉬울 것 같아서
- ⑥ 한국보다 모국의 교육환경이 좋아서
- ⑦ 한국에서 내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서
- ⑧ 기타()

② 없다

III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한국어 능력

17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매우 잘한다	② 약간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못한다	⑤ 전혀 못한다
1. 말하기					
2. 듣기					
3. 읽기					
4. 쓰기					

18 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18-1 시험 결과, 귀하의 등급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1급 | ☐ ⑤ 5급 |
| ☐ ② 2급 | ☐ ⑥ 6급 |
| ☐ ③ 3급 | ☐ ⑦ 등급 없음 |
| ☐ ④ 4급 | |

☐ 2 없다

한국생활의 어려움

19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20 지난 1년(2014. 7. 1.~2015. 6. 30.)동안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보기〉

- | | |
|---|--|
| ☐ ① 의료 | ☐ ⑥ 언어 문제 |
| ☐ ② 가족 간의 갈등 | ☐ ⑦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
| ☐ ③ 자녀양육 및 교육 | ☐ ⑧ 편견과 차별 |
| ☐ ④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 ☐ ⑨ 기타() |
| ☐ ⑤ 경제적 어려움 | ☐ ⑩ 어려운 점 없음 |

사회적 관계

- 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있다			④ 없다	⑤ 해당없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외국인		
1.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X
2.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3.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4.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X
5.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X



참 여

- 22** 귀하는 지난 1년(2014. 7. 1.~ 2015. 6. 30.)동안 다음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있었다	② 없었다	③ 해당 없음
1. 학부모 모임			
2. 모국인 친구 모임			X
3. 지역 주민 모임			X
4. 종교 활동			X
5.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X

- 23** 귀하는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부모 모임
- ② 모국인 친구 모임
- ③ 지역 주민 모임
- ④ 종교 활동
- ⑤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 ⑥ 정당, 노동조합 등
- ⑦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 없음

- 24** 귀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②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 ③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 ④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 ⑤ 일을 해야 하므로
- ⑥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 ⑦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 ⑧ 기타()
- ⑨ 어려움 없음

사회적 차별 경험

25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27** 번으로 이동

26 지난 1년(2014.7. 1. ~ 2015. 6. 30.)동안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26-1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② 약간 차별을 받았다	③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④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⑤ 이용한 경험 없음
1. 거리나 동네에서					X
2.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3. 공공기관 (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4. 직장 / 일터에서					
5.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26-2 차별이나 무시당한 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⑤ 카메,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②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 ⑥ 참았다
 ③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⑦ 기타()
 ④ 차별시정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

② 없었다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7 귀하는 다음 중 받은 경험이 있는 교육, 지원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교육, 자녀지도 등) ⑦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⑧ 사회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③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⑨ 각종 상담(가족관계, 비자·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등)
 ④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⑩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⑤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⑪ 아이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⑥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⑫ 받은 경험 없음

28 귀하에게 다음의 교육이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1.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자녀 지도 등)					
2.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4.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5.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6.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7.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8. 사회 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9. 각종 상담(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 상담 등)					
10.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1.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서비스					

다문화 관련 지원 시설 이용 경험

2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모른다	②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③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1577-1366 (다누리콜센터, (구)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4.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6. 고용센터			
7. 사회복지관			
8. 민간 외국인 지원단체 (국제교류센터, 종교단체 등)			

진학 의향

30 귀하는 향후 한국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재학 중

36 그 직장(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 |
| ②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 ⑦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
|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 ⑧ 집안일과 병행하기 어렵다 |
| ④ 돈을 조금 받는다 | ⑨ 기타() |
| 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가 있다 | ⑩ 별로 어려움 없음 |

37 지난 3개월(2015. 4. 1. ~ 6. 30.)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 | | |
|----------------|----------------|
| ① 50만원 미만 | ⑦ 300~350만원 미만 |
| ② 50~100만원 미만 | ⑧ 350~400만원 미만 |
| ③ 100~150만원 미만 | ⑨ 400~450만원 미만 |
| ④ 150~200만원 미만 | ⑩ 450~500만원 미만 |
| ⑤ 200~250만원 미만 | ⑪ 500만원 이상 |
| ⑥ 250~300만원 미만 | ⑫ 임금 또는 보수 없음 |

→ **41** 번으로 이동

구직활동

38 귀하는 지난 1주일(2015. 6. 28. ~ 7. 4.)동안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구해 보았다
 ② 구해 보지 않았다 → **41** 번으로 이동

39 지난 1주일(2015. 6. 28. ~ 7. 4.)동안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구직의 어려움

40 귀하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⑥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음 |
| ② 한국에서의 경력 부족 | ⑦ 외국인에 대한 차별 |
| ③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⑧ 기타() |
| ④ 모국에서의 학력과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함 | ⑨ 어려움 없음 |
| ⑤ 모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 |

모국에서의 일자리

41 귀하는 한국으로 오기 전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기타 일반사항

모국 거주 부모형제 초청 의향

42 귀하는 현재 모국에 살고 있는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까?

1 초침하고 싶다 →

42-1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녀들뿐 등 가사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 ② 농사일, 가계일 등 우리 집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 ③ 모국보다 한국의 의료, 생활환경이 더 좋아서
- ④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모국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 ⑤ 기타 ()

2 초청하고 싶지 않다

0 현재 모국에 살고 있는 부모형제가 없다

국적 취득

43 귀하는 한국 국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읽다 →

43-1 귀하의 현재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영주(F-5) → 취득연도 : 년

②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

③ 거주(F-2, 단 F-2-1은 제외)

④ 방문동거(F-1)

⑤ 재외동포(F-4)

⑥ 전문직 취업(E-1부터 E-7까지)

⑦ 비전문취업(E-9)

⑧ 방문취업(H-2)

⑨ 산업연수(D-3)

⑩ 유학(D-2)

⑪ 기타 체류기간 90일 이상 비자

⑫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
사증면제(B-1) 등 90일 이하
단기비자

43-2 귀하는 앞으로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이다
② 영주권만 받을 것이다
③ 한국 국적 혹은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다
④ 모름/중다

다문화 지향성

44 귀하는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⑥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한다						

45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해당없음
1. 나의 배우자나 가족은 내가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2.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건강 상태

46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47 귀하는 지난 1년(2014. 7. 1.~ 2015. 6. 30.)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① 그런 적 없다 ② 가끔 느꼈다 ③ 자주 느꼈다 ④ 매우 자주 느꼈다



병원 및 건강보험

48 귀하는 지난 1년(2014. 7. 1. ~ 2015. 6. 30.)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있었다 →

48-1 있었다면,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 ② 가까운데 병원이 없어서
- ☐ ③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 ☐ ④ 어떤 종류의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 ☐ ⑤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 ☐ ⑥ 기타()

☐ 없었다

생활 만족도

49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약간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사회적 지위

50 여러 가지 면(소득, 재산,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가족은 다음 중 어떤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 ② 하

☐ ② 중
☐ ① 상
☐ ③ 하

☐ ③ 하
☐ ① 상
☐ ⑤ 하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폰	() -
	집	() -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 Focusing on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Adaptation –

Seo, Jung-Won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have settled in Korean societ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have drawn a lot of public attention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 to and nurturing their children within their respective families as a daughter-in-law, a spouse, and a mother of Korean children, and have also received a lot of support and service at a national policy level. However, relevant surveys and studies report that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after marriage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cultural gap; difficulties such as social alienation, child-rearing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social prejudice, domestic violence and discord.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Korea have to cope with two real vulnerabilities of being foreigners and women in adapting to Korean society.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foreign women who have migrate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aim of settling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ir current living environment is vulnerable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The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s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to Korean society as a whole since the rapid increas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with such a short history of international marriage-based immigration can act as an influential factor of accelerating various forms of structural changes in social, welfare and administrative aspects.

Therefore,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should be examined from various aspects. Here, social adaptation for a marriage migrant woman can be seen as the fusion of the individual with her surrounding environment, which can be further defined through human relations and social activities. In other words,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refers to their marit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and neighborhood relations, and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nd involvement in self-help groups in the community where they live. This is the key concept of social adaptation operationally used in this stud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as the sub-systems of social adap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s economic, political, social, policy, and domestic adaptation within the soc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arried female immigrants' among immigrants liv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ce area, country of origin,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residence, and thereby compar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adapt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current immigration policy of Korea.

The analysis results and their relevant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focusing on social networks, Married female immigrants from advanced countries mainly showed high level of social netwo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elp Married female immigrants break away from economic hardships and promote their social networking by expand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or online information training provided b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for the surrounding nations with poor economic conditions, and by encouraging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ctively utilize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en examined along the educational level, a large percentage of highly educated Married female immigrants showed high level of social networks.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rried female immigrants with comprehensive and overall socialization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based special educatio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community for their improved educational level which will fulfill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to revitalize the professional workforce that will take responsibility and conduct such necessary education. Examining by age group, the younger generation showed higher level of social networking, which is understandable since social activities are more active among younger generation. In order to develop and vitalize social networks among of the elderly Married female immigrants,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the

community building programs operated by the local welfare institutions and encourage the elderly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It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develop and vitalize various programs such as hobby class, exercise and recreation programs for elderly Married female immigrants.

Second,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terms of social particip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overall participation rate of local residence gatherings or private group gathering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gatherings with friends from home country and social participation mainly occurs among middle-aged Married female immigrants. It was also found that participation rate is higher for those with longer residence period. These results imply that, compared to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are younger and have shorter period of residence, middle-aged Married female immigrants have settled in their respective local community relatively well and have formed harmony and friendship with the local resid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us show high social participation rate. Therefore,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an be advanced by developing new programs as well as promoting existing local programs that can be appreciated by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encouraging Married female immigrants's participation in these programs after conducting actual condition survey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are young and have short residence period.

Third, as for the economic side of social adapt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60%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at more than 70% of the economically active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divorced, separated, and unmarried people, indicating that economic activity is higher among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are currently spouseless.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for employment will continue to rise in the future due to increased number of families from family life cycle changes, longer period of residence, and increase of immigrant population. Thu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forecast of economic activitie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mployment promotion plans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addition, one of the ways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economic life of mother-and-child families among Married female immigrants is to develop a new supporting program that is more intensive than the current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As for the political side of social adaptation, results showed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rat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s generally very low at 2% and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is higher with younger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have higher level of social interest. Given that 60%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es or labor unions. Since Married female immigrants will begin to pay attention to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en their basic rights to live has been secured,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given priority.

As for adaptation related to policy, high usage rates were observed in agencies such as government support centers, employment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except for community service centers. This can be evaluated as a publicity effect from the education received at the Ministry of Justice during the initial stage of immigration and can be attributed also to the consideration and efforts by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working within the residence areas where Married female immigrants live. On the other hand, in

reference to adaptation in the social domain, more than 55% of the subjects provided positive responses with positive responses mainly coming from Married female immigrants from advanced countries and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Similarly, in reference to adaptation in the family domain, more than 67% of the subjects responded positively about their spouses with positive responses mainly coming from Married female immigrants from advanced countries and with higher level of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the satisfaction for society and family is high among Married female immigrant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level between Korea and the mother countries of these immigrants.

Finally,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social and cultural education of Korea should be expanded to accelerate Married female immigrants'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by expanding public agencies, developing programs that are accessible and easily acceptable, and building more active networks even in the smaller towns that are administratively designated as 'dong.'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Korean society to advanc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y recogniz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accepting their diversity and difference, and making further efforts for social coexistence and policy changes considerate of them. It is through these efforts that Korean society will advance into a harmonious society in which social integration is realized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beyond their social adaptation.

【Keywords】 Married female immigrant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social adaptation